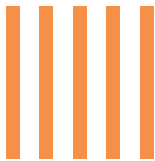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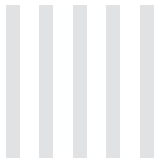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제5편

목포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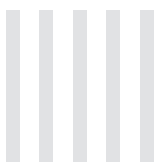
제1절 개관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2절 선사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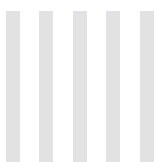
제3절 수군진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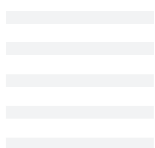
제4절 근대 문화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5절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6절 종교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7절 자연환경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1장 역사 유적

| 일러두기 |

- 문화유산의 구분은 목포의 특성에 맞게 성격별로 구분함.
- 일제강점기는 식민지 지배와 관련 된 수탈 유적 중심으로 수록.
- 근대 생활사 유적은 목포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인 유적을 중심으로 수록함.
- 기념비는 1950년 6·25전쟁 이전에 건립된 유적까지를 수록.
- 조성 연대가 6·25전쟁 이후라도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물은 포함.
- 건축 유적은 건축 편에서 별도로 서술되어 중복을 피함.
- 비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문(한자)을 먼저 표기하고 ‘()’에 독음을 표시함.
- 기념비의 명칭은 인명과 비의 성격을 제시하여 작성. 예) 정병조 영세불망비
- 지정 명칭이 있는 경우는 지정된 명칭에 따름. 예) 만호 방대령 선정비
- 무형 문화재와 근대 건축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됨.
- 본고 설명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목포대 박물관·목포시, 『목포시의 문화유적』, 1995.
 - 목포대 박물관·목포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목포시』, 2007.
 - 목포문화원, 『목포 근현대 표상』, 2011.
 - 목포시문화유산위원회, 『목포시 문화유산 조사보고서』, 2012
 - 최성환 외, 『다시 보는 유달산』, 목포문화원, 1999.
 - 최성환 외, 『목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100선』, 목포시, 2009.
 - 최성환,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 목포시, 2016.
 - 최성환, 『고하도 문화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목포시, 2016.
 - 김수진, 『지질·광물 문화재 자원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1.
 - 김보성 외, 「압해도 육식 공룡알 동지 화석 발굴 조사보고」, 『2010년도 한국고생물학회 추계 답사 학술자료집』, 한국고생물학회, 2010.
 - 김영희, 「금용 일섭(1900~1975)의 불상조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제1절 개관

목포는 무안반도 남단에 자리한 항구 도시이다. 동쪽에 입암산(121m), 서쪽에 유달산(228m), 북쪽에 양을산(156m)·대박산(156m)·지적봉(189m) 등이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다. 목포항 앞바다에는 고하도가 자연 방파제 구실을 하여 천연적인 양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목포(木浦)’라는 지명 자체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목에 위치한 포구’라는 의미를 지닌 곳이다. 1439년에 목포진(木浦鎭)이 설치되어 수군의 요충지로 역사적 기능을 해왔고, 1897년에 국내에서 네 번째 통상항으로 문을 열면서 항구 도시로 발전해 왔다. 그러한 흐름에 맞게 다양한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먼저 목포시 문화 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총 57종이다.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목포시 문화재 현황(2017년 12월 현재)

합계	국가지정						도지정					등록	시지정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	계	유형	무형	기념물	문화재자료	유형	유형(무)
57	4			1	2	1	13	3	4	3	3	12	28(1)

이 통계는 국가 지정, 도 지정, 등록 문화재 그리고 목포시 자체 조례로 만든 목포시 문화유산을 포함한 숫자이다. 이중 국가 지정 문화재는 <표 2>와 같이 총 4건이다.

표 2 목포시 국가지정 문화재 목록

번호	지정종별	문화재명	시대	수량	소재지	지정일자
1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 영사관	근대	1동	영산로 29번길 6	1981. 09. 25.
2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장주원	-	-	노송길 32-5	1996. 02. 01.
3	천연기념물 제500호	목포 갯바위	-	-	용해동 산 86-24 인근	2009. 04. 27.
4	천연기념물 제535호	신안입해도 수각류 공룡알 동지화석	-	-	남농로 135(자연사박물관)	2012. 06. 27.

현재까지 목포시 관내에 국가 지정 국보와 보물은 없고, 국가 사적이 한 곳 있다. 1900년에 건립된 구 일본 영사관이다. 개항 이후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유산이지만, 한국근대사의 흐름과 목포 역사에서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광복 후 목포시청, 시립도서관 등으로 사용되면서 비록 일제강점기의 유산이지만 더 오랜 시기를 목포 시민들이 사용하고 가꿔온 근대건축물이기도 하다. 예항 목포를 대표하는 옥공예 장주원 명인이 중요 무형 문화재 100호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승무와 살풀이 두 분야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5년 이매방 명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해지되었다. 천연기념물이 두 개나 지정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영산강 하구에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갯바위, 한반도가 지형적으로 중국 대륙과 분리되기 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알 동지화석 등은 목포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다음은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황이다. 총 13건이 지정되어 있다. <표 3>과 같다. 유형 문화재 3건, 무형 문화재 4건, 기념물 3건, 문화재 자료 3건이다. 수군진 관련 유적,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형성된 근대유적, 판소리와 관련 된 무형 문화재가 주류이다.

표 3 목포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황

번호	지정종별	문화재명	시대	수량	소재지	지정일자
1	유형문화재 제39호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조선	비1기	달동 산 230-2번지	1974. 09.24.
2	유형문화재 제228호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	조선	1점	유달로 173	2000. 12. 13.
3	유형문화재 제229호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반가상	조선	1점	유달로 173	2000. 12. 13.
4	무형문화재 제29-2호	판소리 인부덕(동편제「춘향가」)	-	-	영산로 676-7	2002. 04. 20.
5	무형문화재 제29-4호	판소리 박방금(판소리「수궁가」)	-	-	산정로 155	2008. 12. 26.
6	무형문화재 제29-5호	판소리 김순자(판소리「흥보가」)	-	-	동부로 18번길 8	2009. 03. 20.
7	무형문화재 제50호	조선장(심정후)	-	-	서산동 23	2013. 08. 05.
8	기념물 제10호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조선	비각1 삼문1	달동 산 230번지	1974. 09. 24.
9	기념물 제21호	목포시사	조선	1동	유달로 165	1975. 10. 11.
10	기념물 제174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근대	1동	번화로 16	1999. 11. 20.
11	자료 제137호	목포진지	조선	비 1기	만호동 1-56번지	1986. 11. 08.
12	자료 제138호	목포오포대	근대	1점	온금동 산 1번지	1986. 11. 08.
13	자료 제165호	이훈동 정원	근대	정원 1	유동로 63	1988. 03. 16.

정유재란 후 이순신이 고하도에 머물며 삼도수군을 통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고하진성의 흔적이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고하도 시절 이순신의 활동상을 기록으로 기념하기 위해 1722년 건립한 기념비가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고하도 이순신 관

런 유적은 목포시 문화재 가운데 최초로 지정된 사례이며, 목포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더불어 수군진이 설치되어 있었던 ‘목포진지’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식민지 시설의 유적 중에는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 시간을 알리는 대포로 사용된 ‘오포대’, 일본인 우찌다니 만씨가 살았던 정원, 목포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교류하던 ‘목포시사’가 지정되어 있다. 개항 이후 유달산 자락에는 여러 불교 사찰들이 형성되었는데 그중 1915년에 창건된 달성사에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목조지장보살반가상’과 ‘목조아미타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둘 다 조성 연대가 분명하게 밝혀진 불교 유적으로서 가치가 높고 특히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의 경우는 임진왜란 이전인 1565년에 조성되었으며, 시왕상과 권속, 판관이 일괄 보존되어 있어 국가 지정 보물로 승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유적이다. 목포는 예향(禮鄕)의 원조이며, 특히 남도의 상징인 판소리 명창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판소리와 관련하여 안부덕, 박방금, 김순자 세분의 명창이 전라남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항구 도시이자 수많은 도서와 연결되는 중심도시답게 전통 배를 만드는 장인(심정후)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등록 문화재 부분이다. 목포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 해당한다. 등록 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물·문학예술 작품·생활문화 자산·산업·과학·기술 분야·동산문화재·역사 유적 등이 주 대상이다. 주로 근대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다. 목포시의 경우는 총 12건이 등록 문화재로 이름을 올렸다.

표 4 목포시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현황

번호	지정종별	문화재명	수량	소재지	지정일자
1	제29호	호남은행 목포지점	1동	해안로 249번길 34	2002. 05. 31.
2	제30호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1동	영산로 10번길 10	2002. 05. 31.
3	제43호	목포 구 청년회관	1동	차범석길 35번길 6-1	2002. 09. 13.
4	제62호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1동	삼일로 45	2003. 06. 30.
5	제114호	목포양동교회	1동	호남로 15	2004. 12. 31.
6	제239호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1동	송림로 41번길 11	2006. 03. 02.
7	제340호	구 동본원사목포병원	1동	영산로 75번길 5	2007. 07. 03.
8	제513호	목포천주교 구 교구청	1동	노송길 35	2012. 10. 17.
9	제588호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	1동, 1기	영산로 29번길 6	2014. 04. 29.
10	제640호	목포문태고등학교 본관	1동	용당로 138	2014. 10. 30.
11	제696호	목포 정광정혜원	1동	노적봉길 26	2017. 10. 23.
12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건물5동, 굴뚝3기, 설비물5기	해안로 57번길 24	2017. 12. 05.

목포시 문화재 중 등록 문화재가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일제의 식민지 수탈항이라는 측면과 함께 근대문화의 전파가 가장 빠른 도시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항 이후 항구 도시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근대 건축물들이 형성되었고, 원도심에 당시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걸어 다니는 근대 건축 박물관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는 곳이 ‘목포’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 관련 근대 건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 시설이었던 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강당 건물, 목포대학의 뿌리인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물, 일제강점기 설립된 문태학원 건물, 전남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인 정명여학교의 선교사 사택 건물 등이 남아 있다. 또한 목포는 개항 이후 은행 관련 근대 건물들이 많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아쉽게도 1990년대 후반에 대부분 철거되었는데, 현재는 조선인들의 은행이었던 호남은행 목포지점이 보존되어 있다. 목포에 남아 있는 등록 문화재 중 가장 의미 있는 건물 중 하나는 1925년 완공된 ‘목포청년회관’이다. 이 건물은 목포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건립한 목포 최초의 시민 회관 성격을 지녔고, 일제하 목포 민족 운동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사적지이다.

신흥 종교와 외래 종교 관련 건축물도 인상적이다. 전남 최초의 교회, 성당 관련 유적이 등록되어 있고, 1930년대 초반 석조로 지어진 일본 사찰 건물 동본원사 목포 별원도 보존되어 있다. 대부분 목조로 된 사찰 건물이 많은데 동본원사 목포 별원의 경우는 근대 건축을 상징하는 석조로 된 사찰이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외에 일제가 패망 직전에 한국인 강제 징병자들을 동원해 만든 방공호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목포부청 시절 조성한 방공호가 대표적인 유적이다.

다음은 목포시 자체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목포시 문화유산 관련이다. 목포시는 2001년 당시 강성희 목포시의원의 발의로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한 후 목포의 역사와 사회상을 반영한 시 문화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향토성이 반영된 유적들이 중심을 이룬다. 현재 목포시 문화유산은 28건이다. 당초 30건이 지정되었는데 이 중 2건(문태고등학교 본관, 구 목포부청 서고)은 등록 문화재로 승격되었다.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 현황

번호	명 칭	소재지	지정일자
1	수군절도사 신광익 선정비	만호동 1-56	2012. 05. 21.
2	만호 방대령 선정비	만호동 1-56	
3	유달산 산왕대성전터	죽교동 산 42-2 일원	
4	온금동 큰샘과 비군	온금동 209	
5	총순 구종명 영세 불망비	죽동 96-2	
6	고하도 조선 육지면 발상지비	달동 780	
7	유달산 마애불	죽교동 산 42-2 일원	
8	보광사 석조석가여래좌상과 짓샘	죽교동 280	2012. 05. 21.
9	유달산 마륵불 암각	죽교동 317-3	
10	경상도우회기념회장 암각	온금동 산 12-1	
11	이로면 임성시장 기념비	석현동 1176	
12	목포북교초등학교 오충석탑	수문로 83	
13	목포북교초등학교 느티나무	수문로 83	
14	목포 도룡지석묘군	석현동 896번지 일원	
15	목포 석현지석묘군 Ⅱ	석현동 430번지 일원	
16	옥암동 초당산 고분	옥암동 219 일원	
17	공생원 사무실	해안대로 28번길	
18	정광 정혜원	노적봉길 26	2013. 07. 08.
19	약사사	목포진길 5-1	
20	천주교 경동성당	해안로 165번길 33	
21	심복주 가옥	불종대길 15-4	
22	구 춘화당 한약방	영산로 59번길 35-6	
23	석장 손양동	녹색로 31	2014. 03. 26.
24	구 무안군청 서고	차범석길 35번길 9	
25	목포의 눈물 노래비	죽교동 산 44	2016. 07. 28.
26	마인게터 골목길	마인게터로 28, 38, 40번길	
27	보리마당 골목길	보리마당로 28-7·해안로 127번길 15-2	
28	77계단과 송도골목길	송도길 10, 12, 20번 길	

‘목포시 문화유산’은 선사 시대 유적부터 수군진 유적, 근대 사회상 관련 유적들이 망라되어 있다. 일반적인 지정 문화재에서 주목받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성이 강하고, 목포라는 도시의 사회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목포에도 고대부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지석묘군도 두 곳과 고분 1기가 포함되어 있다. 목포진 만호와 수군절도사 관련 선정비는 개항 이전 수군진 시절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고하도에서 최초로 육지면 재배가 시작됨을 기념하기 위해 1936년 건립한 ‘고하도 조선육지면 발상지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항 이후 목포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조선인 관련 유적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목포시 문화유산’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일제강점기 목포에 거주했던 경상도 출신들의 기념암각 등 목포 지역만의 독특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유적들도 많다. 비록 건립 연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969년 유달산 자락에 조성된 ‘목포의 눈물 노래비’ 같은 경우도 상징성과 지역민의 애정이 담긴 유적으로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근대 시기 목포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대표 골목길 세 곳도 지정됨으로서 기존 문화재가 지닌 고정 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 되지 않은 유적들도 다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화 유적을 망라하여 대표적인 유적들을 수록하였다. 일반적인 분류법과는 다르게 목포시 문화유적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사 시대 유적’, ‘수군진 유적’,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 문화 유적’,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유달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와 종교 유적’, 그리고 ‘자연 환경과 관련된 유적’으로 크게 6개로 구분하였다. 무형 문화재와 근대 건축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선사유적의 경우 목포시 행정 구역이 과거 무안 땅의 일부 석현동, 옥암동 등이 포함됨에 따라 지석묘와 고분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인 갯바위 일대에는 패총의 흔적도 남아 있다. 비록 목포가 개항장으로 성장한 근대도시지만 서남해 사람들의 역사적 뿌리와 함께 해운 공간임을 보여준다. 시대적으로 목포시 문화 유적은 고려 시대와 관련 된 직접적인 유적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지만, 조선 시대 수군진 관련 유적과 개항이후 근대 시기 유적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군진 유적은 만호동에 500년간 존재했던 목포진, 이순신이 정유재란 시기 고하도에 설치한 고하진성, 유달산에 설치된 봉수대 등이 중심을 이룬다. 근대 문화 유적은 개항 이후 도시화과정에서 형성된 교육, 종교, 산업 등과 관련 된 유적들, 수탈 유적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식민지 지배 정책의 결과물로 만든 유적, 일본인 거류지에 남아 있는 흔적들이 중심이다. 종교 유적의 경우는 유달산 자락에 형성된 불교 사찰, 일본인들 관련된 일본 불교와 신사, 토착 신앙인 산신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연환경 관련 유적은 목포의 천연기념물, 독특한 지질 자원, 보호수 등을 포함하였다.

제2절 선사 유적

1. 성자동 패총

- 소재지: 용해동 산 86-1
- 시 대: 철기

목포 문화의 거리 입암산 끝자락에 해당하는 갯바위를 중심으로 길이 30m, 너비 10m 정도의 범위에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북쪽에는 암반으로 형성된 산이 있으며, 패총은 이 산 남쪽 경사면에 있다. 이곳은 영산강 하구언이 조성되기 전 내륙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곳으로 위치상 나불도 패총과 마주하는 곳이다. 패총 주변에는 ‘湖隱利川徐氏墓(호은이천서씨묘)’가 있다. 목포대 박물관에서 1995년 조사 당시 점토대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패총 주변에 등산로가 개설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져서 현재는 그 패각의 흔적만 일부 남아 있다.

그림 1 성자동 패총



2. 목포 도롱지석묘군

- 소재지: 석현동 896 일원
- 시 대: 청동기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14호(2012. 05. 21.)

도롱마을에 위치한 목포가톨릭대학에서 남서쪽으로 100m정도 떨어진 구릉상에 위치한다. 목포대 박물관의 1995년 조사한 보고서에는 총 5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1년 12월 목포시 문화유산 조사 보고 당시에는 지석묘 중 일부는 밭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상석을 옮겨 포개어 쌓은 상태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잡초들이 우거져 있어 3기 정도만 확인된 바 있다. 지석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은 얇은 경사를 이루고 있다. 목포가톨릭대학에서 남동쪽으로 440m 떨어져 위치한 석현동 새방주교회 담 옆에 목포 석현동 지석묘군Ⅰ이 위치한다. 본래 2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교회 건립 공사 도중 2호는 파괴되었으며, 1호는 현재 자리로 이동되어 상당 부분 땅 속에 묻혀 있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지석묘의 군집 방향은 남-서 방향이다. 원형은 많이 파괴되었으나, 목포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선사 유적 현장이다.

그림 2 도롱지석묘군 전경(좌)과 지석묘(우)



3. 목포 석현지석묘군

- 소재지: 석현동 82-2 일원
- 시 대: 청동기
- 지 정: 목포시 문화유산 15호(2012. 05. 21.)

석현마을과 신지마을의 경계에 해당하는 고개 마루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1995년 목포대 박물관 조사 보고서에는 이 고개마루 정상부를 중심으로 밭과 대나무 숲, 집 안에 8기의 지석묘가 군집되어 있었다. 고개마루에서 확인된 3기는 가장 큰 지석묘(4호)를 중심으로 서쪽에 5호, 동쪽에 3호가 동-서 방향으로 군집되어 있다. 8호 지석묘는 석현마을길 97번지 박유복·김경란 씨 집 마당에 위치하는데 지석묘 하부는 전체적으로 시멘트가 발라져 있어 하부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가장 큰 지석묘(4호)는 장방형 상석에 남-북 방향이며, 상석 크기는 장축 500cm, 단축 270cm, 두께 140cm이다. 원형은 많이 파괴되었으나, 목포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선사 유적 현장이다.

그림 3 석현지석묘군 전경(좌)과 지석묘 3호(우)



4. 옥암동 초당산(草堂山) 고분

- 소재지: 옥암동 234 일원
- 시 대: 삼국 시대

초당산 마을 뒤편의 야산 정상부(해발 56.3m)에 '말무덤'이라 불리는 고분이다. 북동쪽으로 약 150m 지점에는 옥남초등학교가 있다. 과거에는 고분에서 약 200m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봉분을 계단식으로 깎아 감나무를 심어 놓았으나 원래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다. 봉분의 크기는 장축 20m, 단축 18m, 높이 4m로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주변에 석재가 많이 흩어져 있어 석실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포 옥암동 초당산 고분은 삼국 시대에 해당되는 고분이다. 목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이 고분은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입지상 영산강 하류 즉 전남 내륙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해상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의 주변에서 수습 유물이나 유구를 확인할 수 없어 고분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서남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해로상에서 당시의 활발한 대외 교류와 관련된 고분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과 연관 있는 고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4 옥암동 초산당 고분 전경



제3절 수군진 유적

1. 목포진지(木浦鎭址)

- 소재지: 만호동 1-56 목포진역사공원
-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7호(1986. 11. 08.)

목포진(木浦鎭)은 목포에 설치되었던 조선 시대 수군의 진영이다. 책임자로 ‘만호(萬戶)’라는 관직이 배치되어 일명 ‘만호진’이라 부르기도 한다. 목포진이 처음 설치된 시기는 1439년(세종 21)이다. 『세종실록』에 “이 일대가 왜적이 드나드는 요해지(要害地)임으로 병선을 설치하고 만호를 임명하여 보내라.”는 기록이 있다. 지리상으로 볼 때 목포는 영산강 하구에 해당되며,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다. 특히 호남과 경상남부 지역으로 통하는 ‘세곡 운반로’의 길목이라는 중요성이 있어 그 곳을 침략하는 왜적을 경계하기 위해 목포진의 설치가 지시되었다.

목포진 설치 초기에 만호는 병선을 이끌고 바다 위를 왕래하며 방어와 수색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수군진에는 군량과 군기를 쌓아두었다. 이후 현실적으로 선상 방어만으로 해상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당 지역에 성을 축조하는데, 목포진에 성이 완성된 것은 1501년(연산군 7)의 일이다.

목포진에 대한 기록은 1702년에 발생한 큰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어서 정확한 변천 상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기타 자료로 추정해볼 때 성의 둘레는 약 400m 정도이고, 성벽의 높이는 2m가 조금 넘었다. 목포진의 형태와 구조는 1872년 제작된 ‘무안현목포진지도’를 통해 확인된다. 출구가 동서남북 사방에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객사와 관아 건물을 비롯해서 성안에 감옥과 우물이 있었다. 운영을 위해 책임자인 만호(무관 종6품) 1인 외에 군관(軍官) 6인, 진무(鎭撫) 7인, 사부(射夫) 2인, 사령(使令) 5인의 관원이 있었다. 만호는 인근 지역의 해상 경계 경비 등 병



그림 5 「무안목포진지도」(1872년)



그림 6 2015년 1월 목포진 역사공원 개관 당시 모습



그림 7 목포진 객사

사 업무의 수행 이외에 진영 소재지 인근 마을의 일반 행정까지도 관할하였다. 목포진은 1895년 7월 16일 칙령 제141호로 폐진 되었다.

목포진은 한반도 서남해 방어지이자 개항이전 목포 역사를 실증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옛 흔적은 사라졌으나 2014년 객사 건물이 복원되었고, 2015년 1월부터 ‘목포진역사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유달산 봉수

- 소재지: 유달산 정상부 일등봉(추정)
- 시 대: 조선시대

‘봉수(烽燧)’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높은 지역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써 변방의 지역 정세를 중앙에 급히 전달하는 군사 통신 조직을 말한다. 흔히 왜적이 침입하거나 하는 경우 봉화를 올려 한양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목포에도 예부터 유달산 정상 부근에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유달봉수에 대한 기록을 문헌자료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세종대왕 때부터이다. 『세종실록지리지』 「무안조」에 “무안현에는 봉화가 둘 있는데 하나는 유달봉화로 현의 남쪽에 있으며 남으로는 해남 황원봉화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나주 군산봉화와 연결된다.”라 기록되어 있다. 유달산 봉수는 ‘황원봉화→유달봉화→군산봉화→고림산봉화’로 연결되는 봉수로에 속하고 있었다. 『호남 봉대장졸총록』에 따르면 무안유달산봉수는 별장 6인, 군 25명, 보인 48명 등 대략 100여 명의 군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현재 유달산 내에서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는 비정되지

못했다. 다만 가장 높고, 주변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일등봉 정상부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72년에 만들어진 「무안현목포진지도」에도 유달산 정상부에 봉수가 표시되어 있다.

3. 고하도진성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高下島李忠武公遺蹟)

- 소재지: 고하도 달동 산 230 일대
-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10호(1974.09.24.)

고하도는 1597년 이순신이 울돌목(명량)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 해 10월 29일 고하도에 진을 설치하고 이듬해 2월 17일 진을 옮길 때 까지 머물렀던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이 고하도진은 조선 수군 병력과 각도 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가 주둔하는 수군사령부 역할을 했다. 고하도진에서 이순신은 손실된 조선 수군의 전력을 보강하여 재건하는 데 노력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병선을 건조하고, 군량을 조달하여 무기를 제조하는 일들을 통해 수군을 재건했다. 당시 사용했던 성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1974년 문화재 지정 당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으로 명명되었다. 흔히 ‘고하도진성(高下島鎭城)’으로 부르고 있다.

진성은 전체 길이 약 1,225m 가운데 1,105m 가량만 성벽을 쌓았고, 나머지는 성벽을 축조하지 않거나 바위 등을 성벽으로 이용했다. 큰덕골저수지의 제방 구간을 제외한 골짜기와 60~80m 정도의 그리 높지 않은 큰 산-칼바위-말바위로 이어지는 능선을 이용하여 포곡식(包谷式)으로 산성(山城)을 쌓았다. 고하도진성은 기본적으로 큰덕골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산성 형태의 수군진성으로서, 일반적인 수군진성(水軍鎭城)의 입지 구조와는 다른 특이한 성곽 양식을 보여준다.

고하도진성 대부분의 성벽은 경사가 급한 바깥쪽 사면을 이용하여 바깥쪽에만 돌로 쌓은 방식인



그림 8 고하도에 현존하고 있는 성벽 모습

내탁식(內托式)으로 축조하고 있는 반면에, 큰덕골저수지 동쪽 부분에서 큰 산 정상까지의 남벽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 돌로 쌓는 방식인 협축식(夾築式)으로 축조하고 있어 지형 조건에 따라 축조 기법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고하도진성의 경우는 지대석이 없고, 위쪽과 아래쪽 성돌 간의 크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조선 시대의 성곽의 양상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바다와 접하고 있는 서쪽 만입부의 큰덕골저수지 제방 부분은 일부러 성벽을 쌓지 않고 병선의 출입과 정박 및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선소(船所)를 배치하였다. 건물지로는 큰덕골저수지 주변에 건물의 기단과 담장이 확인되고 있다.

4.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高下島李忠武公紀念碑)

- 소재지: 목포시 고하도길 175(달동)
- 시 대: 조선시대(1722년)
- 지 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1974. 09. 24.)

이충무공기념비는 고하도 선착장에서 30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세워져 있으며, 고하도 주민들이 ‘당산’이라 부르는 지역의 동산 위에 자리하고 있다. 산록 초입에 홍살문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삼문(三門)을 들어서면 그 안에 모충각(慕忠閣)이 있다. 모충각은 광복 이후 시민들의 모금으로 지어졌



그림 9 고하도 모충각 전경

고, 현 건물은 1963년 11월에 중수(重修) 한 것이다. 모충각 내부에 ‘고하도이충무공기념비’가 있다. 1722년 이순신의 5세손인 이봉상(李鳳祥)이 건립한 것이다. 비문에는 정유재란 때 이순신의 고하도 행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전진 기지로 고하도를 선정하게 된 과정, 고하도진이 1647년에 당곶진으로 이동한 사실, 고하도진이 폐진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통제사 오중주(吳重周)가 유허비 건립을 주도한 사실, 전쟁 때 군량미 비축의 중요성 등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비문은 17행 48자로, 남구만이 찬(撰)하고, 조태구의 글씨를 이광좌가 새긴 것이다. 비의 규모는 높이 227cm, 너비 112cm, 두께 36cm이다. 비의 이수부분에 용이 승천하는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모충각 내부에 후세 사람들에 의해 제작된 42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대부분 추모시이며, 추모사와 비 내력, 모충각 중수기가 있다. 이 현판은 대부분 1960년대에 조성된 것이다. 특히 1960년에 전 무안교육감이 작성한 현판에 유허비와 유허비각의 건립 연혁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1963년 전 목포시장 송석용이 작성한 ‘고하도 이충무공 비각 중수기’에는 이충무공의 업적과 비각중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목포문화원에서 발간한 『목포 근현대 표상』(2011)에 수록된 국역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이충무공기념비

· 비문 내용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고(故)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증(贈) 좌의정(左議政) 충무(忠武) 이공(李公) 유허기사지비(遺墟記事之碑)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치사(致仕)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이 글을 짓다.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제사(議政府領議政兼弘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弟師) 조태구(趙泰喬)가 글씨를 쓰다.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 겸 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세제좌부빈객(兵曹判書兼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弟左副賓客) 이광자(李光佐)가 새기다.

옛날 선조 정유년에 통제사 이충무공이 병란을 맞이하여 병사들과 함께 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량미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군량미를 비축할 수 있고 전선을 정비할 만한 곳을 찾던 중 얻은 것이 나주 고하도이다. 곳곳의 전진(戰陣)에 남은 곡식을 이곳에 쌓게 한 다음 군사를 모집하여 둔(屯)에 들게 하고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이 섬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길목에 위치하여 오른편으로 영남에 연하고, 왼편으로 서울로 연결된다. 가깝게는 군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 승리를 기약함이요. 멀리는 행재소(行在所, 선조의 피난처)에 곡식을 제공하는데 궁색하지 않음이라. 이러한 국가를 위하는 지략과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영이 이진(移鎭)되어 그 행적이 무너지고 그 규모가 축소되어 비록 별장이라고는 하나 옛날의 명칭에 불과하다. 군사와 백성이 이미 흩어지고, 근년에 진영(鎭營)이 당곳(唐串)으로 이진(移建)하니, 호령하던 관세는 없어졌다. 재물과 곡식의 비축이 줄어들어 여기 남아 있는 백성들은 분개하고 탄식함이 오래되었다. 통제사 오중주(吳重周)가 군사와 백성의 뜻을 비석에 새겨 진(鎭)터에 세우고 충무공의 옛 제도를 되살리려고 하였다. 겨우 비석을 다듬었을 뿐인데, 임기가 끝나 돌아가니, 군사와 백성들의 애석한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 공사(工事)의 남은 재물로 능히 비석을 새기는 비용으로 충당할 만하나, 부족한 것은 이 일을 기록할 글이다. 이 때문에 나를 찾아와 내 옷깃을 잡고 탄식한 까닭이 여기에 있음이라. 충무공의 원대한 경륜이 여기 있도다.

예로부터 위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투에서 승리한 까닭이 섬에서 비축한 식량에 힘입지 아니함이 없었다. 조영평(趙營平)이 금성(金城)의 오랑캐를 물리친 것도 황중(惶中)의 둔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봉천(奉天)에서 주립을 면하게 된 것도 한황(韓滉)이 실어온 곡식에 있었으니, 공이 여기에 진을 설치한 것도 진실로 이 두 가지에 있었음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공이 적과 싸우며 군량이 날로 부족할 때를 당하여 곡식을 모아 군사를 먹이려 했다 함은 누구나 짐작

할 바 이거니와 조정에 바치려는 뜻이었다 함은 얼핏 깨닫지 못할 일이거늘, 지금 그 이유를 궁금해 한다면, 나는 말하리라. 어찌 그렇지 않으랴. 공이 한 일을 보면 계획한 바가 다만 눈 앞의 일 만을 위함이 아니었다.

공이 처음 전라좌수영 절도사가 되었을 적에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쌀 500섬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상감께서 용만(龍灣, 의주)로 옮겨 계시니 만약(箕城, 평양)의 적이 또 서쪽으로 나타난다면 대가(大駕)가 장차 다시 압록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내 말은 직분으로 마땅히 바다로 나가 대가를 보호하여 나라를 회복하도록 도모할 것이요. 만일 불행하게도 임금과 신하가 함께 이 땅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가히 좋다 하였다 하니, 공이 이렇게 말 한 것만 보더라도 공의 충성과 지략이 어찌 군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데만 급급하였으며, 구차하게 직책이나 지키려고 하였겠는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한산도나 고금도 사이에 설치한 지휘소만 돌보면서 둔전을 열고 양식을 쌓아도 족히 급한 때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거늘, 하물며 우수영에서 멀리 떨어지고 서쪽 바다에 치우친 이곳에 서울을 바라보며 진을 설치하였겠는가. 통제사 오중주가 임기가 끝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이 끼친 유풍(遺風)을 다시 일으키고 공의 뜻을 밝히려는 것은 후임으로 부임하는 통제사로 하여금 거듭 이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 지금 이 진의 백성들도 길이 사모할 바를 얻게 함이니, 그 또한 가상한 일이다.

승정 기원(崇禎紀元)후 95년 임인(壬寅) 8월에 오대손 봉상(鳳祥)이 외람되어 자리하고, 통제사가 감독하여 이 비석을 세운다.

5. 수군절도사 신광익 선정비

- 소재지: 만호동 1-56(목포진 객사 내)
-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1호(2012. 05. 21.)

목포진역사공원 객사 내에 만호 방대령 선정비와 나란히 수군절도사 신광익 선정비가 함께 서있다. 비 전면에는 ‘行水軍節度使申侯○○○善政碑(행수군절도사신후○○○선정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癸未 三月(계미 3월)’이라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67cm, 너비 51cm이다. 비문 중 절도사의 이름 부분이 마모되었으나, 『전라우수영지』 등의 기록을 통해 계미년에 신씨(申氏)성을 가진 인물 중 수군절도사로 활동했던 ‘신광익(申光翼)’이 비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하면 비의 건립 시기는 1763년이다. 비의 앞면 오른쪽에 ‘周粟來浦 飢卒回○(주속래포 기졸회○)’ 왼쪽에 ‘仁波隆治 德海不枯(인파옹흡 덕해불고)’라 새겨져 있다. 문맥상 ‘진홍곡을 가지고 목포에 와서 배풀어 굶주린 군졸의 기운을 돌아오게 하사, 어짐이 파도처럼 널리 퍼지니 배풍 덕은 바닷물이 마르지 않듯 오래 오래 잊지 않으리’로 해석된다. 전라우도의 수군절도사가 목포 만호진의 굶주린 군졸을 진홍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비를 건립한 것이다.

한편 이 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수 부분에 장식된 문양이다. 선정비의 머릿돌 부분에는 목포 사람들의 소박함과 추상적인 예술미를 느낄 수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다른 지역의 선정비나 공덕 비에는 용이나 봉황 등의 문양을 매우 화려하게 조각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 비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려 놓은 듯한 추상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유적 속의 문양 하나가 예향 목포 사람들의 조선 시대 미적 감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 현 근대역사관 본관 뒤뜰에 묻혀 있었다. 1950년 건물 중수 때 발견되어 그 앞쪽에 세워 보관하다가 목포진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객사 내로 이전되었다.



그림 11 수군절도사 신광익 선정비

6. 만호 방대령 선정비

- 소재지: 만호동 1-56(목포진 객사 내)
-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2호(2012. 05. 21.)

목포진역사공원 객사 내에 보존되어 있다. 이 비는 조선시대 수군진이었던 목포진(木浦鎭)에 근무하던 만호(萬戶) 방대령(方大寧)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진휼을 베풀어서 그 은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비의 전면에 ‘行萬戶方公大〇〇德賑率善政碑(행만호방공대 〇〇덕진솔선정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乙未年九月(을미년 9월)’이라 새겨져 있다. 온양 방씨 문중 자료를 토대로 이 비의 주인공이 1714년에 목포 만호로 임명된 ‘방대령’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49cm, 너비 50cm이다.

목포에서는 가장 오래된 조선 시대 유적에 해당하는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 현 근대역사관 본관 뒤뜰에 묻혀 있었다. 1950년 건물 중수 때 발견되어 그 앞쪽에 세워 보관하다가 목포진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객사 내로 이전되었다. 목포진 책임자인 만호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적이며, 목포 개항 이전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념비이다.



그림 12 만호 방대령 선정비

제4절 근대 문화 유적

1. 사적

1) 무안감리서 터

- 소재지: 북교동 178-1(구 신안군청)
- 시 대: 개항기

현재 참사랑 요양병원(구 신안군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는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개항장 내에서의 외국 영사관과의 원활한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위해 설치되었다. 당시까지 목포는 무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안감리서'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목포가 개항 되기 직전인 1897년 9월 12일에 무안감리서의 신설이 확정 공포되었으며, 1905년 일본의 을사조약(乙巳條約) 강제 체결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1906년 10월 폐지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무안감리서의 청사는 처음에는 목포진(木浦鎭), 현 만호동 지역에 남아 있던 옛 수군진의 빈 건물을 수리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다가, 1902년 지금의 자리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무안감리서가 폐지된 이후 무안군청, 신안군청 등의 사용되면서 옛 무안감리서 시절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러나 개항 후 목포 최초의 행정 기관이 설치되었던 곳이고, 목포·무안·신안의 행정관청이 이곳을 거쳐 갔다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1903년 일본 낭인들의 무안감리서 습격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으로서 사적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림 13 무안감리서터(일제강점기 모습)



그림 14 신안군청 시절 정면 모습

2) 목포시사(木浦詩社)

- 소재지: 죽교동 330-3
- 지 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21호(1975. 10. 11.)

‘시사(詩社)’는 서로 뜻이 통하는 선비들이 모여서 계절에 따라 자연을 노래하고, 시를 읊었던 풍류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이것이 발전되어 조선 후기 중인층 지식인들의 문학 결사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목포시사는 1920년에 결성된 ‘유산시사(儒山詩社)’에서 출발했다. 유산시사는 1920년 4월 29일에 창립되었다. 무안감리를 지낸 김성규가 주도하였고, 목포 유림인들과 목포와의 왕래가 많았던 진도·강진 지역의 문인들이 참여하였다. 현 건물은 1933년 3월에 낙성되었고, 명칭은 ‘유산정(儒山亭)’이라 하였다. 1961년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시사인 ‘보인시사(輔仁詩社)’와 통합하면서, 명칭을 ‘목포시사’로 변경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목포시사의 건물은 1976년 9월 30일자로 전라남도 기념물 21호로 지정되었으며, 건물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일단으로 다듬은 돌

그림 15 목포시사 유산정의 현재 모습



기단위에 반듯한 기초를 놓고 민흘림의 원형 기둥을 세웠다. 원래의 건물은 좌우로 후면의 중앙이 벽돌로 된 것을 1979년, 1984년 2회에 걸쳐 벽돌을 제거하고 지붕을 보수하였으며, 붕괴 위험이 있어 1995년 완전 해체하여 복원하였다. 목포시사 건물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목포에 세워져 있는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현재 목포시사 건물 내부에는 유산정 상량문, 유산정 중수기 등 목포시사의 연혁과 관련된 글과, 문인들의 작품 등 36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2. 기념물(비갈)

1) 총순 구종명 영세불망비

- 소재지: 죽동 96-2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5호(2012. 05. 21.)

대한제국 시기 목포 조선인 경찰이었던, 총순 구종명을 기념하기 위한 비이다. 구종명(具鍾鳴)은 경무서(警務署) 소속 경찰로 당시 직책이 총순(總巡)이었다. 경무서는 1897년 목포가 개항되고 나서 개항장의 통상 업무와 지방 행정을 위해 설치된 경찰서이다. 총순은 경무서의 책임자였던 경무관 바로 아래의 직급에 해당된다. 구종명은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 측에 자료 제출을 통해 조선인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공을 세웠다. 비의 앞면 가운데에는 ‘總巡具公鍾鳴永世不忘碑’(총순구공종명영세불망비)’라 새겨져 있고 아래쪽 양옆으로 공적 내용이 한자로 적혀있다. 사각형 기둥 형태이며, 높이 160cm, 너비 40cm, 폭 19cm 규모이다. 개항기에서 식민지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세워진 대한제국의 마지막 경찰 관련 유적으로서 희소성이 있다. 또한 개항 이후 목포사회상을 보여주는 유적이기도 하다. 한편 구종명은 이후 일제강점기 군수를 지낸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16 총순 구종명 영세불망비

2) 경상도우회기념회장 암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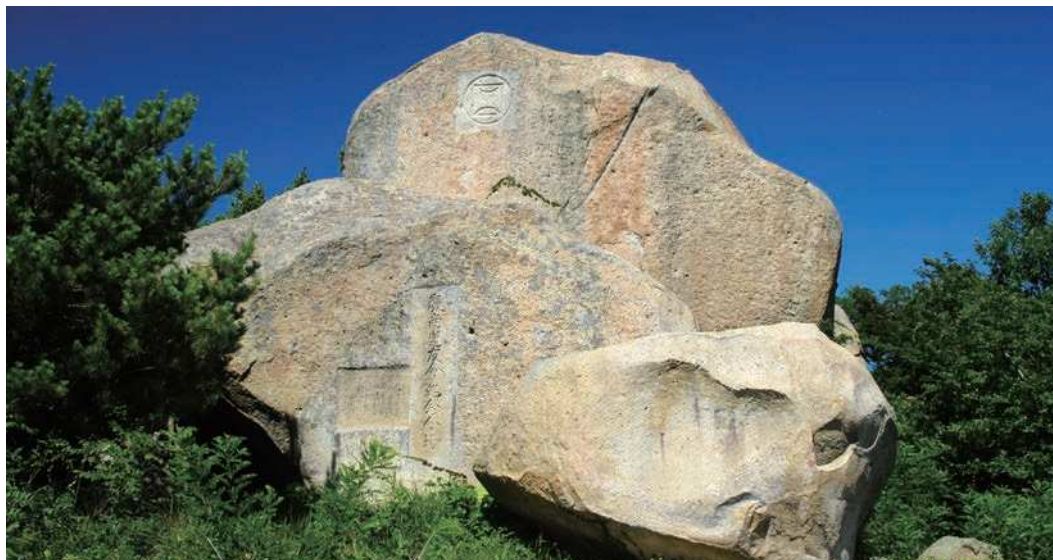
- 소재지: 온금동 뒷편 유달산 등산로 중턱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10호(2012. 05. 21.)

유달산 자락으로 옆으로 길게 뻗은 온금동 마을 뒷산의 가운데쯤 자리하고 있다. 원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장사바위로 불리던 커다란 바위에 글씨를 새겨놓은 것이다. 바위의 정면에 ‘慶尙道友會紀念會場(경상도우회기념회장)’이라 새겨져 있고, 그 왼편에 ‘大正十年六月日(대정16년 6월 일)’이라는 1921년 조성 연대와 함께 주요 임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주요 임원으로 회장 이근창, 부회장 최수봉, 총무 김봉로, 재무 배화옥, 평의원 김영섭임을 알 수 있고, 회장 기증자로 ‘홍양균’, ‘김영수’의 이름이 있다. 1921년에 조성된 이 유적은 당시 목포에서 활동하던 경상도 출신들이 이 일대에서 기념회를 치른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목포는 1897년 통상항으로 문을 연 이후 이미 개항장으로서 전례가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출신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이 바위 암각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유적이다.



그림 17 경상도우회기념회장 암각

그림 18 경상도우회장 기념 암각이 있는 바위



3) 멜라콩 다리 기념비

● 소재지: 호남동 1-1 목포역 담장

● 시 대: 1964년

목포역에서 화물 취급소로 돌아가는 우측 길목의 목포역 담장에 박혀진 채로 남아 있다. 비의 전면에 ‘멜라콩 다리’라고 새겨져 있고, 우측에 ‘목포역 정모 박길수’라는 이름과 좌측에 ‘서기 一九六四年 四月 二十日’이라는 건립일이 새겨져 있다. 멜라콩 다리 기념비는 박길수(朴吉洙, 1928~1989)가 목포역 주변에 세운 다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박길수는 1928년 전남 장흥군에서 박권섭의 3남으로 태어났다. ‘멜



그림 19 목포역 담장 멜라콩 다리 기념비

라콩’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미 장애의 몸을 지녔고 체격까지 작았던 박길수를 주변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이다.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극중 이름인데, 그 배역의 모습과 박길수의 허약한 몸집과 하는 짓이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박길수는 목포역 소화물 취급소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48년을 한결같이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 목포의 명물이자 자랑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도 목포역 안쪽까지 물이 들어왔고, 목포역 옆길은 복개되지 않은 넓고 긴 하천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천 건너편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면 동명동 어물 시장에서 팔고 산 생선들을 머리에 이고 상당히 먼 길을 돌아서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박길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리를 세울 것을 결심한다. 장애인의 몸으로 주변사람들을 하나 둘 설득하고 성금을 모아서 드디어 1964년에 목포역 주변으로 흐르는 하천 위에 다리를 세우는 일에 성공했다. 그 때문에 목포사람들은 그 다리를 ‘멜라콩 다리’라고 불렀다. 가난한 장애자의 힘으로 생각지도 못하던 다리가 놓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 KBS에서는 그의 봉사적인 삶을 기리기 위해 1989년 멜라콩 박길수의 생애를 극화한 「멜라콩을 아시나요?」를 제작하여, 전국에 방영하기도 하였다. 비록 지금은 다리가 사라지고 초라한 비석만이 목포역 담장에 남아 있지만 목포의 도시발달 과정과 목포 시민들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향수가 어린 문화 유적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비석은 하단 일부가 땅속에 묻혀있고, 목포역 담장에 박혀 있어 뒷면은 확인할 수 없다.

4) 이근창 시혜불망비

- 소재지: 용해동 26
- 시 대: 일제강점기

목포제일중학교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들어가는 도로변 우측(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별관 건너편)에 세워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로면장 겸 전남도 평의회 의원과 1936년부터 1945년까지 목포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이근창과 관련된 기념비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 ‘面長兼評議會員李根彰施惠不忘碑(면장겸평의회원이근창시혜불망비)’라 새겨져 있다. 그 좌우로 이근창의 공로를 칭송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公來何暮 均布潤德 修墓當費 設校盡力 無給視務 治道省役 千有餘戶 頌口勒石(공래하모 균포윤덕 수묘당비 설교진력 무급시무 치도성역 천유여호 송구록석)’. 비문의 내용은 ‘공께서 늦게나마 오셔서 고르게 베풀고 덕망이 넘쳤으며 사재를 털어서 인근에 방치된 묘들을 정비하시고 교학 사업에 혼신의 열정을 다 쏟으셨다. 공무에 임하여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도 행정의 다스림에 그 힘이 두루 미치어 먼 민들이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였다. 이에 공적을 칭송하여 비석에 이를 아로 새긴다’이다. 건립연대는 1921년 3월이고, 건립주체는 이로면민이다[大正十年三月 日 二老面中 堅立]. 비의 규모는 높이 155cm, 너비 50cm, 두께 21cm이다. 이근창은 이로면장 재직 시 본인 소유의 토지를 현재의 이로초등학교 부지로 기증하였다.



그림 20 이근창 시혜불망비

5) 정인호 시혜불망비

- 소재지: 울피나루길 11번길 7-4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4호(2012. 05. 21)

온금동 마을 중앙에 있는 ‘큰샘’ 바로 뒤편에 ‘김영수시은불망비’와 나란히 서 있다. 옛 충무동사무소 입구에 있었던 것이 서산초등학교에서 유달산으로 오르는 도로 오른쪽 바위 언덕 위로 옮겨져 오랫동안 있었고, 다시 해당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가뭄으로 온금동 주민들이 식수난에 허덕이자 정인호가 돈을 내어 마을 우물을 파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의 전면에 ‘幼學鄭麟浩施惠不忘碑(유학정인호시혜불망비)’가 새겨져 있고, 그의 공을 칭송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唯公治井 渴水源長 捐千金額 護一里方 旱亭甘雨 陰谷太陽 頌德銘石 芳名遠揚(유공치정 갈수원장 손천금액 호일리방 한정감우 음곡태양 송덕명석 방명원제)’. 다음과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공께서 마을 우물을 관리하였는데, 가뭄이 심해 물이 마르게 되자 천금을 기부하여 일리사방을 보호하니 목마른 마을에 단비요 그늘진 골짜기에 해가 돋는 것과 같다 그 덕을 기려 돌에 새기니 그 이름 먼 후세까지 칭송되리라.’ 건립주체는 ‘木浦府溫錦洞中一同(목포부온금동중일동)’이다. 건립 연대는 1922년 5월[大正十一年 五月 日 建立]이고, 규모는 높이 91cm, 너비 34cm이다. 2012년 ‘온금동 큰샘과 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목포시 문화유산 제4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21 김영수(좌)와 정인호(우)의 시혜불망비

6) 김영수 시혜불망비

- 소재지: 울피나루길 11번길 7-4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4호(2012. 05. 21)

온금동 ‘큰샘’ 바로 뒤편에 ‘정인호시혜불망비’와 나란히 서있다. 원래 옛 충무동사무소 입구에 있었던 것이 서산초등학교에서 유달산으로 오르는 길 오른쪽 바위 언덕 위로 옮겨져 오랫동안 있었으나, 해당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오위장을 지낸 ‘김영수’란 사람이 온금동 주민에게 공훈을 베풀자 이를 기념하여 주민들이 세운 것이다. 비의 전면에는 ‘前五衛將行○長金公英守施惠不忘碑(전오위장행○장김공영수시혜불망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大正十一年五月 日 洞中(대정 11년 5월 일 동중)’이라는 건립 연도가 새겨져 있어 1922년 온금동 일대 마을 주민들이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02cm, 너비 42cm이다. 2012년 ‘온금동 큰샘과 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목포시 문화유산 제4호로 지정되었다.

7) 최여장 송덕비

- 소재지: 죽교동 161-1
- 시 대: 1928년 8월

북교동 성당 정문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난 샛길을 따라 100m 정도 들어가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비의 전면에는 ‘前主事崔公汝章頌德碑(전주사최공여장송덕비)’라 새겨져 있고, 양옆으로 건립 내력을 담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최여장이 값비싼 땅을 저렴하게 우물터로 공급하여 준 것에 대한 당시 100여 호 주민들의 고마움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1928년 건립 연도와 비를 세운 죽교리 주민대표 ‘金京述(김경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 빨간색이 덧입혀진 것이 특색이며, 뒤쪽 년도의 경우는 당초에는 일제강점기 소화연호를 사용해서 새겼으나 후에 단기 연호로 고쳐서 다시 새겨놓은 흔적이 보인다. 비의 규모높이 147cm, 너비 31cm, 폭 14.5cm이다. 목포 원도심인 북교동 사람들의 과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향토유적이다.



그림 22 최여장 송덕비



그림 23 최유권 영세송덕비

8) 최유권 영세송덕비

- 소재지: 충무동 어민동산 건너편 주차장 뒤
- 시 대: 1933년 6월

어민동산 부근의 마을 봉후동에 남아 있다. 어민동산 주차장 뒤편에 해당한다. 봉후동은 유달산 이 등봉의 뒤흘이라고 해서 봉후동이라 불렀는데, 구전에는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최씨가 많은 땅을 개간하고 갯벌을 간척하여 부자로 살면서 이웃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살아서 최 부자 골짜기 또는 최 부자 동네라 하였다.”고 전한다. 그와 관련된 기념비가 남아 있다.

비의 전면엔 ‘崔公有權永世頌德碑(최공유권영세송덕비)’라 새겨져 있고, 양옆에 칭송한 글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恤孤救貧 賑衣貸食 人樂爲業 村賴安息(홀고구빈 진의대금 인락위업 촌뢰안식)’, ‘외로운 사람을 돌보고 가난을 구제하며, 마을이 평안하니, 사람들이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건립연대와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昭和八年癸酉六月 日 洞中代表人 吳子俊(소화 8년 계유 6월 일 동중대표인 오자준).’ 1933년 6월에 세웠고, 마을 대표는 오자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35cm, 너비 45cm, 두께 16cm이다.

9) 윤봉진 청덕불망비

- 소재지: 울도동 56-78
- 시 대: 1946년

목포시 관내에 해당하는 섬 마을 울도에 세워져있다. 비는 울도 선착장에서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의 중간 지점에서 왼편으로 연결된 길의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바로 인근에 1959년 건립된 이복철 훈도비가 있다. 이 비의 전면에는 ‘前章陵參奉海南尹奉珍清德不忘碑(전장릉참봉해남윤봉진청덕불망비)’라 새겨져 있다. 장릉참봉을 지낸 윤봉진이 마을 주민들에게 베푼 공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의 뒷면에 ‘檀紀四千二百七十九年丙戌三月(단기 4279년 병술 3월)’이라는 건립 연대(1946년)와 발기인(發起人) 최성태(崔成泰), 박한호(朴漢浩), 이덕봉(李德奉), 이상봉(李相奉), 간사인(幹事人) 정문환(鄭文煥), 정공민(鄭共璫), 이복근(李福根)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88cm, 너비 35cm, 두께 16cm이다.



그림 24 윤봉진 청덕불망비

10) 이로면 임성시장 기념비

- 소재지: 석현동 1176
- 시 대: 1933년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11호(2012. 05. 21.)



그림 25 이로면 임성시장 기념비

일제강점기 무안군에 속했던 이로면 임성시장의 건립을 기념하여 조성된 기념비이다. 원래 석현동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 옆 삼향천 다리 부근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도로 확장 후 현 위치로 옮겨 세워졌다. 비의 전면 중앙에 ‘二老面任城市場紀念碑(이로면임성시장기념비)’가 새겨져 있고, 그 좌우로 건립 내역이 새겨져 있다. 뒷면 상단에는 ‘기부방명’ 아래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새겨져 있다. 옆면에 건립 연대와 주체가 ‘昭和八年七月十日 務安郡二老面任城市場設置期成會 堅立(소화 8년 7월 10일 무안군 이로면 임성시장설치기성회 건립)’으로 새겨져 있다. 1933년 7월 10일 무안군 이로면 임성시장 설치기성회가 이 비를 세웠다.

11) 위령탑

- 소재지: 부주산
- 시 대: 1973년

1973년 11월 15일 재일교포인 권수용(2003년 작고)씨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의 넋을 위하고자 개인의 사재를 들여 일본에 산재한 유골 240위(탄광 등 징용사망자 71위, 원폭사망자 169위)를 모아 부주산에 안장



그림 26 부주산 위령탑

하고 세운 위령탑이다. 1985년 10월 10일 이곳에 안장된 유골이 모두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의 동산'으로 이장함에 따라 현재는 위령탑만 남아있다.

이곳에 안장되었던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은 일본 사키토 탄광촌 희생자들로 알려져 있다. 사키토 탄광에서는 가혹한 노동과 매질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죽어갔는데, 유해들은 그대로 내버려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근 '신령사' 사찰의 승려가 일부 유골을 수집하여 절에 보관해 오다가, 1973년 한국으로 이송하여 목포 부주산에 위치한 강제 징용 위령탑에 봉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위령탑은 일제강점기 슬픈 역사와 일제의 만행을 증거하는 유적으로서 큰 가치를 지녔다.

12) 목포의 눈물 노래비

- 소재지: 죽교동 산 44(유달산)
- 시 대: 1969년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27호(2016. 07. 28.)

목포 유달산 달선각 아래 바위 자락에 세워져 있다. 1969년 박오주의 기금을 토대로 1935년 발표된 국민가요 「목포의 눈물」과 가수 이난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이난영이 세상을 떠난 지 4



그림 27 목포의 눈물 노래비

년 후에 해당하며, 대중가요비로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을 제공한 박 오주씨는 평생을 목포 시내에서 음반가게를 하면서 살았다. 그는 자신이 목포에서 음반을 팔면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건립을 추진하였다. 노래비의 정면 상단부에 「목포의 눈물」 노래 가사가 새겨져 있고, 하단부에는 “살아있는 보석은 눈물입니다. 남쪽 하늘 아래 꿈과 사랑의 열매를 여기 심습니다. 이난영의 노래가 문일석 가사 손목인 작곡으로 여기 청호의 낮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라는 추모의 글귀가 적어져 있다. 건립 연대는 1969년 6월 10일이고, 규모는 높이 230cm, 너비 120cm이다. 설계는 강동문, 글은 차재석, 글씨는 박정식, 시공은 이현팔이 하였다. 건립 연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가요 「목포의 눈물」이 지닌 가치와 전국 최초 대중가요비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13) 국도 1, 2호선 원점기념비

- 소재지: 대의동 2가 1(유달우체국 화단 왼편)
- 시 대: 일제강점기

목포는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출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 국도 1호선 도로 원표와 기념비이다. 도로 원표는 현 목포시 대의동 유달 우체국 주차장 좌측 화단에 조성



그림 28 국도 1, 2호선 원점기념비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근대적인 도로망이 개설될 당시 목포는 국도 1호선과 2호선의 기점이 된 곳이다. 국도 1호선은 1906년에 착공하여 1911년 개통된 도로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939.1km)이며, 2호선은 부산까지의 도로(353.6km)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로망으로 목포에서 출발한 것이다. 원표는 이를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현 도로 원표는 2000년 9월 18일에 조성된 것이다. 도로 원표의 바로 뒤에는 이곳이 대한민국 근대 도로망의 출발지임을 기념하기 위한 국도 1호선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이 기념비는 사회 활동을 하는 라이온스 클럽에서 기금을 모아 건립한 것으로, 영 호남의 문화 교류 차원에서 추진되어 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식수(수원지 및 우물)

1) 목포 제1수원지

- 소재지: 상동 목포실내체육관 아래
- 시 대: 1911년

현 목포실내체육관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목포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평가되는 제1수원지이다. 1908년 11월 착공하여 1910년 5월 급수를 시작하였다. 1976년 1월 급수가 중단되었고,



그림 29 목포 제1수원지(목포실내체육관 아래)

1981년에 폐쇄되었다. 현재 담수된 형태로 보존되고 있고, 인근에 있는 목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의 해상수련 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수원지는 목포 도시 발달과정의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는 물 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된 유적지로서 일제강점기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하는 목포만의 독특한 역사 현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목포 제2수원지 예비지 및 배수지

- 소재지: 온금동 6-2(구 제일여고 뒤편)
- 시 대: 일제강점기

목포 제2수원지와 관련된 유적은 구 목포 제일여자고등학교 운동장 바로 뒤쪽으로 이어진 유달산 자락에 남아 있다. 제2수원지는 1911년 9월 착공하여 1912년 5월에 완공하였다. 1977년 8월 급수가 중단되었으며, 1985년 함평 대동제(大同堤) 준공으로 폐쇄되었다. 조성 당시 일본인 거주지 구역의 중요한 급수원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 저수지를 ‘옥지[玉の池, 다마노이끼에]’라 불렀다. 저수지와 여과지, 배수지 등의 시설이 만들어 졌다. 현재는 예비지로 사용되었던 곳의 담수 시설물과 예비



그림 30 목포 제2수원지 예비지

지 석축 정면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돌계단이 남아 있다. 예비지로부터 약 150m 아래지역에 제2수원지의 배수지 시설이 남아있다. 출입구 모양의 석조 건물이며, 중앙에 빨간색 철문이 남아 있다. 철문의 위쪽 석판에 ‘龍淵(용연)’이라 새겨져 있고, 좌측에 ‘乙未初秋 石胡(을미초추 석호)’라 새겨져 있다. 이 배수지 시설물은 1955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2수원지의 여러 시설물은 일제 시기에 신사의 신축지로 이 일대가 지정되면서 중요 시설물이 매몰되었다가 광복 후 예비지를 복구하고 여과지와 배수지를 신설하여 다시 이용하였다. 이 때 명칭을 ‘용연’이라 붙인 것으로 보인다.

3) 보광사 짓샘

● 소재지: 죽교동 유달산 보광사 대웅전 내

유달산 보광사 대웅전 내 석조미륵불좌상 아래에 있는 샘이다. 대웅전의 마룻바닥 뒤편을 열면 짓샘의 모습이 드러난다. 약 2~3m 정도 깊이의 소규모의 우물이나 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샘으로 물이 귀한 목포와 유달산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생활유적이다. 이 샘을 지역민들은 ‘짓샘’이라고 하였다. 전라도 말로 ‘지사샘(제사샘)’의 의미로 해석된다. ‘짓샘’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이 일대에서 산신제가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이 샘물은 특히 여성이 산고(産苦)가 들었을 때 효험이 있다고 하여 일제강점기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주민들은 산고가 들면 짓샘에서 물을 길어다 미역국을 끓여 산모에게 먹였고, 또한 산모의 젖이 부족할 경우 옹기 두 개에 끈을 매서 짓샘에 띄우고 젖을 많이 태워 달라고 기원한 다음 그 옹기에 샘물을 채워서 집으로 가져와 조양신에게도 소망하였다 한다.



그림 31 짓샘이 있는 보광사 법당 바닥



그림 32 보광사 짓샘

4) 달성사 옥정(玉井)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 경내

달성사 경내 극락보전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이 우물은 불전에 감로수로 사용하기 위해 1923년에 조성한 것이다. 당시 달성사에 많은 시주를 하고 있던 영암출신 현기봉이 자신의 아들 현준호를 위해 암굴 30척을 굴착하여 완성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목포 사람들에게 ‘옥정(玉井)’이라 알려진 달성사 우물은 ‘부정한 사람이 음수 또는 몸에 사용 급수하면 옥정물이 일시에 없어지고’, ‘극심한 한발에도 수원이 마르지 않고 많이 음수하여도 복통이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온다.



그림 33 달성사 옥정

5) 온금동 큰샘

- 소재지: 올피나루길 11번길 7-4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4호(2012. 05. 21.)

조선내화 공장 뒤편 온금동 마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동네 주민들이 ‘큰 샘’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인호 불망비’, ‘김영수 불망비’와 같은 장소에 있다. 온금동에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면서 중요한 식수원 역할을 한 곳이다. 정인호가 이 우물을 관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목포가 개항된 후 도

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 사항이 식수의 부족이었는데, 이 우물은 당시의 그러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현재는 뚜껑을 덮어놓은 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규모는 가로 150cm, 세로 135cm로 완벽한 우물 ‘정(井)’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34 온금동 큰샘

4. 근대 골목길

1) 만인계터 골목길

- 소재지: 목포시 마인계터로 28, 38, 40번길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28호(2016. 07. 28.)

유달산 아래에 자리 잡은 조선인 마을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골목길이다. 오거리 상권, 일본인 거류지와 소통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목포 원도심 차없는거리 구 목포극장 일대와 죽동을 연결하는 일대에 ‘마인계터로’라는 주소명이 있다. ‘마인계’는 ‘만인계(萬人契)’라는 일종의 복권계에서 유래한 말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포에만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마인계터로는 28번길을 중심으로 목포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 도시 목포의 발달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골목길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죽동 38번길 송영이담에서 쌍새암거리를 지나 마인계터길 38번길에서 마인계터길 28번길로 들어가 마인계터 잔등으로 나오는 골목길이 대표적인이다.

28번길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붉은 벽돌집, 38번길과 40번길은 옛 남농선생의 화실터, 죽동육거리, 개항장의 우체사 터, 마방골 터, 만인계터 등에서는 역사성이 있다. 골목길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남농이 활동했던 골목에서 마인계터 잔등으로 연결되는 28번길을 중심으로 38번길, 40번길이 구성되어 있다.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지는 자동차 도로가 잘 개설된 기획도시였던 반면 조선인 마을은 골목길로 소통되는 자연 발생적 취락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조선인 마을의 근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대표공간이다.



그림 35 만인계터 골목길

2) 보리마당 골목길

- 소재지: 보리마당로 28-7~해안로 127번길 15-2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29호(2016. 07. 28.)

보리마당은 목포 고유의 해안마을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서산동 마을로 연결되는 가파른 골목길은 가장 목포다운 골목길 경관을 지니고 있다. ‘해안로 127번길’과 ‘보리마당로’로 연결되는 오르막길은 목포 해안가 마을 골목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개항 이후 한국인 서민들이 유달산 산기슭 비탈진 언덕에 모여 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동네이다. 길이 좁고 경사도 가파르다. 주택은 목조와 벽돌조가 혼재되어 있고 각 세대의 대지 필지도 작다. 서산동쪽 골목길의 오르막 바로 옆길에는 일제강점기 사쿠라마찌[櫻町] 유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한편 보리마당 위에서는 목포 앞바다와 서산동 마을 경관이 한눈에 조망된다. 최근 목포 인문도시 사업 프로그램 중 이 일대가 서산동 시화 골목으로 활용되면서 현재 골목 곳곳에 목포의 예술인들이 만든 시화가 걸려 있다. 오르막길 계단 왼쪽 면에 시멘트를 발라서 경사면을 조성하여 변경된 부분이



그림 36 보리마당 골목길

일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언덕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뽕비누(일화유지에서 나오는 면실유를 정제하고 생기는 찌꺼기를 가져다가 쌀겨를 섞어서 만든 새까만 비누)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애뜻한 사연이 담겨 있다.

3) 77계단과 송도 골목길

- 소재지: 송도길 20번길, 10번길, 12번길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30호(2016. 07. 28.)

일제강점기 송도신사가 있던 현 동명동 언덕으로 올라가는 곳에 당시의 계단이 남아 있다. 일명 77계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77계단은 일본인들에게는 신사에 오르는 성스러운 계단이었고, 나라를 뺏기고 신사 참배를 강요당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굴욕의 계단으로 인식되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 때는 이곳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의무였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계단은 2007년 3월에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으며, 이때 세운 77계단 기념비가 입구 쪽에 세워져 있다. 광복 후에 일제강점기의 송도신사(松島神社)와 공원이 철거되고

외국(일본, 만주등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터를 잡았다. 6·25전쟁기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복잡한 골목길들이 지금도 미로처럼 남아 있다. 신사를 오르기 위해 조성된 계단도 외형이 변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마을 내의 골목길은 미로같이 형성되어 있고 주택들은 단층 목조 내지는 최근에 시멘트 등으로 보수한 조적조 건물이 대부분이다. 일본 신사가 있었던 서글픈 현장이지만 근대기 목포 사회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37 77계단의 변형 전 모습



그림 38 현재 77계단의 모습

제5절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1. 고하도 조선육지면 발상지비

- 소재지: 고하도 달동 780
- 시 대: 일제강점기(1936년)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6호(2012. 05. 21.)

고하도 원마을의 동구태와 모충각 사이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모충각으로 가는 입구에 조금 못 미치는 지역의 언덕에 해당한다. 비의 앞면에는 ‘朝鮮陸地綿發祥之地(조선육지면발상지)’라 새겨져 있다. 앞면의 하단 좌측에는 ‘朝鮮總督宇垣一成書(조선총독우원일성서)’라 새겨져 있다. 비의 우측면에는 ‘昭和十一年 八月建設(소화십일년팔월건설) 棉花獎勵三十年紀念會(면화장려삼십년기념회)’라 기록되어 있다. 비의 뒷면에는 “명치(明治) 37년(1904)에 목포주재 대일본제국 영사 와카마츠 도사부로(若松兎三郎) 씨가 이곳에 처음으로 육지면 재배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비의 조성 년대는 1936년이며, 규모는 높이 187cm, 너비 62cm, 두께 33cm이다. 비문의 정면 글씨는 당시 6대 조선총독이었던 우가키 카즈시게(督宇垣一, 1868~1956)가 쓴 것이다. 비의 뒷면 조성 내력 부분의 글씨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쪼아 내어 훼손시킨 흔적이 남아 있다. 시험 재배는 1904년이지만, 통감부 권업모범장이 설치되어 목화 재배 사업이 본격화 된 것은 1906년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30주년을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지면의 최초 시험 재배 내력은 다음과 같다. 1902년 일본의 목포영사로 부임한 와카마츠 도사부로(若松兎三郎)는 미국의 육지면이 한국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1904년 고하도에 처음으로 미국산 육지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1930년에 발간된 『목포사적』에 따르면 ‘최초의 시작지는 고하도 주민 김치민이라는 사람의 밭 2두였다. 이순신 유허비로부터 좀 떨어진 서쪽에 있는 갈고 남은 밭’이 있었다. 고하도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현재 비가 건립되어 있는 장소가 최초 시험재배를 했던 곳이라고 한다.

고하도의 육지면 재배 성공은 목포항이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897년 목포는 호남의 곡창 지대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는 전초 기지로서 주목되었으나, 2년 뒤 군산이 개항되면서 그 역할의 비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키고, 목포항이 일제강점기 서남권을 대표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고하도 육지면 시험 재배 성공이 있다. 반면 육지면의 재배는 전형적인 식민지 지배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식민지 조선을 일본 산

업화에 필요한 원료 공급지로 육성한 것이다. 일제는 조선을 방적업 발달을 위한 원면의 공급지로 만들고, 면화 수입을 위해 유출되는 외화를 줄여 해외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보통 면화 생산지는 기후풍토, 저렴한 토착 노동력, 신속한 운송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남부 지방이 중부 지방보다 면화 재배와 면화 생산에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권업모범장이 남부 지방 특히 전남의 섬 일대에 집중 설치되었다. 생산지가 섬과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포는 자연스럽게 면화의 항구로 발달했다. 고하도에 현존하는 조선육지면 발상지비는 목포가 일제강점기 ‘면화의 항구’로 번성하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유물이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탈의 현상이기도 하다.



그림 39 '고하도 조선육지면 발상지' 기념비 전면(좌)과 후면(우)

2. 이훈동 정원

- 소재지: 유달동 4-1
- 시 대: 일제강점기
- 지 정: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5호(1988. 03. 16.)

유달산 남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에 목포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우찌다니 만페이[内谷萬平]가 조성한 것이다. 광복 후 해군헌병대에서 관리하다가 해남 출신 국회의원 박기배의 소유물

이 되었다고, 1950년대에 이르러 목포 향토기업인 조선내화 이훈동 회장의 소유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라남도 문화재 등록 당시 면적이 1,365평(4,512㎡)이었으나, 그 후 대지를 확장하여 지금은 실제 평수가 더 늘었다. 일제강점기 목포에 조성되었던 저택과 정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저택의 경우 내부는 한국적 거실과 서양식 응접실로 개조되었지만 외형은 일본식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정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보수를 거듭하여 현재 입구 부분과 앞뜰 부분이 변형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경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원은 입구정원, 앞뜰정원, 임천정원,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원은 호남 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나무의 종류도 113여 종에 이르기 때문에 난대지방 식물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400여 그루의 관수목을 비롯하여 흑사리나무와 씨앗이 떨어져 자연적으로 성장했다고 전해오는 암수 향나무 등 희귀종의 수종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정원 안에는 다양한 일본식 석등과 한국식 석탑들도 조경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식 다원정(茶園庭)의 필수 요소인 ‘연못 분수’도 배치되어 있다.



그림 40 이훈동 정원 내부



그림 41 이훈동 정원 조경 모습

3. 오포대

- 소재지: 유달산 내 대학루 옆
- 시 대: 일제강점기
- 지 정: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38호(1987. 01. 15.)

오포대는 유달산 등산로 정자 중 가장 아래 부분에 세워진 대학루 옆에 자리하고 있다. 오포는 ‘정 오포’의 준말로써, 시민들에게 정오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1909년 4월 1일에 옛 측후소(일명 천기산) 동산에 설치되었다. 당시 목포부청 직원이 정오가 되면 오포를 터트렸다. 오포가 설치되었던 시



그림 42 오포대 현재 모습(대학루 앞)

기에 목포에서는 점심 때면 “오포뒀다 밥 먹으로 가자.”하는 노동자들의 소리와 “오포뒀어 밥줘.”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유행했으며, 시간을 알려면 “오포뒀냐?”라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나중에 오포가 사이렌소리에 그 기능을 넘겼는데도 여전히 “오포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조선식 선입포가 설치되었다가 1913년에 일본식 대포를 새로 배치하였다. 신·구형 모두 일제강점기 후반에 공출되었고, 오포의 기능은 사이렌이 대신하게 되었다. 현재의 오포는 1988년 목포에 향협회의회의 주관하에 현충사에 있는 천자총통(1609년 제작)과 후대의 차륜식포가를 모방하여 복원한 것이다. 복원된 오포의 규모는 길이 136.5cm, 무게 420kg, 전단구경 120mm, 외경 240mm이다.

4. 목포 감화원 터

- 소재지: 고하도 유달동 262
- 시 대: 일제강점기

감화원(感化院)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소년 범죄자들의 교육을 위한 갱생 시설이다. ‘국립목포학원’으로 불렸다. 고하도 감화원은 국내 두 번째로 인가되어 1938년에 신축 개원하였다. 최근까지 사용된 공생재활원의 일부 시설들이 감화원 부지였으며, 위치상 고하도 용머리 서쪽해안의 목포대교 아래 부분에 해당한다. 감화원 전용 부두로 조성된 부두 시설의 흔적이 있고, 부두 입구에 ‘國立木浦學院(국립목포학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돌기둥이 남아있다. 감화원의 교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것

이다. 교문 바로 안쪽에는 석조저수탱크로 추정되는 건물 1동이 남아 있다. 건물지의 내부에는 공생재활원 건물 우측 뒤편에 일제강점기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폐건물이 남아 있고, 감화원 터 입구 쪽과 마당 쪽에 당시부터 사용했다고 알려지는 우물 2기가 현존한다. 고하도 감화원의 초기 규모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9년 6월 13일자 기사에 상세히 실려 있다. 감화원의 규모는 5만 4천 평, 건물은 4백 평에 교실, 작업장, 기숙사 등을 갖췄다. 아이들은 8세에서 16세까지로 구성되었다. 개원 당시에 수용 인원이 33명인데, 직원이 18명이나 배치 된 것이 독특하다. 명목상은 갱생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67년에 공식 폐지되었다. 이후 그 부지에 공생재활원의 일부 시설이 자리하게 되어 2016년까지 이용되었다.



그림 43 목포 감화원 터

5. 유달초등학교 한국호랑이 박제

- 소재지: 유달동 8
- 시 대: 1908년

유달초등학교 본관 복도에 한국산 호랑이 박제가 보존되어 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호랑이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 이 한국호랑이는 1908년 영광군



그림 44 유달초등학교 호랑이 박제

불갑산 기슭에서 한 농부가 사로잡은 것으로 생존지역과 연대가 확실하게 기록된 남한 최후의 호랑이다. 이 호랑이는 몸무게 180kg, 가슴에서 엉덩이까지가 160cm, 앞 발 뒤꿈치에서 머리까지 95cm의 당당한 체구와 황갈색 바탕의 털에 왕(王)자 무늬가 선명한 전형적인 한국호랑이의 특징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 불갑산에서 생포 뒤 당시 논 50마지기 값(200원)에 일본인 하라구치가 사들여 동경 시마즈 제작소에서 표본 박제한 후 당시 일본인들이 다니던 유달초등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6. 목포형무소 합장비

- 소재지: 산정동 산58-2 일원
- 시 대: 일제강점기

산정동 중앙하이츠 후문 위쪽에서 창조교회 뒤편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독산’으로 불리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목포형무소(일제강점기 목포교도소의 명칭)의 수감자들이 돌을 캐서 석재를 생산하던 채석장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돌을 흔히 ‘형무소 돌’이라고 하였다. 독산의 서쪽에 목포형무소 시절 합장비가 남아있다. 비의 전면에 ‘합장비(合葬碑)’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합장연월(合葬年月)’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1. 대정 6년 9월 24일(一, 大正 六年 九月 二十四日).
2. 동 9년 9월 24일(二, 同 九年 九月 二十四日).
3. 소화 2년 3월 10일(三, 昭和 二年 三月 十日).
4. 동 8년 4월 30일(四, 同 八年 四月 三十日).

이를 통해 네 차례의 합장한 시기가 1917년 1920년 1927년 1933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장비 주변에는 묘의 번호를 새겨 놓은 작은 비가 곳곳에 널려 있다. 비 하나하나에는 ‘제35총(第三五塚)’과 같은 형태로 무덤의 번호가 새겨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사망

한 사람들을 화장하여 합장한 흔적이다. 목포교도소가 무안군 일로읍으로 이전해(1989년 11월 26일) 간 이후 옛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합장비의 규모는 높이 105cm, 너비 48cm이다. 아래에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축대가 남아 있다. 가장 상층에 합장비가 있고, 올라가는 길 좌우로 번호가 새겨진 묘비가 좌우 3개씩 세워져 있다. 현재 확인되는 묘비 번호는 10층이 가장 빠르고, 35층까지 있다. 19개가 산재되어 있다.



그림 45 목포형무소 합장비

7. 구 목포부청 방공호

- 소재지: 대의동 2-1 외
- 시 대: 일제강점기
- 지 정: 등록문화재 제588호(2014. 04. 29.)



그림 46 구 목포부청 방공호

방공호(防空壕)는 항공 폭격 등에 대비에 만든 인공동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중요 요지마다 방공호를 만들어 대비하였다. 목포에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구 일본 영사관 건물 뒤편에 있는 방공호이다. 목포부청으로 사용되던 1940년대 중반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공호를 만드는 작업에는 주로 징병된 한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이 방공호는 유달산 노적봉의 뒷자락을 뚫어서 만들었으며, 가운데 출입구 외에도 좌우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 동굴 내부에 해당하는 전체길이는 약 72m정도이며, 중앙통로가 49m 왼쪽이 22m, 오른쪽 통로가 10.8m정도이다. 높이는 2m이고, 폭은 넓은 곳이 3m 30cm가량이다. 2014년 목포부청 시절 건축된 서고와 함께 등록 문화재(지정명칭: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가 되었다.

8. 고하도 방공호 I

- 소재지: 유달동 195-22(고하도)
- 시 대: 일제강점기(1940년대 중엽)

고하도 뒷도랑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도교회 건물 뒤편에 조성되어 있다. 방공호는 전쟁 때 공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인공 석굴로 일제강점기 때 징병된 한국인을 동원하여 만들어졌다.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2008년에 조사 보고한 『일제 시기 조선 내 군사 시설 조사』에 수록되어 있는 구술 자료에 의하면 전남 서남해안 군사 시설 구축에 강제동원된 군인들이 이러한 고하도의 방공호를 조성하는데 투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목포에 주둔했던 일본군 병력 가운데 제409특설경비공병대 및 육상근무182중대의 경우 고하도 및 신안 여러 섬들로 파견되어 굴 도착 작업에 직접 혹은 간접 투입되었다. 고하도교회 뒤편 방공호의 규모는 높이 352cm 내외, 넓이 250cm 내외, 길이 약 51m이다. 방공호는 자연 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서쪽에 위치한 방공호Ⅱ와 약 200m정도 떨어져 있다. 이 방공호는 산을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반대쪽은 인근 도로 공사 과정에서 매몰되어 현재는 막혀있다. 들어가는 입구는 통로가 작고 내부로 들어가면 훨씬 넓어지는 형태이다. 진입로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작게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방공호를 기도터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내부에 불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별다른 용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목포권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조성 방공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그림 47 고하도 방공호 I 의 입구(좌)와 내부(우) 모습

9. 고하도 방공호 II

- 소재지: 유달동 195-21(고하도)
- 시 대: 일제강점기(1940년대 중엽)

고하도 뒷도랑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구 그리스도교회 기도원 전면부 뒤편에 조성되어 있다. 현재 기도원이 사용되지 않고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입구가 1m이내의 높이로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진입해야 할 정도로 입구 부분을 작게 조성하여 동굴의 위치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입구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있다. 입구에서 10m정도 들어가서 우측으로 급회전하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규모는 높이 340cm 내외, 넓이 220cm 내외, 길이 약 17m 이다. 이 방공호 역시 자연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동쪽에 위치한 방공호 I 과 약 200m정도 떨어져 있다. 군수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이자 공중 폭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고하도 방공호 II 의 입구(좌)와 내부(우) 모습

10. 고하도 군사용 해안동굴 1~14

- 소재지: 달동 산 210-1 외 고하도 해안가 일원
- 시 대: 1940년대 중반

고하도 해안가에는 일제 말엽 군사 작전용으로 조성한 인공 동굴이 남아있다. 현재 총 14곳의 위치가 확인된다. 그 중 11곳은 원형대로 현존하고, 3곳은 상부가 무너져 내려 입구가 막힌 상태이다. 그 외 1곳은 목포대교 건설로 인해 흔적이 사라졌다. 군사용 해안 동굴의 위치는 주로 세 곳에 밀집해 있다. 영산강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고하도 선착장 인근 해안 주변에 9곳이 있고, 나머지 5곳은 용머리 서쪽의 해안가에서 공생재활원 부지 일대에 6곳이 있다.

대부분 ‘ㄱ’자형 형태로 일본 해군의 특공정을 감출 수 있는 위장 시설(병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규모는 전체적으로 폭 5m, 높이 3m 내외이고, 길이는 동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가장 긴 곳이 18m, 짧은 곳이 6m 80cm 정도이다.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고하도 군사용 해안 동굴은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 말기 일본의 군사 작전 지역으로 전남 서해안 일대가 활용되었다. 목포의 고하도, 신안의 자은도와 비금도, 해남의 어불도 일대가 일본에 의해 일본 해군 진지와 군사 시설이 구축되었다. 일제가 전남 서남해안 일대를 전쟁 말기 거점 지역으로 조성한 이유는 필리핀전선과 태평양전선의 연합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하는 길목에 제주와 함께 전남 서남해안 일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하도 해안 주변에는 소규모의 갑과 만이 발달해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이런 지리적 특징에 의해 일제 말기 군사 시설이 들어섰고, 일본군의 서해 항로의 군사 요충지 거점 방어와 연합군 군함 등에 대한 자살특공정을 매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2008년에 조사 보고한 『일제 시기 조선 내 군사 시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전남 서남해안 군사 시설 구축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군인들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체계적인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나 여수의 큰 학교에 집합되어 7~10일정도 대기하다가 곧바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들은 일제 말기 일본이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서남해안을 군사 요충지로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패망 직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시 상황을 상징하는 유적이다. 또한 한국인을 강제 징용하여 군사 시설 구축에 동원한 구체적 실증 유물로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림 49 고하도 군사용 해안동굴

11. 송도신사 터

- 소재지: 송도길 10(동명동 언덕)
- 시 대: 일제강점기

동명동 언덕은 1911년 일본인들이 목포에 조성한 대표적인 신사(神社)인 송도신사와 송도공원이 있던 곳이다. 송도신사는 한일병합 후 일본인들이 그들의 거점 도시 중 하나인 목포에 성대한 규모를 갖추고 조성한 신사로 1911년에 건립된 것이다. 송도는 원래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송도(松島)라고 불리던 작은 섬이었다. 표주박 모양의 작은 섬으로 주변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1910년부터 일본인들이 이곳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뱃나무를 심은 뒤 정상부에 송도신사(松島神社)를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강제 신사 참배를 하게 했던 곳이다. 신사와 공원이 만들어 진 후 점차 주변이 매립되면서 현재는 육지가 되었고, 신사가 있었던 곳에는 현재 민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광복과 동시에 신사



그림 50 송도신사 옛 석조기둥 흔적

와 관련된 유적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건물 1동(종무소)과 계단, 돌기둥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신사 관련 건물 1동은 광복 후 고 최마룡(일명 최병인, 당시 북교성결교회 집사)이 인수하여 교회 건물로 사용하였다. 현 상락교회 전신에 해당하며, 당시에는 동명동 교회로 불렸다.



그림 51 일제강점기 송도신사 풍경



그림 52 송도신사 터 일본식 건물

12. 도하신사 위패

- 소재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아래
- 시 대: 일제강점기

유달산 마당바위의 우측 아래에 남아 있다. 바위 면에 위패모양이 조각되어 있고, 가운데 8자의 글씨가 ‘墨一祭〇〇大明神(묵일제〇〇대명신)’ 새겨져 있다. 그 아래에 ‘昭和 六年 二月初(소화 6년 2월 초)’라는 건립시기가 새겨져 있어 1931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주변에는 이 위패를 시주한 사람의 출신 지역과 이름이 적혀있다. 윗부분 조각상이 파손되어 있고, 가운데 글씨 부분에는 훼손되어 있다. 도하신사(稻荷神祀)는 곡식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신 것이며, 여우를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로 알려져 있다.



그림 53 도하신사 위패

13. 유달산신사 위패 암각

- 소재지: 유달산 일등봉 아래(부동명왕상 우측)
- 시 대: 일제강점기

유달산 일등봉 경사면 홍법대사상과 부동명왕상 사이 ‘儒達山神(유달산신)’이라는 글자가 암각되어 있다. 일본인들이 1931년 무렵 유달산 일등봉 아래에 설치한 도하신사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儒達山神社(유달산신사)’ 다섯 글자였는데 마지막 ‘사(社)’자가 지워진 채로 남아 있다. 광복 후 한국인들에게 의해 마지막 글자가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1932년에 발간된 『목포사진첩』에 실린 사진에도 마지막 글자가 지워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유는 알 수 없으나, 광복 이전에 지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 유달산신사 위패 암각

제6절 종교 유적

1. 석탑

1) 북교초등학교 5층석탑

- 소재지: 수문로 83
- 지 정: 목포시 문화유산 13호(2012. 5. 21.)

목포북교초등학교 본관 건물 뒤편 교정 내에 자리하고 있다. 목포북교초등학교는 1897년 무안읍 향교 양사재를 토대로 ‘무안공립소학교’로 창설 개교했고, 1901년에 목포의 현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본관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5층 석탑은 조성 연대와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교의 역사 이상으로 오래된 문화 유적으로 보인다. 현재 석탑은 기단부인 상·하지대석, 4층의 옥개석, 상륜부의 노반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기단부와 탑신, 그리고 상륜부가 균형이 없으며, 여기저기 시멘트로 접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흩어져 있던 탑재를 비례에 맞추어 조립해 놓은 듯하다. 석재는 지대석 일부가 탑신과 약간 차이가 있다. 기단부는 하대저석이 2개의 돌로 되어 있고, 길이는 가로 136cm, 두께는 15cm이다. 하대저석 위에 하대갑석과 하대중석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형태만 양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대갑석의 크기는 107cm, 두께는 23cm이며, 하대중석에는 우주(隅柱, 모퉁이 기둥) 2개와 탕주(撐柱, 버팀목)가 양각되어 있다.



그림 55 북교5층석탑

2) 이훈동 정원 석탑

● 소재지: 유달동 4-1

이훈동 정원 내 출입구 우측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 석탑의 조성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구전에는 무안군의 어느 암자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온다. 외형상 3층 석탑이다. 원래 석탑의 소재는 기단부와 1층 탑신, 1층 옥개석이 해당되고, 나머지 2층과 3층 탑신과 상륜부는 다른 자재를 혼합하여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 석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는 두 개의 갑석(상대갑석과 하대갑석)과 갑석부연(甲石副椽), 2개의 우주(隅柱)가 장식되어 있다. 석탑의 규모는 지대석의 너비 210cm, 두께 152cm, 기단부는 넓이 173cm, 두께 15cm, 1층 탑신은 너비 65cm, 두께 60cm이다.



그림 56 이훈동정원석탑

2. 불상

1)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반가상(地藏菩薩半跏象)

● 소재지: 유달로 173(달성사 명부전)

● 지 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9호(2000. 12. 13.)

유달산 달성사 명부전 안에 본존으로 모셔져 있으며, 반가의 좌형을 취한 목조 지장보살상 좌우에 시왕과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시왕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 및 중수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 기록을 통해 1565년(명종 20)에 전라도 나주 운흥사에서 조성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1950년대 6·25의 혼란기에 운흥사에서 현 위치로 옮겨왔다고 한다. 달성사의 지장보살상은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 졌으며, 우측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좌측 다리만 가부좌를 한 반가 상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고려 말로 추정되는 광양 중흥사 석조지장보살상과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 중 우측 지장보살 등의 몇몇 예에서만 볼 수 있는 드문 경우이다. 지장보살상의 실측크기는 총 높이 141cm, 좌상고 110cm, 두고 23cm이다.

달성사의 목조지장보살상과 목조시왕권속상 등은 각부의 조각이 세련되고 단아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조성 연대가 뚜렷하게 전해 오고 있음이 주목된다. 목조로 된 지장보살로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예를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조선 시대 전기의 조각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목불이라 할 수 있고, 더욱이 10명의 시왕상과 판관, 사자상이 모두 일괄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현재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29호 지정되었다.



그림 57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반가상

2)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

- 소재지: 유달로 173(달성사 극락보전)
- 지 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8호(2000. 12. 13.)



그림 58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

유달산 달성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중앙에 아미타여래좌상을 모시고 그 좌우에 관음보살좌상(觀音菩薩坐像)과 대세지보살좌상(大勢至菩薩坐像)을 배치한 삼존불(三尊像)이다. 대세지보살의 복장에서 1958년 개금불사와 이 삼존불에 대한 이동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된 기문(記文)이 발견되었다. 이 복장기에 의해 1678년(숙종 4)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삼존불은 고려 시대 후반 백련결사를 일으켰던 만덕사 백련사에서 조성된 것이며, 개금불사기문에 따르면 1946년 백련사에서 완도군 고금면 옥천사(玉泉寺)로 옮겨갔다가 그 뒤 당시 달성사 주지 상봉스님의 발원에 의해 옥천사에서 옮겨온 뒤 1958년에 개금불사를 마치고 현 위치에 봉안한 것이다.

이 삼존불은 목조로 조성되었으며,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결가부좌하고 동체가 단정하다. 본존불의 실측 크기는 총 높이 124cm, 두고 43cm, 어깨폭 57cm이다. 달성사의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은 각부의 조각이 완전하며 흔하지 않은 목조불상으로 조성 연대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어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연대와 조성 장소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17세기 후반의 목

조 불상으로 전라남도 내에서 몇 안 되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아 현재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28호로 지정되었다.

3) 보광사 석조미륵불좌상

- 소재지: 죽교동 280(보광사 대웅전)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8호(2012. 05. 21.)



그림 59 보광사 석조미륵불좌상

보광사는 유달산 달성공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1930년에 발간된 『목포부사』 기록에 의하면 1928년 10월 30일 박운계(朴雲溪)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석조미륵불좌상은 보광사 법당 안에 석조 원각불 형태의 주 존으로 봉안되어 있다. 유달산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를 깎아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목포 원로들에게 전해오는 구전에 따르면 난포(다이너마이트)를 터서 바위를 깎 후 불상을 조각해 나간 것이라고 한다. 암반을 그대로 이용해 불상을 조성한 독특한 사례로 가치가 있으며, 유달산에 남아 있는 불교 유적 중 목포 신도들에 의해 조성된 사례로 주목된다.

보광사 석조미륵불좌상은 금용(金蓉) 일섭(日燮, 1900~1975)에 의해 1949년에 제작한 것이다. 일섭은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불교 미술의 대가로 불화·불상·단청 등 각 분야에 매우 뛰어났고, 전국의

사찰에 수많은 작품을 남겨 현대 불교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일섭은 자신의 평생 작업 일지를 일기 형식의 『연보(年譜)』로 남겼는데, 이 기록에 목포 보광사 석조미륵불좌상을 1949년에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4월부터 5월 중 전남 목포 보광사에 돌로 6척 높이의 미륵좌상을 만들다. 주지는 만성스님이고 화주는 차보살이며 석공은 2인이다.” 미륵불이 봉안했기 때문에 법당의 명칭이 오랫동안 ‘용화전’이었다. 현재는 현판이 ‘대웅전’으로 교체되어 있다. 광복 이후 조성된 것이지만 기법상 조선 후기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석조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유달산팔십팔소영장(儒達山八十八所靈場)

- 소재지: 유달산 일원
- 시 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유달산에 88개의 불상을 세우고, 이를 ‘儒達山八十八所靈場(유달산팔십팔소영장)’이라 불렀다. 이는 흥법대사의 생애와 관련이 있다. 그는 중국유학 후 일본 시코쿠 지역을 순례하며 88개의 사찰을 세우거나 중흥시켰는데, 이곳은 지금도 일본 불교신자들의 수행코스이자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에 살던 일본인들은 이를 축소 재현하여, 사찰대신 88개의 불상을 유달산에 조성한 것이다. 유달산 등구에서 일등봉 이등봉 일대까지 고르게 불상을 배치하였다.

유달산에 세워진 88개 불상의 크기는 1m 내외이다. 받침 부분에 일일이 번호를 새겨 놓았고, 번호 밑에 그 불상을 시주한 일본인의 이름과 현재 거주지, 일본 내 출신지를 표기하였다. 시주자 이름을 보면 목포에 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강진 영암 해남을 비롯해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이름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불상은 외부에서 제작한 후 유달산 바위 위에 고정시켜는 형태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목포에 세워진 불상들의 석재는 일본의 잣돌(화산석)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유달산의 88개 불상을 순례하고, 맨 마지막에 흥법대사상을 참배하였다. 1932년 발간된 목포 사진첩에 관련 사진이 실려 있다. 이 88개의 불상들은 광복 후에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모두 파괴되거나 도굴되었다. 현재는 불상이 세워져 있던 터만 유달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유달산에 조성된 88불 가운데 일부가 타 지역 사찰이나 개인 사찰 등에 보존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광복 후 일제 잔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달산 마당바위 아래에서 수습한 22번 불상이 목포문화원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 60 팔십팔영장비



그림 61 유달산 팔십팔소영장 중 일부

3. 암각

1) 홍법대사상

- 소재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아래
- 시 대: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상징인 홍법대사상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아래쪽 경사면에 조각되어 있다. 우측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부동명왕상이 있다. 조성 시기는 1931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개항 이후 목포에는 전통적인 한국불교보다 일본 불교가 더 빠른 시기에 다수 유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로 ‘진언종’이다. 유달산에 새겨진 홍법대사는 일본 진언종의 개조로 이름은 공해(空海), 홍법(弘法)은 법명이다. 774년에 태어나 835년에 열반하였는데, 20세에 출가하여 중이 되었으며 804년 30세 되던 해에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수행하였다. 806년에 귀국하여 불법을 전해 일본 불교의 선각자로 칭송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 친숙하고 존경받는 승려이다. 바위 면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은 홍법대사가 의자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홍법대사 좌측에 ‘홍법(弘法)’, 우측에 ‘대사(大師)’라고 새겨져 있으며, 의자의 아래 부분에 신발, 병 등이 조각되어 있다. 오른손에 금강오고저(밀교의 일반적인 법구)를 왼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다.



그림 62 홍법대사상

2) 부동명왕상

- 소재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아래
- 시 대: 일제강점기

부동명왕상(不動明王像)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바로 아래 경사면에 조각되어 있다. 철퇴를 들고 있는 모습 위에 ‘不動明王(부동명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성 시기는 1931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부동명왕은 밀교의 중심적 부처이다. 홍법대사가 안치된 곳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홍법대사가 중국에서 유학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이 부동명왕이 대사의 항해 안전을 지켜줬다는 설화가 전한다. 이로 인해 홍법대사가 모셔져 있는 곳에는 부동명왕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63 부동명왕상

3) 유달산 미륵불 암각

- 소재지: 죽교동 317-3(유달산)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9호(2012. 05. 21.)

미륵불은 달성사에서 유선각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중간의 바위에 조성되어 있다.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13m의 바위 절벽에 조성되어 있다. ‘彌勒佛(미륵불)’ 글자를 양각으로 새겨 놓았다. 미륵불 좌측에는 ‘大勢至菩薩(대세지보살)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 우측에는 ‘觀音菩薩(관음보살) 世尊應化 二九五二年乙丑四月(세존응화 2952년 을축 4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달성사 극락보존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을 글씨로 새겨놓은 형태이며, 조성 시기는 1925년 을축년 4월이다. 이때는 달성사가 창건(1915년 4월)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달성사의 창건 주지인 노대련 선사가 창건 1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쪽 바위 면 좌측에 ‘創建主坐禪臺大蓮(창건주좌선대대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노대련 창건주가 좌선하던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미륵불 하단에 ‘만(卍)’이 좌우방향이 바뀌어 새겨져 있는 것이다. 한편 미륵불로 올라가는 바로 아래쪽 등산로 바위 면에는 ‘心本(심본)’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4) 유달산 마애불

- 소재지: 죽교동 산 42-2(유달산)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7호(2012. 05. 21.)

마애불(磨崖佛)이라 불리는 이 유적은 마당바위 밑에서 소요정으로 가는 오솔길의 중간 정도에 자리하고 있다. 소요정 아래 첫 번째 내리막길에서 마당바위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야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다니는 오솔길 옆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커다란 바위에 높이 370cm, 너비 160cm 크기로 조각되어 있다. 부드러운 미소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 손에는 구슬을 들고 있다. 유달산에 남아 있는 불교 관련 유적 중에 가장 한국적인 느낌의 유적이다. 유달산이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바위산이라 대부분의 등산로도 바위로 되어 있고, 때문에 그 느낌이 조금은 날카롭다. 반면 마애불은 한적하고 고요한 오솔길에 자리하여 편안한 느낌을 전다. 다만 조성 시기가 정확치 않다. 고 손양동의 증언에 의하면 광복 이후 석공들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전한다.



그림 64 유달산 미륵불 암각



그림 65 유달산 마애불

4. 사찰

1) 달성사(達聖寺)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는 목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유달산의 동남쪽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출신으로 알려진 노대련(盧大蓮) 선사(禪師)에 의해 1915년 4월 8일 세워졌다. 본래 해남 대흥사(大興寺)의 포교당으로 창건되었다.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인 목조지장보살상과 목조아미타삼존불 등 많은 불교 문화재를 지니고 있는 한국 전통사찰 69호이다.



그림 66 달성사 극락보전

2) 반야사(般若寺)

● 소재지: 열린길 25(죽교동 193-1)

유달산 아래 죽교3동 주민센터의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의 명칭은 백양사포교당(白羊寺布教堂)이고, 일명 영명사(永明寺)라 했다. 1918년 10월 6일 영광불갑사(靈光佛甲寺)의 주지 송혜은(宋慧恩)이 개설한 곳이다. 그 후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에 속하게 되었으며 사호(寺號)를 '반야사'라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부전에 근현대 불교 미술의 대가인 일섭이 1946년 제작한 지장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그림 67 반야사 대웅전

3) 관음사(觀音寺)

● 소재지: 죽교동 189(조각공원 내)

조각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이다. 관음사는 원래 1855년 무렵 산신당(山神堂)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 후 김파월(金把月) 주지에 의해 사찰(寺刹)의 면모를 갖추고 관음사로 칭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그림 68 관음사 대웅보전

4) 학암사(鶴庵寺)

● 소재지: 유달로 101번길 12(온금동 산2)

유달로 둘레길에 속한 유달로101번 길에 자리하고 있다. 1946년 진(陳)씨가 토굴(土窟)로 창건했다고 전해온다. 이후 1971년 문수암(文洙庵) 문연(文蓮) 스님이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사찰로 자리를 잡았다. 대한불교 법화종(法華宗) 72호(1963년 7월 1일)로 등록되었다. 사찰 입구에 ‘창건공덕비(創建功德碑)’, ‘고창설주진씨법화행비(故創設主陳氏法華行碑)’, ‘관옥대화상공비(官旭大和尚功德碑)’가 세워져 있다. 유달산 둘레길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원지 뚝방길을 지나 유달산 휴게소로 가는 도중에 학암사가 있다.



그림 69 학암사 대웅전



그림 70 해봉사 전경

5) 해봉사(海峯寺)

● 소재지: 온금동 1

유달로에서 노적봉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의 좌측 언덕위에 자리하고 있다. 목포항을 바라보고 있는 해봉사는 1940년 3월20일 최학송(崔鶴松) 스님이 창건하였다. 최학송 스님은 장성백양사(長城白羊寺)의 승려로 동안거(冬安居)에 정진하고 있던 중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밝아지면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목포 유달산 중턱에 법당을 창건하고 포교하면 많은 불자가 운집하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목포 시민이 액운을 면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가 있어 즉시 백양사를 떠나 목포로 옮겨와 현재의 위치에 해봉사를 세웠다.

5. 민속신앙

1) 고하도 탕건바위

- 소재지: 유달동 산 2145 입내 중턱
- 시 대: 조선시대

탕건바위는 고하도 사람들이 가뭄에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며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던 곳이다. 그 생김새가 사람 머리위에 쓰는 탕건을 닮았다고 해서 ‘탕건바위’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하도에서 언제부터 기우제를 지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충무공 이순신이 고하도에 수군진을 축조하였던 1597년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고하도 탕건바위 기우제는 1970년대 민속학자 최덕원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기우제라는 특성상 마을 주민의 민속 의례로서는 그 전승은 단절되었으나, 목포문화원에 의하여 1993년 10월 민속 예술 놀이로 재현되면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탕건바위는 옛 고하도 기도원 건물(유달동 195-21) 우측으로 나와 있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산 중턱으로 5분~10분 정도 올라가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폐건물들이 있는 사이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개인 무덤이 있는 공터가 나온다. 이 무덤의 좌측 상부에 탕건바위가 자리하고 있다. 탕건바위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규모는 둘레 512cm, 가로 176cm, 최대 높이 175cm, 세로 120cm이다. 고하도 탕건바위는 목포 지역 민속 의례의 실제 현장을 보여주는 매우 희소성 있는 유적이다.



그림 71 고하도 탕건바위

2) 다순구미 산제당 터 및 축대불망비

● 소재지: 온금동 산7-1 일원

유달산 자락에 형성된 온금동(溫錦洞) 일대에는 다순구미 산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다순구미’란 따뜻한 지역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로 온금동 지명의 유래이기도 하다. 다순구미 산제는 유달산 산신을 제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산제를 모시는 곳은 마을 뒤 산제당이었다. 현재는 그 터와 축대만 남아 있고, 축대 아래에는 축대 중수와 관련된 2기의 작은 비가 세워져 있다. 이 중 우측의 비는 축대를 세운 온금동 주민 송옥산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전면에 ‘宋玉山築台不忘碑(송옥산축대불망비)’라고 새겨져 있고, 좌측의 비에는 ‘特別贊助者芳名碑(특별찬조자방명비)’라는 제목과 관련 인물 5인의 이름(姜重益, 李萬實, 李勳東, 金日涉, 金朱△)이 새겨져 있다. 비에 건립 년대가 ‘丁酉 六月 告日(정유 6월 고일)’이라고 새겨져 있어 1957년 6월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木浦市 溫錦洞 山祭堂 改築 推進委員 一同 建立(목포시 온금동 산제당 개축 추진위원 일동 건립)’이라고 새겨져 있다. 산제당이 1957년에 개축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는 적어도 산신제가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전에 의하면 1970년대 말경 미신타파의 이유로 제당이 헐리고 산제가 중단되었다.



그림 72 다순구미 산제당 터 및 축대불망비

6. 기타

1) 달성사 범종(梵鐘)

달성사 극락보전에 보존되어 있다. 종에 새겨진 각명(刻名)을 통해 이 종의 조성된 시기와 목적을 알 수 있다. 한쪽 면에 ‘乾隆五三丙午七月〇日 海南大屯寺挽日庵 中鍾一百斤(건륭53병오7월〇일 해남 대둔사 만일암 중종1백근)’이라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主上殿下 壽萬歲(주상전하 수만세)’라 새겨져 있다. 1788년(정조 12)에 정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대흥사 만일암에 시주된 것이다. 범종을 만든 사람은 백흥적(白興積), 김중명(金重明)이라 되어 있다. 정상에는 용모양과 음통(音筒)이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며, 용의 입에는 여의주를 머금고 있고, 그 뒤쪽에는 역린(逆鱗)이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실측크기는 총 높이 74cm, 종신고 58cm, 직경51cm이다. 이 범종은 달성사의 창건주였던 노대련 선사가 해남 대흥사의 만일암(挽日庵)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온다. 또한 이 종은 목포팔경(木浦八景) 중 하나인 ‘달사모종(達寺暮鐘)’과 관련되어 있는 유서 깊은 유물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다.



그림 73 달성사 범종

2) 달성사 나무아미타불비

달성사(達聖寺) 아래에는 변형된 삼층석탑(三層石塔) 형태의 기념물이 하나 서 있는데, 구도(求道)를 목적으로 1921년에 세워졌으며 일명 ‘미타탑’이라 불린다. 탑의 측면에는 달성사를 지을 때 부지를 기부하고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비면에는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이라 새겨져 있다. 규모는 높이 187cm·너비 93cm 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석탑이라기보다는 시주한 사람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의미의 기념물 성격이 강하다.



그림 74 달성사 나무아미타불비



그림 75 달성사 노대련대선사창공비

3) 달성사 노대련 대선사 창공비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 경내
- 시 대: 1946년

달성사 극락보전의 왼편 빈터에 옮겨 세워져 있다. 달성사 창건주인 노대련 선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로 1946년 10월 15일 세운 이 비에는 ‘創建主盧大蓮大禪師彰功碑(창건주노대련대선사 창공비)’라 새겨져 있다. 비의 높이는 291cm, 너비 60cm이다.

4) 현기봉 영세불망비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 경내
- 시 대: 1923년

달성사 경내로 들어가는 초입 계단의 왼쪽에 ‘달성사중수공덕비’와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다. 비의 앞면 위쪽에 ‘七星閣 獨建築(칠성각 독건축)’ 정중앙에 ‘玄基奉永世不忘碑(현기봉영세불망비)’ 왼쪽에 ‘子 俊鎬(자 준호)’라 새겨져 있다. 비의 뒷면 중앙에 ‘世尊降生二九五癸亥四月八日(세존강생 295 계해 4월 초8일)’, 아래에 ‘化主 盧大蓮 同參信徒(화주 노대련 동참신도)’라 새겨져 있다. 달성사를 후원했던 현기봉이 칠성각을 건립해준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당시 달성사 주지 노대련과 신도들이 세운 것이다. 비문 중 ‘世尊降生二九五(세존강생295)’는 ‘世尊降生二九五十(세존강생2950)’의 잘못으로 보인다. 비의 규모는 높이 100cm, 너비 39cm이다.



그림 76 현기봉 영세불망비와 달성사 중수공덕비

5) 달성사 중수공덕비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 경내
- 시 대: 1947년

달성사 경내로 오르는 초입계단의 왼쪽에 ‘현기봉영세불망비’와 나란히 서있다. 비의 정면에 ‘達成寺重修功德碑(달성사중수공덕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시주자들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13cm, 너비 36cm, 두께 14cm이다.

6) 도현화상 송덕비

- 소재지: 죽동 226-1 정광정혜원 내

1917년 일본인들이 세운 ‘흥선사’ 초대 주지 도현화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송덕비이다. 비에 ‘當山一世道賢和尚頌德碑(당산일세도현화상송덕비)’라 새겨져 있다. 흥선사는 현재 정광정혜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77 도현화상 송덕비

7) 유달산 산왕대성전터

- 소재지: 죽교동 산 42-2 일원(유달산 일등봉 아래)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3호(2012. 05. 21.)

유달산 일등봉쪽에서 이등봉쪽으로 내려가다가 왼편으로 나있는 셋길로부터 30여미터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고하도와 목포 해양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형태의 작은 공터이다. 흔히 ‘대성전 터’라고 불리는 이곳의 바닥면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던 주춧돌의 흔적이 남아 있다. 두 개의 암각상과 3개의 암각 글씨가 있다. 정면 중앙부 바위 면에 ‘山王 大聖殿(산왕 대성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있고, 왼편 바위면 두 곳에는 그 내력이 알려지지 않은 암각상들이 새겨져 있다. 얼굴 부분이 훼손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신상의 모습으로, 도교적인 색채와 민간 신앙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암벽 한쪽에는 ‘五方神位(오방신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인근 바위에는 기자성혈의 흔적들이 보인다. ‘산왕대성전’이라고 새겨진 바위의 우측 중앙에는 ‘南無此山局內恒住大聖(나무차 산국내항주대성)’이라 새겨져 있고, 글씨의 좌우로 ‘山王 大神(산왕 대신)’이 새겨져 있다. 이 글귀는 산신청(山神請)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산왕 대신은 불교에서 절이 있는 산을 지키는 신장(神將)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흔적을 보면 유달산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산왕대성전 터의 좌측 암벽에는 목포에 드나드는 배들이 지나는 목포 앞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암각상이 있어 바다 생활과 관련하여 안전과 풍어를 비는



그림 78 산왕대성전터 암각



그림 79 산왕대성전터 전경

신앙처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 도교, 민속 신앙의 흔적이 혼합되어 있는 장소 성격이다. 다만 일본인들이 1931년 무렵 유달산에 조성한 도하신사(稻荷神社)와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산신제와 관련된 민간 신앙의 장소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신앙행위가 접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측 지면에는 아래로 연결되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래쪽에 ‘향천정(香泉井)’이라는 샘이 조성되어 있다. 향천정이 조성된 장소는 작은 동굴의 형태를 나타내며, 동굴 상부를 받치는 형태의 기둥 2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세워져 있다. 누군가 수도하는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왕대성전 터로 넘어오는 바위 위에는 자연적인 바위 덩어리를 해태상처럼 조각해 놓은 것이 있다. 입구 수호신 역할을 하는 조형물로 판단된다.

제7절 자연환경 유적

1. 목포 갯바위

- 소재지: 용해동 86-24번지 인접해역
- 지 정: 천연기념물 제500호(2009. 04. 27.)

목포 갯바위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해 풍화 작용과 해식 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 tafoni)의 일종이다. 사람이 갯을 쓰고 있는 형태이며, 약 5m정도 되는 타원형 모양이다. 갯바위는 해식 작용과 풍화 작용의 영향으로 암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 표면의 모자 모양의 덮개와 벌집 모양의 홈들은 바닷물에 의한 침식의 결과이다. 갯바위가 있는 곳은 응회암이 영산강 하구와 맞닿은 위치에 있다. 이곳의 물은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곳으로서 물의 성질은 바닷물이나 다름없다.

그림 80 목포 갯바위



갯바위에 파도가 치거나 안개가 끼게 되면 그 표면이 염분을 함유한 수분에 젖었다가 마르게 되고, 수분에 용해된 일부 성분 중 실리카 성분이 암석 표면으로 이동된 후 거기에 침전되면서 딱딱한 표피가 형성되었다. 용해된 부분은 조직이 이완되어 강도가 낮아지면서 쉽게 풍화되어 구멍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작용이 오래 계속 반복되어 현재와 같이 바위 위쪽의 모자 모양의 경질부와 그 아래쪽의 움푹 패인 벌집 모양의 풍화혈이 형성되었다. 바위 위쪽 갯 모양의 부위가 동쪽 내지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의 형성 과정에 햇빛이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지시한다. 목포 해안 갯바위는 인위적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해역의 풍화환경에서 자연적인 과정으로 빚어진 풍화혈 상태의 자연 조각품이며 다른 지역 풍화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갯바위에는 ‘효성스런 청년’과 관련된 아름다운 전설이 담겨있어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문화자원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2.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동지화석

- 소재지: 남농로 135(목포자연사박물관)
- 지 정: 천연기념물 제535호(2012. 06. 27.)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룡알동지 화석으로 2009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의 압해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2012년 6월 27일에 천연기념물 제535호로 지정되었으며,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져 보존처리 및 정밀 복원된 후 지금은 상설 전시되고 있다. 규모는 동지 지름이 2.3m, 높이 60cm, 무게 3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알동지 화석이다. 동지 안에 공룡알 19개가 있으며, 알 개체의 크기는 지름 385~430mm에 이르러 알의 크기도 국내 최대로 평가되고 있다. 두 개의 알 화석이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어미 공룡으로부터 나온 점액에 의해 알이 달라 붙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석은 백악기 후반부 육식공룡의 고생물 지리적 분포 특성, 산란 습성, 서식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당시 이 지역은 공룡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던 호수 환경이었는데 호수 퇴적층 내에 공룡의 흔적 화석이 잔존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형성 당시 이 지역은 중국과 육지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식하는 공룡의 종류 역시 비슷하여 다른 지역보다 중국의 공룡알 화석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3. 고하도 송지암 구릉지

- 소재지: 달동(고하도길 91) 충무분교 구릉지

충무분교 인근 구릉은 송지암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송지암은 흑갈색에서 흑색을 지니고 수지상(樹脂狀) 광택을 보이는 유리질 암석이다. 색과 조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흔히 흑요석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고하도 송지암 생성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만 년 전후하여 함수층을 관입하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주의 함수층으로부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수지상 광택을 보이는 송지암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출 양상으로는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노출된 평면 면적으로 가정할 경우 약 2,000㎡ 미만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노출된 송지암 표면은 수목으로 덮여져 있기도 하고, 수목 없이 노출된 면적은 오랜 풍화에 의해 흑갈색 수지상 표면이 지의류 등에 의해 멀리서 육안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근접해서 볼 경우 송지암의 특성이 확인이 된다.

고하도 송지암은 중생대 백악기 이후 조산 활동 등 지구조 변동에 대한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구석기 시대 인류의 석재 활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도구를 사용되었으므로 그 산지 또한 매우 인문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영암 삼호읍 방면에서 2개소 정도가 단지 맥상으로 산출되거나 경계부가 변성되어 있어 송지암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반면에 목포시 고하도 송지암은 구릉지를 이루며 옥천 습곡대를 따라 중생대 백악기 후기와 제3기 초기에 걸쳐 화성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고하도 송지암은 독특한 수지상 광택 특징과 전형적인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낸다. 국내적으로도 송지암이 구릉지를 이루며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대규모로 위와 같은 특징으로 산출되는 곳이 매우 드물다. 고하도 송지암은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큰 자연 유산이다.

4. 목포북교초등학교 느티나무

- 소재지: 수문로 83(북교 교정)
- 지 정: 목포시 문화유산 12호(2012. 05. 21.)

목포 북교초등학교 본관 좌측에 자리하고 있는 느티나무이다. 목포북교초등학교는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성립되었으며, 1901년에 현 위치로 이전해 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북교초등학교의 교목이자 상징이다. 목포 북교동은 남교동과 함께 '쌍교촌'으로 불리며, 목포가 개항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이다. 북교초등학교의 나무는 북교동 사람들의 당나무와 같은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북교초등학교는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교육 기관이고, 조선인을 위한 교육 기관을 목포 개항과 함께 설립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등을 배출한 목포 교육사의 산실이다. 현재 학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은 이 느티나무가 유일하다. 수령은 약 150년 내외, 수고 14m, 흉고직경은 장축 110cm, 단축 70cm이다. 수령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림 81 목포북교초등학교 느티나무

5. 반야사 느티나무

- 소재지: 열린길 25(죽교동 193-1)
- 지 정: 목포시 보호수 15-01-13-01(2015. 07. 24.)

유달산 아래 열린길 25번길에 자리잡고 있는 반야사 경내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반야사는 백양사 포교당(白羊寺布教堂), 일명 영명사(永明寺)로 1908년 문을 연 목포 최초의 사찰이다. 이 느티나무는 반야사 경내 담장에 자리하고 있다. 수령은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고는 16m, 나무둘레는 3.0m이다. 2015년 7월 24일 목포시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다.



그림 82 반야사 느티나무

6. 달리도 팽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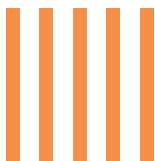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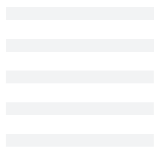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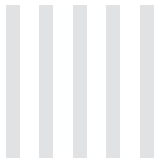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 소재지: 달동 514(달리도)
- 지 정: 목포시 보호수 15-1-12-01(2015. 07. 24.)

달리도(達里島)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1962년 11월 21일 공포)로 무안군 이로면에서 목포시에 편입되면서 허사도, 달리도, 외달도, 눌도, 장좌도와 함께 충무동에 편성되었다. 이후 행정 구역 개편을 거쳐 2006년부터는 유달동에 속해있다. 섬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섬 모양이 반달모양과 같다하여 달도라는 설이 있으며, 유달산의 달자를 따서 달리도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14세기에 청주한씨(淸州韓氏)가 달리도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400여 년을 살다가 떠나고 이후에 영양천씨(潁陽千氏), 김해김씨(金海金氏), 광산이씨(光山李氏), 전주이씨(全州李氏) 등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달리도 팽나무는 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상징하는 노거수로 달리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당산 나무로 모셔왔다. 현재는 당제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쉼터 및 피서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수령은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수고 15m, 흉고둘레 3.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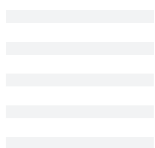
그림 83 달리도 팽나무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HK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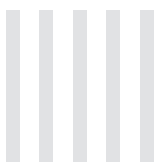
제1절 목포 근대건축의 성립과 발전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2절 주거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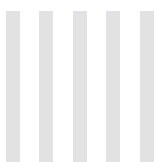
제3절 공공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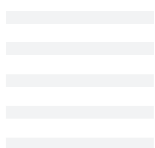
제4절 학교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5절 종교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6절 금융·상업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2장 근대 건축

제1절 목포 근대건축의 성립과 발전

1. 개항과 근대건축

서구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새로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수공업 체제의 산업이 대량 공장생산의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1851년의 영국 만국박람회, 1889년의 프랑스 만국박람회, 1893년 미국 시카고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각 나라가 새로운 공산품과 신기술을 홍보하는 등 확고한 근대 산업사회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즉 19세기 세계 주요 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에도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했고 철과 유리 같은 재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영국 박람회의 주 전시관이었던 수정궁,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에펠탑, 그리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은 당시 신건축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열강은 조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 나라 중 특히 일본은 1867년 메이지[明治]정부 출범 이후 국가 주도로 구미의 경제 제도,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산업 및 도시 근대화를 시작했다. 반면에 조선은 1866년 프랑스(병인양요), 1871년 미국(신미양요) 등 외국의 지속적인 문호 개방을 요구했으나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강행하였고 그로 인해 전 근대적인 봉건사회가 지속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을 요구했고 결국은 1876년(고종 13)에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1882년 미국과도 통상조약을 맺고 연이어 영국 등 유럽 국가와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각국과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부산(1876년), 원산(1880년), 인천(1883년), 목포(1897년) 등이 개항이 되면서 외국의

신기술과 문화가 유입되었고 마침내 조선도 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개항을 계기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의 욕망을 드러냈다.

개항 이후부터 계속된 외국과의 수교는 결국 그들의 문화가 이 땅에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중 가장 뚜렷한 현상은 바로 그들이 지은 건물이었다.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거주지에 살림집을 마련한 후 공무를 위한 영사관이나 공사관(1877년 부산 일본 관리청, 1892년 서울 영국 영사관, 1895년 서울 러시아 공사관, 1897년 서울 프랑스 공사관 등)을 지었다. 선교 목적의 외국인들은 성당 등 예배당(1891년 서울 약현성당, 1898년 서울 명동성당, 1898년 서울 정동교회 등)을 지었고 이와 더불어 학교와 병원 등도 건립했다. 이러한 건축물에는 벽돌, 콘크리트, 유리 등을 사용하였고 축조 기술도 그간 조선의 땅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것이었다. 즉 극히 목조건축으로 한정되었던 조선의 건축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건축 양식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가장 극명한 근대 표현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목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2. 목포 근대건축의 유입과 특징

한반도 서남쪽 끝에 자리한 목포는 1897년 10월 1일에 개항을 계기로 발전된 근대도시다. 개항 전 목포에는 전라 우수영 소속의 목포진(木浦鎭)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인과 거리가 먼 군영시설이었다. 즉 개항 전 목포는 무안현 소속으로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어촌이었다. 1914년에 편찬된 『목포지』에 의하면 당시 약 40여 호가 목포진 동쪽과 유달산 기슭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던 다소 황량한 곳으로 기술하고 있다.

개항 이후 목포의 개발과 도시 확장은 오직 해안가 매립을 통해 이루어 졌고 결국은 1980년대 하당까지 이어졌다. 즉 목포는 지형적으로 고작 유달산 주변의 비탈진 경사지가 전부였다. 매립의 시작은 일본영사관 전면부터 시작되어 만호진 주변과 역전 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도시 확장으로 주택, 상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됐고 1935년에는 인구 6만 명의 전국 6대 도시로 성장하기도 했다. 지금도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특히 선창가 주변에 거의 원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다.

개항 이후 목포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철저히 이분화 된 공간 구조 속에서 생활했다. 거주 지역도 달랐고 각자 사는 살림집도 우리는 한옥이고 그들은 다다미방이 있는 일식집에서 살았다. 학교도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로 이분화됐다. 심지어 종교 시설인 사찰과 교회도 각자 세웠다.

도로망 등 도시의 구조가 갖추어진 새로 난 길가에는 어김없이 전에 보지 못한 건물들이 들어섰고 각양각색의 간판이 걸렸다. 방울 모양의 등이 5개 달린 멋진 가로등이 저녁에도 거리를 밝게 비췄다.

즉 모던건축과 함께 모던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인근 무안, 해남 등에서 보이왔던 도읍의 존재 방식 즉, 성곽이 있고 굽어진 길을 따라 단층의 한옥이 있는 그러한 구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목포의 근대건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등장했다.

첫째, 1900년대 초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목포를 찾으면서 교회와 학교, 살림집 등을 지으면서 근대 건축이 유입됐다. 당시 선교사 들은 개항장과는 거리가 먼 현 양동 일대의 구릉성 야산을 아주 싸게 구입하여 학교와 교회, 사택 등을 지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영역이 쉽게 넓혀져 갔고 특히 시민들은 서양의 근대 교육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일본이 이 땅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지배 목적과 관리를 위해 공공성 건물을 지으면서이다. 개항 후 3년 만에 유달산 남쪽 기슭의 제일 좋은 터에 영사관을 지었고, 이외 은행과 그들만의 학교, 사원, 교회 등도 건립했다. 주택도 일식으로 지었다.

셋째,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가져다 준 근린 상업 시설의 등장이다. 현 행복동, 대의동 일대의 폭 6~8m의 도로 변에 주로 2층 상가가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1층은 식당, 술집, 생필품 가게 등이 자리했고 2층은 주거 시설로 사용했다. 대지가 넓은 곳은 후면에 작은 마당이 있는 살림집을 짓기도 했다. 현 갑자옥 모자점 주변이 그 중심이 된다.

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한옥이 시대에 맞게 평면과 구조 등이 변했다. ‘— 자형’ 일색이었던 곳에 ‘ㄱ 자형’ 한옥이 등장했고 일부에 벽돌도 사용하고 유리창도 달았다. 즉 근대 한옥의 등장이다. 두 번째는 석재나 벽돌, 타일 등 건축 재료 사용의 다양성이다. 특히 상가 외부 마감을 모래와 시멘트를 사용하여 석판 모양으로 시공하는 다양한 기법이 널리 유행했다. 목재에만 의존했던 이 지역 건축에 획기적인 변화다. 세 번째는 준 르네상스 형식 등 다양한 서구 건축 양식이 건축에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식민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 속에서 목포가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필연적인 도시 역사의 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목포 근대건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석조 건축이다. 현재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12건 중 무려 7건이 석조 건물이다. 즉 개항 이후부터 목포에는 다양한 유형의 석조 건물이 건립됐는데 이는 인근에 풍부한 퇴적암(응회암) 석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포에는 채석장이 크게 2곳이 있었다. 하나는 ‘유달산돌’이라고 하는 유달산 주변의 채석장(뒷개 화장터 부근, 대반동 부근, 이훈동 주택 후면 등)이고 다른 하나는 ‘형무소돌’이라고 하는 산정동 뒤편(현 중앙하이츠 아파트 후면)의 야산이다. 일반적으로 유달산 돌이 형무소 돌 보다 질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00년대 초에 지은 선교사 사택과 양동교회가 유달산 돌로 지은 대표적 건물이다. 산정동 채석장은 일제강점기 목포형무소 죄수들의 노역으로 개발이 됐고 해방 후까지도 이곳 돌이 목포 석조 건축에 광범위하게 쓰였다. 그 대표적 건물이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이다. 한편 일제강

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목포 지역에서 활약한 대표적 석조 기술자로 손양동⁰¹⁾이 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한 조적조 건축도 목포 근대건축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벽돌조 건축은 개항 이후 서양식 건물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다. 즉 형태를 떠나 건축에 근대성을 가장 빨리 전해준 재료가 벽돌이었다. 서울의 영국영사관(1892년), 벨기에 영사관(1905년) 등 각국의 영사관은 물론 특히 교회와 학교에 벽돌건축이 많이 등장했다. 서울의 약현성당(1891년), 명동성당(1898년), 배재학당 본관(1887년), 이화학당 본관(1899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목포에도 일본영사관 건축을 시작으로 목포심상고등소학교 강당, 목포공립고등여학교, 목포공립 상업학교, 목포공립보통학교 등 대형 학교 건물도 벽돌로 건립됐다. 기타 소규모 2층 상가, 보광동 창고, 대안동 전남 정미소 등도 벽돌을 사용한 조적조 건축이다. 한편 구조(벽체)만 벽돌로 하고 외부는 다른 재료로 마감한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지점(1921년),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1929년), 목포심상고등소학교 강당(1929년) 등도 있다.



그림 1 서쪽 해안가 일대의 매립이 거의 완성 된 모습(은금동). 배 몇 척이 정박해 있는 '째보선창'이 보이고 우측 유달산 비탈에는 초가집이 밀집해 있다.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⁰¹⁾ 손양동(孫良銅, 1916~2016): 신안 비금 출신으로 주로 목포에서 토건업을 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판본길삼랑(坂本吉三郎)에게서 건축 기술을 배운 이후 주로 석조 공사를 많이 했다. 해방 후 그의 대표작으로는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1950년)외에 목포경동천주교회(1954년), 완도수산고등학교 본관(1954년), 일로 천주교회(1956년), 무안 천주교회(1957년), 목포 북교동 천주교회(1958년), 목포 산정동 천주교회(1961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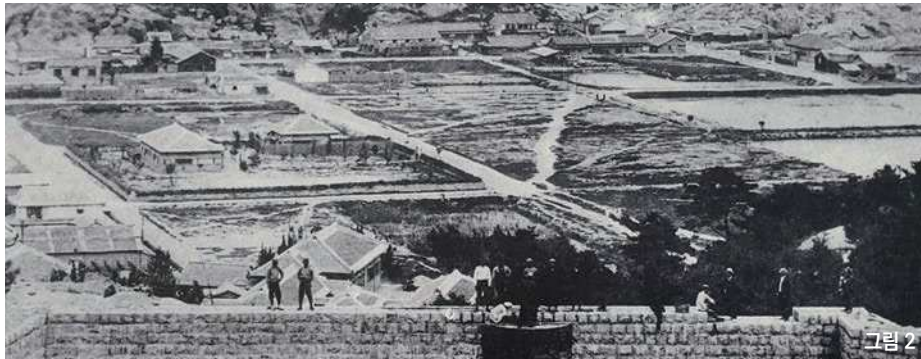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2 보광동 수원지(1909년 완공)쪽에서 바라 본 목포진 전경. 중앙의 매립지 부근이 영사관 전면 쪽으로 장차 중앙척식 건물 등이 들어서는 일제강점기의 중심 시가지가 된다.

그림 3 일제강점기 동쪽 해안가 전경. 뒷 쪽 섬이 삼학도

그림 4 1920년대 영사관 전면 시가지 모습. 우측 2층 건물이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1920년)이고 상단의 긴 건물이 심상 소학교 교사동이다. 이 학교 강당(2층)은 1929년에 신축되어 아직 사진 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5 1920~1930년대(추정) 유달산과 목포진 사이의 시가지 전경. 중앙의 2층 큰 건물이 영사관이고 그 바로 아래 편 건물이 우체국이다. 위쪽에 삼학도가 보이고 목포진 동편으로도 상당히 시 경역이 뻗어 있다.

그림 6 1930년대 촬영 된 것으로 여겨지는 현 오거리 일대 전경. 좌측 원내가 동본원사 목포별원이고 우측 원내 건물은 호남은행 목포지점.

자료: 그림1~그림6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7 일제강점기 옛 중소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목포역 방향의 신작로. 도로 폭이 넓고 길가 건물도 제법 세련되어 있다.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3. 목포 근대건축의 가치

건축물은 시간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다. 즉 건축에는 예술성, 장소성, 시대성이라는 요소가 있어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한다. 또한 실체가 있어 시각 및 감각적으로 쉽게 의미 전달이 되고 장소성에 의해 지역의 고유 문화도 간직한다. 특히 근대 건축은 100여 년 전 시기의 건축이기 때문에 현대건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목포의 근대건축은 목포의 역사와 도시 발전, 그리고 목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목포는 개항 도시답게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주택, 공공 청사, 교육, 종교, 상업, 유통 시설(부둣가 창고 등)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아직도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온금동의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은 전국에서 보기 힘든 근대 산업 시설로서 주목이 간다. 한편 유달산 특유의 응회암을 사용한 석조 건축도 매우 매력적인 건축이다. 현재 목포에는 근대 건축물 총 15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학교나 은행, 공공 건축 등 큰 규모의 근대건축이 많이 사라졌다. 2000년 이후만 해도 죽동교회(석조, 1935년), 정명여학교 초기 교장 사택(붉은벽돌조, 1900년대 초),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장 관사(일식 목조, 1920년대), 목포상업고등학교 관사(일식 목조, 1936년) 등이 헐렸다. 이 모든 것이 건축주, 시민, 관계부처등의 가치 공감 부재에서 나온 결과다. 향후 이러한 일은 지속될 수 있다.

한편 남아 있는 것도 노후화와 함께 점차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상가 건물은 빈집이 많고 이

는 도시 미관에 저해요소가 된다. 이제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존 및 활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목포의 근대 건축은 목포 원 도심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어 원 도심 활성화의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다. 점 단위의 공간을 면과 거리 공간으로 확대하여 신도시 못지않게 사람이 물리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100여년간 목포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자리를 지켰던 건축물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제 도심 재생의 거점으로 근대건축이 나서야 하고 역사가 경쟁력이 되는 목포가 올 것이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근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시기에 형성된 건축 유산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재청에 근대건축에 관련된 조직이 생겨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제 근대 문화유산이 지니는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역사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포시의 근대 건축 편 서술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목포시의 근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아울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 제공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4. 목포의 근대건축

목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오거리 주변과 선창가, 역 앞 목원동 일대가 도시의 중심축이었다. 이와 함께 3호 광장으로 이어지는 대로변도 도시 성장에 한 몫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약 100만 평 규모의 하당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원도심은 인구가 줄고 상권이 쇠퇴하면서 이 지역은 더 이상 관심 지역에서 멀어졌다. 1970년대 새로운 부도심으로 개발된 3호 광장도 1980년대 중반 목포대학교의 무안 이전으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로 모습도 1980년대 모습으로 멈췄고 건축물 역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

〈표 1〉은 본서 근대건축 편에 실린 근대건축 목록이다. 건축물 선정은 모두 5가지 유형(주거, 공공, 학교, 종교, 금융, 상업)으로 분류, 다음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 된 건축물.

둘째, 목포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건축물.

셋째, 위 두 가지 요건에 들지 않으나 시대적 특성이 드러나고 건축 양식이 해당 유형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

선정된 개개 건축물은 해설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다. 한편 개항 이후 건립되었다가 훼손된 주요 건축물은 각 건축물 개설년에 사진을 제시하고 간략하게 건축 특징을 설명하였다.

표 1 목포 근대건축물 목록

유형	건축물 명	건립 연도	소재지	문화재 지정	
				종목	지정 일자
주거건축	01 북교동 문익수 가옥	1908년	목포시 북교동 137		
	02 북교동 심복주 가옥	1913년	목포시 북교동 131	목포시 문화유산 23호	2013. 07. 08.
	03 북교동 이돈채 가옥	1920년대	목포시 북교동 71-1		
	04 구 춘화당 한약방	1929년	목포시	목포시 문화유산 24호	2013. 07. 08.
	05 죽교동 2층 붉은 벽돌집	일제강점기	목포시 죽교동 377-1, 374		
	06 창평동 남진 가옥	1936년	목포시 창평동 7-3		
	07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1)	1900년대 초	목포시 양동 86-1	등록 문화재 제62호	2003. 06. 30.
	08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2)	1900년대 초	목포시 양동 86-1		
	09 중앙동 무역업자 가옥	1920년	목포시 중앙동 3가 1-3		
	10 중앙동 2층 일식 가옥	일제강점기 초	목포시 중앙동 3가 5		
공공건축	01 구 목포 일본영사관	1900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사적 제289호	1981. 09. 25.
	02 구 목포 부청 서고	1932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등록 문화재 제588호	2012. 05. 21.
	03 구 무안군청 서고	일제강점기	목포시 북교동 178-1	목포시 문화유산 26호	2014. 03. 26.
	04 목포 구 청년회관	1924년	목포시 남교동 80-1	등록 문화재 제43호	2002. 09. 13.
	05 공생원 윤치호·윤학자 기념관	일제강점기	목포시 죽교동 473	목포시 문화유산 19호	2012. 05. 21.
	06 목포시사	1907년	목포시 죽동 330-3	시도 기념물 제21호	1975. 10. 11.
학교건축	01 목포 정명여자 고등학교 교사	1920년대	목포시 양동 86-1		
	02 구 목포 공립심상소학교 강당	1929년	목포시 유달동 8	등록 문화재 제30호	2002. 05. 31.
	03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1953년	목포시 용당동 183	등록 문화재 제640호	2014. 10. 30.
	04 구 목포 사범학교 본관	1950년	목포시 용해동 산43	등록 문화재 제239호	2006. 03. 02.
종교건축	01 목포 양동교회	1900년	목포시 양동 127	등록 문화재 제115호	2004. 12. 31.
	02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1933년	목포시 차범석길 35-13		
	03 목포 북교동성당	1958년	목포시 북교동 160		
	04 목포 경동성당	1954년	목포시 경동 2가 2-1	목포시 문화유산 22호	2012. 05. 21.
	05 목포기독교교회	1922년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50		
	06 목포 달성사	1915년	목포시 죽교동 317		
	07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1930년대 초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5	등록 문화재 제114호	2007. 07. 03.
	08 정광 정혜원	1918년	전남 목포시 죽동 226-1	등록 문화재 제696호	2017. 10. 23.
	09 약사사	1927년	만호동 1-24	목포시 문화유산 제21호	2012. 05. 21.
	10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1945년경	목포시 노송길 35-0	등록 문화재 제513호	2012. 10. 17.
금융상업건축	01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1921년	목포시 중앙동 2가 6	시도기념물 제174호	1999. 11. 20.
	02 구 화남은행 목포지점	1929년	목포시 상락동 1가 10-2	등록 문화재 제29호	2002. 05. 31.
	03 구 광생의원	1936년	목포시 남교동 61-1		
	04 구 목포화신백화점	일제강점기	목포시 상락동 1가 11-8		
	05 구 화랑여관	일제강점기	목포시 행복동 1가 4-2		
	06 구 이라장 여인숙	일제강점기	목포시 호남동 12-13		
	07 중앙동 2가 2층 상가	일제강점기	목포시 중앙동 2가 8-4		
	08 구 남양아망 영업소	일제강점기	목포시 행복동 9		
	09 창작센터 나무숲	일제강점기	목포시 행복동 9		
	10 구 해태의류 상가	일제강점기	목포시 북만동 13동		
	11 남해 선구점	일제강점기	목포시 영해동 1가 6		
	12 대광전자 상가	일제강점기	목포시 영해동 1가 3-5		
	13 구 보광동 객주집	일제강점기	목포시 보광동 1가 4		
	14 구 목포 유곽	일제강점기	목포시 금화동		
	15 구 전남 정미소	일제강점기	목포시 대안동 2-1		
	16 구 보광동 창고	일제강점기	목포시 보광동 5-4, 5-10		
	17 조선내화 주식회사 구 목포 공장	1938년	목포시 온금동 122-6번지 외	등록 문화재 제707호	2017. 12. 05.

제2절 주거 건축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는 근대화가 시작되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인구의 집중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근 농어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인구의 집중은 우선적으로 주택의 부족을 불러왔고 이는 도시문제로 번지게 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시가지 중심부를 차지하고 자기들 위주로 주택 정책을 펼쳤고 한국인은 도시 변두리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한국인 마을이었던 북촌과 서촌이다. 목포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개항 당시 한국인 주거는 목포진 동쪽 주변에 40여 호, 그리고 쌍교촌(雙橋村)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북교동 일대에 50여 호가 있었던 다른 해안가 촌락과 다름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인근 농어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목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유달산 인근의 기존 한국인 마을과 새로운 주거지인 현재의 죽동과 목원동 일대에 정착하게 됐다. 그곳은 북교동과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둔 인접지였고 일본인 거류지와도 가까워 새로운 주거지로는 비교적 괜찮은 곳이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발전되어 1980년대 하당과 북항 등 신도시 개발 이전까지 목포의 원도심(原都心)이었던 곳이다. 한편 서산동과 온금동 지역도 일제강점기 이후 꾸준히 한국인 마을이 조성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 마을은 유달산 기슭의 경사지에 조성되어 길이 좁고 굴곡이 많은 골목길 마을이었고 식수도 전통 우물에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당시 경사지에 조밀하게 형성된 그러한 구조는 지금도 비교적 잘 남아있다.

반면에 일본인 주거지는 그들의 조계지인 현재의 중앙동과 유달동 부근의 평지였다. 그곳은 근대적 단지 계획에 의거 반듯한 도로망과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추었고 관청과 학교, 은행 등이 근접해 있어 생활에도 매우 편리했다. 이러한 일본인과 한국인 마을의 대비는 목포 근대화 과정의 양면성이 잘 드러난 사례로 여겨진다.

목포의 근대 주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특징을 보인다.

첫째, 근대 한옥의 등장이다. 당시 한국의 부유층들은 북교동 일대에 규모가 큰 한옥을 건립했는데 기존의 남부 지방 한옥 형식을 크게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한옥을 지었다. 즉 지붕틀과 기와 등만이 전통을 따랐고 평면과 부재 사용 등은 전통에서 벗어났다. 한편 목포에는 붉은 시멘트 기와가 올려 50~80㎡ 규모의 ‘ㄱ’자 한옥이 근·현대기에 널리 유행했고 지금도 시내 곳곳에 그러한 한옥이 많이 남아있다. 1970년대 용당·용해동 택지 개발까지도 민간 업자가 그와 유사한 형태의 한옥을 수백 채 보급했다. 당시 한옥은 두 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부엌 2개에 방을 4개 두었다.

둘째, 1900년대 초 양동 일대에 정착한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석조 주택이다. 현재 정명여학교 구

내에 당시에 지어진 주택이 2채가 있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석조 건축은 그 후 교회, 학교, 상가 등에도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목포 건축 구조의 한 유형으로 정착했다. 당시 석조 건축이 유행했던 이유는 유달산 및 그 주변에 채석이 용이한 응회암 석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인들이 그들의 살림집으로 지은 일명 '적산가옥'이다. 일본식 목조 주택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적산가옥은 비록 일본인의 주택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 주거 역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현장이 되고 있다.



그림 8 한국인의 거주 지역이었던 1910년경 북교동 일대 모습. 초가가 밀집해 있고 군데군데 기와집도 보인다. 상단 제방 건너편이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룬 양동(현 정명여 학교)일대.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정명100년사(1903~2003)』, 2003,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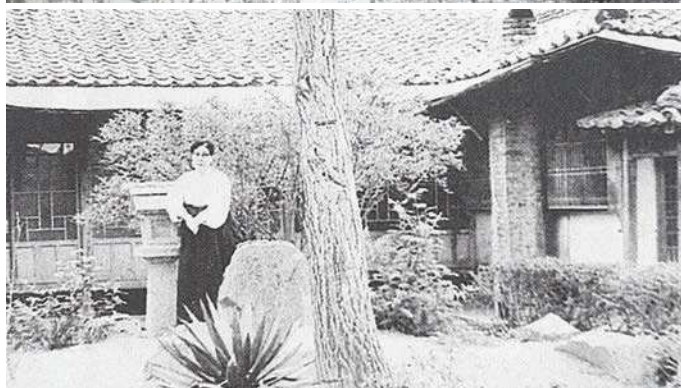


그림 9 박화성 가옥 전경. 사진 속 인물이 박화성. 1930년대 그의 남편 천독근이 경영하는 직물 공장의 사택으로 건립한 것이다. 박화성은 1937년부터 1962년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건물은 우진각 지붕의 'ㄷ'자형이다. 1990년대 중반에 도로 신설로 한 문학가의 역사적 현장이 사라졌다(1994년 가옥거실에 걸려 있었던 사진을 필자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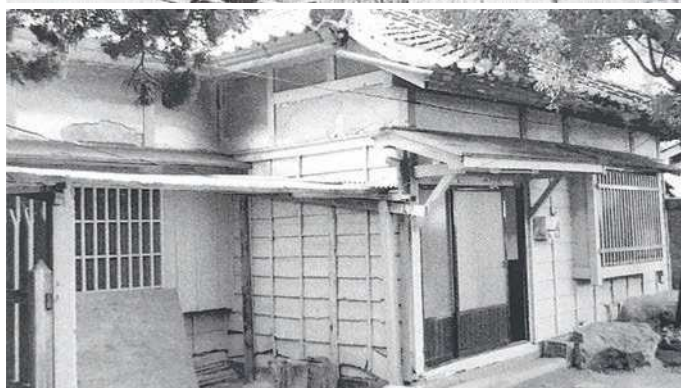


그림 10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장 관사(1920년대 초 건립). 개인 소유 살림집으로 오랜 동안 사용하다가 2007년경에 헐렸다(필자 촬영).



그림 11 유달산 남쪽 기슭에 있었던 일본 기업가 소유의 일식 가옥. 규모가 매우 크고 긴 복도, 미닫이 창호, '오시레'(받침) 설치 등 일식 가옥의 특징이 잘 드러난 가옥이었다.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시장 관사로도 사용했으며 2000년경에 헐렸다(1994년 필자 조사).

1. 북교동 문익수 가옥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37
- 건립: 1908년

북교동에는 1900년대 초에서 중반 무렵에 지은 비교적 규모가 큰 여러 채의 근대 한옥이 있다. 이 한옥들은 당시 목포에 기반을 둔 대지주 내지는 부유층의 주도로 지어졌으며 일부 가옥은 한일 절충식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가옥은 문익수의 조부 문재철이 지은 집인데 그는 당시 암태도(岩泰島)에 많은 농지를 보유한 대지주로서 본 가옥의 건립 역시 그러한 경제적 배경이 된다. 한편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암태도 소작쟁의(1922~1924)사건은 바로 문지주와 그의 소작인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따라서 본 가옥은 이 지역 농촌 근대사의 한 현상이 된다.

건립 연도는 안채에 ‘용 대한융희이년무신삼월병진십칠일임인정미시입주상량 구(龍 大韓隆熙貳年 戊申三月丙辰十七日壬寅丁未時立柱上樑 龜)’이란 상량문이 있어 1908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본 가옥에는 안채와 행랑채만이 있으나 1988년 이전에는 안채 자리 바로 아래에 사랑채도 있었다. 현재 그 터에는 3층 연립주택(북교빌라)이 들어서 있다. 사랑채는 안채와 비슷한 ‘ㄱ’자형의 근대 한옥이었다.

안채는 ‘ㄱ’자형 한식주택으로 방 3개, 대청 1개, 부엌 1개로 꾸며진 규모가 꽤 큰 가옥이다. 꺾어진 구석에 배치된 안방은 뒷퇴까지 둔 3칸 크기이다. 전면으로는 약 120cm 폭으로 모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툇마루와 대청 사이에는 미닫이 유리문이 달려있어 구한말 변해 가는 전통 한옥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구조는 정교하게 가공한 장대석 기단위에 방주(12×12cm)를 세운 장혀 받침 납도리집이며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꾸며져 있다. 지붕은 아쉽게도 1985년경 번와(燐瓦)시에 한식 기와 형을 본 딴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여 한옥으로서의 격이 떨어진다. 당시 처마 서까래도 너무 길어 끝 일부를 잘라내었다. 안채는 전체적인 건물 규모에 비해 기둥의 크기가 너무 빈약하다.

안채와 마주보고 있는 행랑채는 안채와 같은 ‘ㄱ’자형 납도리집이다. 평면 구성은 한쪽 날개는 거주 공간으로, 나머지는 곡간으로 꾸며져 있다. 4칸 규모의 넓은 곡간은 옛 대지주 가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한 단면이 된다. 곡간 옆의 1칸은 옛 사랑채로 통하던 문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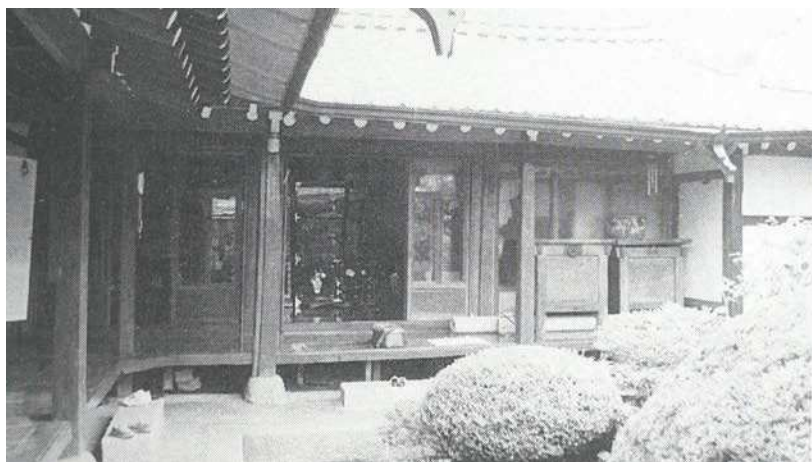


그림 12 안채 정면



그림 13 안채 지붕

2. 북교동 심복주 가옥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31

● 건 립: 1913년

이 가옥은 문익수 가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근대한옥이다. 이 가옥은 문씨 일가와 관련된 가옥으로 건립은 문익수 부친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기는 안채 상량문에 의해 1913년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故) 심복주가 매입하였고 현재는 그의 아내 이영애가 거주하고 있다. 심복주는 목포에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 가옥은 ‘ㄱ’자형인 안채와 역시 ‘ㄱ’자형인 문간 겸 아래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사이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안채는 방 3개와 대청,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청과 각 실 전면으로는 툇마루가 설치됐다. 툇마루 전면으로는 미단이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복도식 개념이다. 현재 큰방 부분은 내부가 크게 개조되어 옛 모습을 보기 어렵다. 기단은 장대석 1벌대 구조이며 주초는 4각 초석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14×14cm의 방주를 썼다. 도리는 장혀받침을 둔 납도리를 걸었으며 그 아래로는 불발기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부연 없는 흘처마다.

아래채는 도로에서 바로 가옥으로 진입할 수 있는 1칸 문간을 비롯하여 방 3개와 대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안채와 거의 비슷한 팔작집이다. 도로변의 벽체는 화방장으로 처리하였다. 지붕 기와는 본래 한식 기와였으나 2010년경에 안채와 함께 한식기와 모양의 강판으로 교체했다.



그림 14 가옥 상부 전경. 앞쪽이 문간 겸 사랑채이고 뒤쪽이 안채이다.



그림 15 문간채 정면



그림 16 안채 정면

3. 북교동 이돈채 가옥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71-1
- 건립: 1920년경

북교동 입구 안길 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옥으로 약 360㎡의 대지에 ‘ㄱ’자형의 안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립 연도는 주인과 인근 노인들의 고증에 의하면 192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목포 북교동 지역에 지어진 한옥은 조선 시대 이 지방의 전통 한옥에서 다소 벗어난 소위 ‘도시형 개량한옥’의 성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가령 평면구조에서도 당시 서울 지방에서와 같은 ‘ㄱ’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ㅡ’자형으로 일관된 이 지방 한옥과 크게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대청의 거실화 및 뿔마루의 복도화 등도 변화된 일면이다. 입면에서도 장혀 아래의 불발기 유리창 설치나 벽체의 방화장 구조, 미서기문 설치 등도 주목되는 구조의 사례이다.

본 가옥은 대청을 기준으로 한 실의 분화가 어느 가옥보다 돋보인다. 이 역시 개량 한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대청이나 큰 방에 비해 규모가 의외로 큰 머리방 설치나 건너 방 뒤쪽에 또 하나의 마루방 배치 등이다. 구조는 전면에만 두리기둥과 굴도리를 사용하여 집의 고급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도리 아래로는 장혀받침을 두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흘처마로 꾸몄다. 기와는 본래 한식 기와였으나 최근에 검은색 강판으로 교체했다.

2017년에 게스트 하우스로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창호를 새로 교체했고 도로변 측면에 구조물을 덧댔다.



그림 17 안채 정면



그림 18 도로변 측면 개보수 모습

4. 구 춘화당 한약방

- 소재지: 목포시 영산로 59번길 35-6
- 건립: 1929년

춘화당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한옥이다. 이 한옥이 들어선 목원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개항장과 가깝고 유달산 끝자락의 경사진 곳이어서 매립을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조선인이 들어와 마을을 일군 곳이다. 본 한옥은 비교적 규모도 크고 건물의 내력도 잘 드러나 있어 주거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건립은 '기사(己巳)'로 된 상량문이 있어 1929년에 지은 한옥임을 알 수 있다.

이 한옥의 최초 주인과 성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한때 미국 선교사가 세운 부란취병원과 제중의원(현 한옥 입구 바로 우측에 있는 '봄' 카페 자리에 있었음) 원장 등을 지낸 의사 최섭이 거주했다. 미 군정기 초대 목포 부윤, 정명여중 교장 등을 지낸 인사가 이 집의 주인이었다. 1980년대에는 이 한옥이 '춘화당'이란 한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목포에서는 춘화당으로 더 알려진 건물이다. 최근에 '목포 1935'란 상호로 한옥 호텔로 활용하고 있다.

문간을 들어서면 바로 안마당이 있고 한옥은 'ㄱ'자형으로 대지 가장자리에 앉혔다. 규모는 본채와 날개 부분 각각 정면 3칸이며 측면도 3칸이다. 전퇴에는 모두 빗마루가 놓여있고 모퉁이에 대청, 나머지는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은 잘 다듬어진 장대석 일벌대 형식이며 기둥은 방주를 사용했다. 가구는 전통 5량 가구로 전반적으로 보와 도리 등 모든 부재가 크다. 자연스럽게 흰 큰 보와 원형 대공이 인상적이다. 전면 빗마루에 미서기 유리문이 있고 곳곳에 유리창이 설치되는 등 근대풍의 요소가 곳곳에 있다. 지붕은 흙처마 팔작지붕이다.



그림 19 가옥 정면



그림 20 대청 상부 지붕틀 가구

5. 죽교동 2층 붉은벽돌집

- 소재지: 목포시 죽교동 377-1, 374
- 건립: 일제강점기

이 가옥은 죽교동 비탈진 언덕의 상단부에 위치하는 2층 붉은벽돌 가옥으로 건립 시기는 일제강점기 초 내지는 중반기 정도로 여겨진다. 이 지역은 당시 한국인 거주 마을로 주변은 모두 목조 단층 가옥들로 형성됐던 곳이다. 따라서 유독 이 가옥만 2층이고 더구나 붉은벽돌을 건축 주 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이 매우 주목을 끈다. 건축주가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 이었고 용도도 순수한 주택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유곽 건물이었다는 구전도 있어 더욱 흥미가 가는 건물이다. 현 건축주는 1980년대 중반에 이 건물을 매입했고 2010년에 내부를 현재의 모습으로 크게 리모델링했다.

건물은 장방형 평면의 2층 조적조 건물로 지붕은 우진각 지붕이다. 사용된 벽돌은 길이 170mm, 높이 58mm, 폭 110mm크기의 붉은 벽돌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벽돌보다 길이가 좀 짧은 편이다. 전면 중앙으로는 폭 2100mm, 깊이 1500mm 규모의 돌출 현관 포치를 두었고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현재는 우측 측면으로 옮겨져 있다. 2층은 방과 거실 등이 있는데 본래는 모두 일본식 다다미 방 구조였다.

창은 1층과 2층 모두에 세로로 긴 수직 창을 두었는데 2층만은 상부에 아치를 두었다. 창대와 아치에는 시멘트 몰탈로 돌출 장식을 두었다. 멀리서 보면 석재처럼 보인다. 본 건물은 비록 내부는 크게 변형이 되었지만 외부만큼은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지은 유일한 현존 2층 벽돌조 주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림 21 가옥 정면



그림 22 가옥 2층 후면

6. 창평동 남진 가옥

- 소재지: 목포시 창평동 7-3
- 건립: 1936년

이 가옥은 목포세무서 뒤쪽 도로변 모퉁이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 미곡상(米穀商)이었던 김문옥(金文玉)이 1936년에 지은 주택이다. 1897년 목포가 개항된 이후 미국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지역 유지로 성장한 인물들이 많았다. 이 주택을 지은 김문옥이 그중 가장 크게 성공한 조선인이었으며 그가 당시에 운영했던 붉은 벽돌로 지은 ‘전남정미소(全南淸米所)’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 광복 후에는 호남신문과 목포일보 사장, 5대 국회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바로 유명 가수 남진(본명: 김남진)의 부친이다. 1963년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가 1972년 남진이 다시 사들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옥은 약 660㎡ 대지에 ‘ㄱ’자형으로 지어진 규모가 꽤 큰 일본식 가옥(우측 일부는 2층)이다. 내부는 많이 개보수가 되어 건립 당시의 모습을 보기 어려우나 곳곳에 일식 가옥의 구조는 남아 있다. 한편 가옥 건립 시에 함께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는 돌담장과 정원(연못, 석조물 등)만큼은 지금도 잘 남아 있다. 전면 돌담은 모두 6켜로 쌓았는데 지대석과 상부 두겹은 잔다듬, 중간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있다. 한편 측면담은 5켜로 모두 거친 흑두기 마감으로 되어있다. 근대기 목포 주택 담장은 대부분 유달산 인근의 응회암으로 축조하였는데 현재도 북교동, 죽동 등 한국인 마을 가옥에 원형 돌담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본 가옥의 담장은 규모, 구조, 쌓기 방식 등 여러 면에서 가옥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다.

이 가옥은 건너편 정미소 건물과 함께 근대기 목포 한국인 재력가의 삶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림 23 가옥 전경



그림 24 전면 담장

7.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1)

- 소재지: 목포시 양동 86-1
- 건립: 1900년대 초

목포 정명여자학교 경내에는 2동의 구 선교사 사택이 있다. 2동은 29m의 거리를 두고 하나는 중학교 도서관으로, 다른 하나는 정명여자학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교사 사택의 건립 연도는 1905년에서 10년경으로 여겨진다. 이는 당시의 여러 여건상 제1진이었던 배유지 선교사보다는 2진격인 하위럼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한 집이 아닌가 한다. 1898년에 건립된 최초 예배당은 당시 배유지 선교사의 사택을 겸하고 있었다. 한편 현 도서관 건물은 양동교회 제5대 하위럼 목사(Harrison, 1908~1909)의 사택으로, 100주년 기념관은 1910년경에 하딩선교사가 이 건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10년에 일본 엽서 제작국에서 발행한 사진 상에도 2동의 석조 건물이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상황으로 보아 선교사 사택의 건립 시기는 1910년 이전쯤으로 여겨진다.

구 선교사 사택(1)은 1990년 2월 28일 화재로 전소되어 석조 벽체만이 남아 있던 것을 2001년에 지붕과 창, 그리고 내부까지 전면 보수를 단행하였다. 이 건물은 화재 직전 몇 개월을 제외하고 교장 사택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석조 건물이다. 지하층은 경사 지형을 이용해 우측 일부만 꾸몄기 때문에 지상 층 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 평면형은 X축으로 약간 긴 단순한 장방형(1:1.35)이며 후면에는 텃댄 것처럼 보이는 작은 돌출부가 있다. 전면 중앙으로는 2층까지 2개의 기둥을 돌출시킨 출입 포치가 있다. 1, 2층 내부는 2001년 보수 시 각각 음악실과 기념관 용도에 맞게 모두 통 칸으로

처리하였다. 보수 이전의 내부는 1층에 방 2개, 응접실, 주방 및 식당, 세탁실이 있고 2층에는 방 4개와 화장실이 있었다. 지하층은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했다.

사택 외형은 벽체의 변화나 차양 등의 시설물 없이 전체적으로 단순하다. 이는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형태를 그대로 입면화하였기 때문이다. 외부는 거친 흑두기(rustication)로 처리하여 비교적 장중한 느낌이 든다. 사용된 석재는 응회암이며 크기는 건물 전후, 좌우면 모두 높이 300mm, 폭(깊이)은 240mm로 같으나 길이만큼은 400mm내외(380, 400, 420, 440 등)의 크기를 사용하였다. 쌓기 방식은 바른 층 쌓기며 줄눈은 25mm정도로 거의 일정하다. 창문 위·아래로는 창틀 폭보다 약 90mm 정도 좌우로 각각 돌출되게 화강석 통돌로 인방을 설치했고 높이는 약 300mm정도다. 인방의 마감 처리는 잔다듬으로 되어있다.

본 건물은 2001년 대수선 시 건물 벽면 4귀퉁이 안쪽에 철골기둥을 세우고 각층에 철판으로 바닥판을 만들었다. 철골기둥은 현재 인테리어로 마감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붕틀은 철판 박공식 구조이며 지붕 재료는 밤색 아트팔트 싱글로 마감했다.



그림 25 건립 초기 선교사 사택 전경. 좌측이 현 100주년기념관이고 오른쪽은 도서관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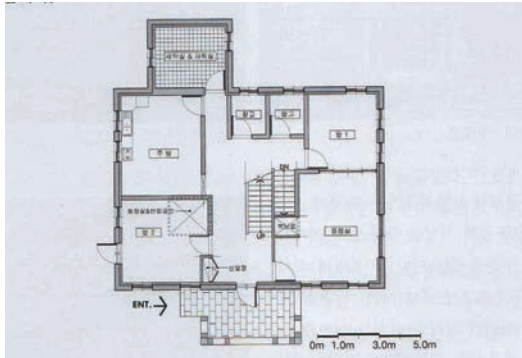


그림 26 1층 평면도(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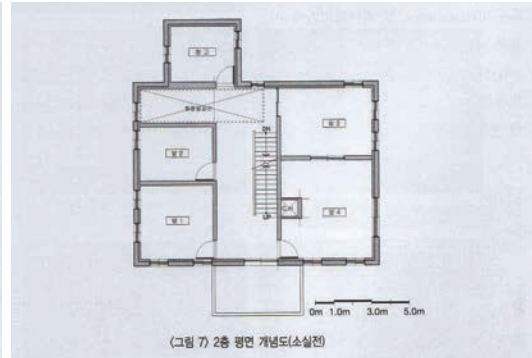


그림 27 2층 평면도(추정)

이 도면은 1990년 화재 전의 내부 구조로 학교 관계자의 고증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건립 초기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림 28 사택 정면



그림 29 사택 정-우측면



그림 30 사택 정-좌측면

8.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2)

- 소재지: 목포시 양동 86-1
- 건립: 1900년대 초

구 선교사 사택(2)은 정명여자 중학교 본관(교사동) 바로 앞에 위치하며, 현재 정명여중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지상 2층의 석조 건물로 면적은 1층 247.12㎡, 2층 147.95㎡이다. 현재 본관과 2층에서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도 철근 콘크리트조로 증축이 되어 있어 본래의 전체 모습을 추정하기 어렵다. 사용된 석재나 쌓기 방식 등은 구 선교사 사택(1)과 거의 같다.



그림 31 사택 배면



그림 32 사택 정면

9. 중앙동 무역업자 가옥

- 소재지: 목포시 중앙동 3가 1-3
- 건립: 1920년

이 가옥은 일본식 주택으로 구 동양척식 목포지점 맞은편 네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1913년에 터를 잡기 시작하여 1920년에 완공된 집으로 당시 무역업(건축 자재, 농약 등)을 하는 일본인이 직영으로 지은 집이다(건축물 대장에는 사용 일자가 1935년 입). 대지 면적은 약 561㎡이다. 이 가옥은 건물의 규모나 형식면에서 일식 가옥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건립 이후 오랫동안 본래의 모습을 유지해 오다가 2006년에 내부를 전면 개수 하여 현재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 장식 창, 서까래 등 본래의 모습도 일부에서 볼 수 있다.

본래의 건축 모습(1994년 필자 조사)을 보면 1층에는 방 3개와 거실, 서재, 부엌, 욕실, 변소 등을 두었고 남측 전면으로는 미서기 유리창을 단 복도식 마루를 두었다. 거실과 전면 복도, 그리고 서재로 가는 전실은 모두 장마루 깔기로 되어 있고 천장은 ‘井자’ 띠를 댄 널빤지 마감으로 되어 있다.

2층은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하나는 ‘다다미’ 방으로 되어 있다. 2층 전면에는 발코니 형식의 마루를 설치하고 유리문을 달았다. 지붕은 일식 기와가 얹혀진 팔작 형태이며 거실 쪽은 이중처마로 되어있다. 벽체 마감은 1층은 회반죽 마감이나 2층은 가로비늘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33 가옥 전경



그림 34 보수 전 가옥 전경(1994년 필자 촬영)

10. 중앙동 2층 일식 가옥

- 소재지: 목포시 중앙동 3가 5
- 건립: 일제강점기 초

본 가옥은 현 유달초등학교 앞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구조의 일본식 가옥이다. 건립연대는 바로 근방에 있는 일본인 심상소학교 설립과 주변의 거리 조성 시기 등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초쯤으로 여겨진다.

평면구조는 정방형 형태로 도로변에 바로 난 출입구를 들어서면 작은방과 부엌이 배치되고 좌측으로는 거실과 큰방이 연결된다. 이 가옥은 규모가 작은 관계로 다른 일식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도가 없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중앙에 두었고 2층은 모두 통간으로 방하나만 두었다. 출입구 상부의 삼각형 차양 등 건립 초기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그림 35 가옥 정면



그림 36 가옥 2층 배면

제3절 공공 건축

공공 건축은 관공서나 공공 단체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된 공공성(公共性)이 있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조선 시대 지방의 공공 건축으로는 객사와 동헌, 이청, 작청 등 다양한 목조 한옥이 주로 읍성 내에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관아 건물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훼손되고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된 일부만 남아 있다. 목포는 조선 시대 무안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건물들은 당초부터 건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목포에는 수군의 진영인 목포진이 1439년(세종 21)에 설치되어 1895년까지 지속되었고 일부 건물과 성벽은 개항 무렵까지 있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외국의 여러 나라가 영사관 등 공공 건축을 우리나라에 건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은 서양 각국에 비해 개항장 중심으로 빠르게 청사를 마련했다. 개항 초기인 1880년대까지는 청사 건축이 어려웠던 관계로 대개 한옥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는데, 목포 역시 목포진의 한옥⁰²⁾을 임시 영사관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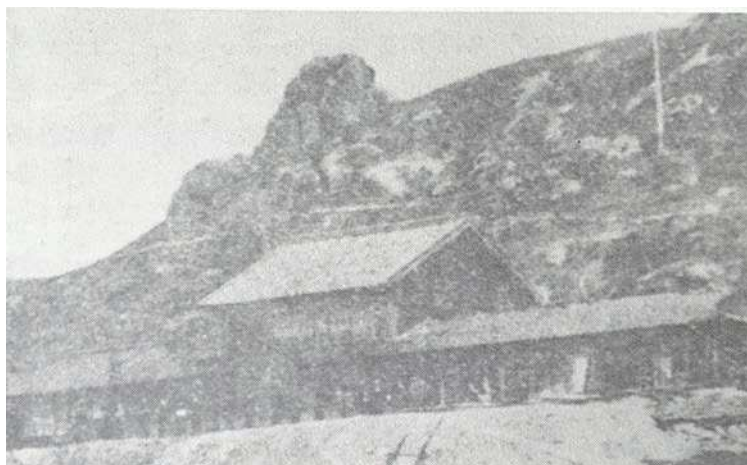


그림 37 1898년 2월에 건립한 세 번째 일본영사관
자료: 김정섭, 『국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66쪽.

02) 이 건물은 목포진 내에 있었던 정면 5칸 규모(중앙에 대청, 양측에 온돌방)의 동헌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초대 영사 구수삼랑(久水三郎)이 목포에 온 1897년 12월 당시 이 건물은 목포진의 기능이 거의 없어진 터라 건물 역시 몹시 훼손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건물 상황이 『목포지』(1914, 김정섭 역)에 자세히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중앙에 약 5평의 판자 칸막이가 있고 좌우로 2, 3의 온돌방이 있었으나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낡은 집으로 벽은 허물어지고 기와는 무너져 거의 폐가에 가까우니 흡사 사람이 없는 산중의 폐사에 들어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더구나 사무실, 응접실, 식당, 취사장 또는 침실을 겸했던 마루는 사방에 벽이 없어 판자를 대고 거적을 둘러 겨우 눈비를 막고, 그 가운데는 서 너 창 의 돛자리를 깔고 큰 책상을 하나 놓아 사무용으로도 쓰고 식탁으로도 쓰였다. 화로는 조선의 질화로로 숯불을 피워놓고 관원은 앉아서 사무를 보았으니 곁에는 물통이 있고 솔과 냄비가 있고 숯섬과 쌍교리의 농민이 갖다 준 무가 있고 일장기는 적당한 계양대가 없어 청죽으로 대용했으며 밤에 잠 잘 때는 창문이나 출입문에는 배를 둘러쳐서 겨우 눈비를 가렸으나 바람이 세게 불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맡에 눈이 하얗게 쌓이는 일까지 있었다.”

목포항이 개항되자 영국, 일본, 러시아 등은 목포에 조계지를 확보하였고 그 중 일본이 제일 먼저 목포진 한옥에서 첫 영사 업무를 개시했다.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지낸 후 두 번째로 당시 일본인이 지은 5칸 정도의 바라크집을 빌려 청사로 사용하였으나(1897년 11월 18일) 이 또한 몹시 낡고 불편하여 세 번째로 청사를 옮기게 된다(1898년 2월). 이 건물은 당시 목포에 처음 등장한 규모가 비교적 컸던 일본식 기와가 올려진 2층 목조 집으로 우체국과 경찰서 기능을 함께 갖춘 일종의 종합청사였다.

세 번째 청사에서 3년 정도를 지낸 후 일본 정부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 영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영사관 건축을 계획하였는데, 그게 바로 현재 유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목포 근대역사관이다. 즉, 개항 이후 불과 3년 여 만에 호남 일대 식민통치의 총본산 건물을 지었다. 당시 제대로 도시 구조가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상당히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청사를 지은 것은 목포를 기점으로 영원히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영사관 이외에 목포경찰서도 1907년 5월에 신축 청사를 마련하였고(구 초원호텔 자리) 이어서 목포우체국, 부산세관 목포지서, 목포역 등 여러 공공 기관이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였다. 현재 목포에 남아있는 공공청사로는 구 일본영사관 외 5동 정도만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단체가 지은 건물로 현존하는 대표적 건물로는 목포 구 청년회관이 있다. 192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민족계몽운동이 일어났는데 목포에서도 청년회를 조직하였고 그 활동의 공간으로 1925년에 건물을 마련했다. 이외 사회봉사 기관인 공생원, 천주교에서도 목포에 청사를 지었다. 두 건물 모두 현존하며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은 2012년 10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림 38 일제강점기 일본영사관(중앙 건물)과 전면 중앙가로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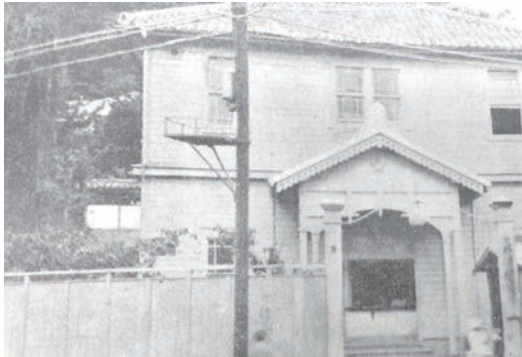


그림 39 목포경찰서.(1983년에 촬영)
자료: 김정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235쪽.



그림 40 영사관 바로 아래에 있었던 구 목포우체국
자료: 김정섭, 앞의 책, 242쪽.



그림 41 중앙 2층 건물이 十八은행(현 영란회집 주차장)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42 부산세관 목포지점
자료: 김정섭, 앞의 책, 264쪽.



그림 43 전남 수산시험장(1991년에 촬영)
자료: 김정섭, 앞의 책, 3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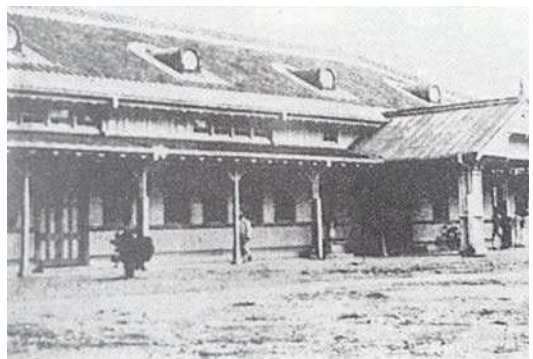


그림 44 구 목포역(1979년에 철거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자료: 김정섭, 앞의 책, 284쪽.



그림 45 구 남교파출소



그림 46 구 산정파출소



그림 47 구 역전파출소



그림 48 구 대성파출소

1910년 10월 일본의 총독정치 시작으로 경찰 제도도 변하여 목포경찰서 관할구역에 파출소(派出所)와 주재소(駐在所)등을 설치했다. 사진 상의 4곳(남교, 산정, 역전, 대성)파출소는 원형, 마름모 등의 독특한 형상으로 설계된 석조 건물로 1990년대에 모두 헐렸다. 건립은 일제강점기로 추정된다(사진: 1994년 필자 촬영).

1. 구 목포 일본영사관

- 소재지: 목포시 대의동 2가 1-5
- 건 립: 1900년

구 목포 일본영사관은 1900년 1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완공된 건물이다. 『목포지』(1914)에 의하면 당시 개항장 영사관 중에서 최고로 공을 들여 지었으며 중국 샤먼(廈門, 복건성 소재)의 영사관과 쌍벽을 이룬 건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건물은 근대 일본 침략의 상징성, 독특한 건축 조형성 등이 인정되어 일찍이(1981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건물은 영사관으로 시작하여 1906년 2월 1일부터 목포이사청, 1910년에는 목포부청, 그리고 해방 후인 1947년부터는 목포시청, 1974년에는 시립도서관, 1990년부터는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다가 2015년부터는 목포근대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구조는 2층 조적조 건물이다. 평면은 중앙으로 홀 및 계단실을 두고 좌우로 실을 꾸민 대칭성 장방형이며, 중앙 전면부에는 돌출된 목조 포치(Porch)를 두었다. 중앙 홀 후면과 우측 끝으로는 단층 텃댄 구조로 각각 화장실과 창고를 두었다.

건물의 정면은 대칭성의 평면에 맞게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의 두께는 1층 외벽 48cm, 2층 내·외벽은 39cm로 모두 공간 쌓기를 하였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벽돌로 허리돌림띠를 두어 층간의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띠는 2층 상단부 지붕 처마선 아래에도 있다. 한편 1, 2층 창호 상하 단에는 백색벽돌로 수평 띠를 둘러 붉은색 바탕 벽체에 포인트를 두었다. 본 건물에 사용된 붉은 벽돌은 1984년 화장실 보수시 ‘대판(大板)’이라고 새겨진 벽돌을 발견함으로써 당시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벽돌 크기는 길이 225mm, 너비 103mm, 두께 60mm이다.

창은 수직 창으로 그 외부 형태는 1층은 결원아치, 2층은 반원아치로 되었고 창대와 아치의 이맞돌과 아치받이 등은 석재로 마감하였다. 또한 아치 벽돌 중에는 흰색이 번갈아 끼워져 있어 벽면의 흰색 수평 띠 벽돌과 함께 전체적으로 장식의 효과를 갖는다.

지붕 중앙부에는 그리스 양식의 우뚝 솟은 목조 박공 장식을 주어 파사드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유도하였다. 지붕은 일본식 기와가 올려진 우진각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르네상스 형식에 절충주의가 가미된 상당히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건축으로 여겨진다. 또한 실내 각 방에 설치된 대리석 벽난로와 정교한 천정 몰딩도 주목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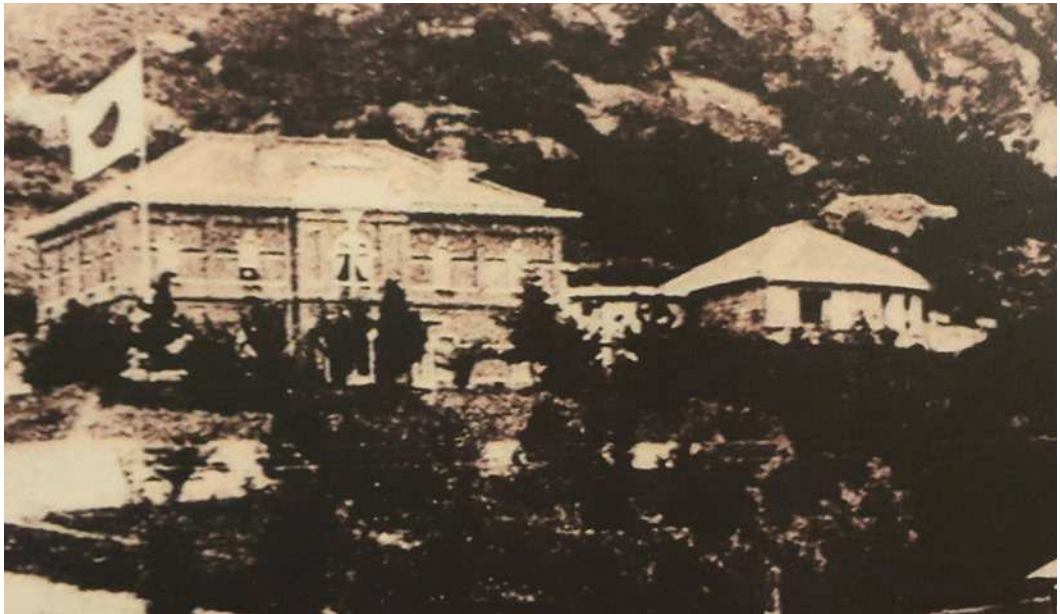


그림 49 1909년 영사관 전경(우측의 부속 건물은 현재 없음)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50 현재 정면 모습



그림 51 좌·후측면

그림 52 좌측면 창호 차양

그림 53 2층 천장과 창호 몰딩

그림 54 영사관 각 실에는 모두 9개의 벽난로가 있었다. 2층에 있는 본 난로와 거울이 그 중에서 가장 원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2. 구 목포부청 서고

- 소재지: 목포시 대의동 2가 1-5
- 건립: 1932년

이 건물은 구 목포 일본영사관 부지 내 후면 좌측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건립 당시 구 목포 일본영사관 건물이 목포부청(1910년 10월 1일 개청)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서고를 지은 것이다. 근대기 일본에서는 석조 창고가 유행했는데 본 건물도 그 영향의 하나로 여겨진다. 건립 시기는 '상량식소화칠년팔월길일목포부청시공자목포형무소(上梁式昭和七年八月吉日木浦府廳施工者木浦刑務所)'로 기록된 상량문이 있어, 1932년에 공사는 목포형무소에서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판재에 쓴 상량문은 지붕틀 포스트 대공에 걸려있다. 현재 목포 문화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형, 지붕 트러스 구조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건축 구조는 박공지붕의 2층 석조 건물이다. 정면과 측면비가 1:2 정도로 종으로 매우 길며 2층은 우측 외벽에 설치된 계단(폭 950mm)으로 오르게 되어있다. 석재는 처마까지 모두 22켜로 쌓여져 있으며 상부 박공 면까지 석재로 마감되어 있다. 돌 표면은 모두 거친 흑두기로 되어 있으나 전면만은 수직으로 일부 잔다듬처리를 하였고 양측 모서리도 둥글게 잔다듬을 하였다. 석재 규격은 높이가



그림 55 건물 정 우측면



그림 56 건물 정·좌측면



그림 57 지붕목조 트러스

250mm으로 같으나 길이는 520, 800, 1,320, 1,860, 1,980, 2,350mm 등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석재 가공 및 쌓기 등이 매우 우수하다.

지붕틀은 목조 ‘스자형’ 트러스 구조다. 보는 1,800mm 간격으로 5개가 단변에 걸려있고 규격은 폭 120mm, 춤 150mm, 길이 5,770mm이다. 포스트대공의 규격은 120×120×1,420mm이다.

3. 구 무안군청 서고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78-1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무안군청 서고로 지어진 건물로 현재 옛 신안군청 자리(현 요양원)우측 가 장자리 쪽에 위치한다. 이 자리는 목포개항 무렵 무안감리서가 있던 곳이다. 감리서는 개항장에서 발 생하는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정부의 관청으로 1897년 개항 초기에는 목포진 내 일부 한옥이 감 리서로 사용됐고 1899년 6월에 이쪽으로 단독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감리서 건물이 언제 헐 렸는지는 알 수 없다.

무안군은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시 지도군 전역과 진도, 완도군 일부까지 포함하여 새롭게 신설 된 군이다. 무안군청 청사는 2층 목조건물이었으나 1970년대 신안군청 신청사(철근콘크리트조)가 같은자리에 들어오면서 없어졌다. 신안군 청사는 2011년 4월에 압해도로 이전했다.

건물은 목포부청 서고와 비슷한 Y축으로 긴 장방형이며 돌 쌓기 등 형식은 비슷하다. 규모는 단층 이다. 현재 이 건물은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참사랑요양원의 건강 회복실(소금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구조는 박공지붕의 단층 석조이며 지붕처마까지 모두 13켜로 쌓여져 있다. 석재는 긴 장방형이며 마 감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있다. 잔다듬 석재도 창호 둘레와 박공의 페디먼트 둘레, 상·하부 돌림띠 등



그림 58 정면(목재로 가설 출입부를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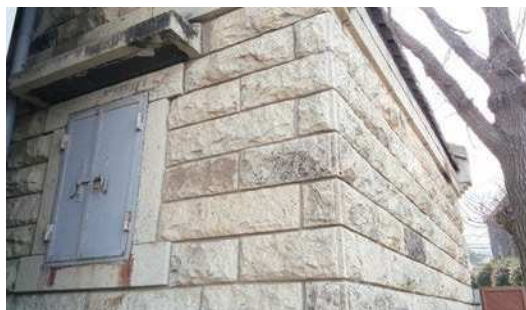


그림 59 후·좌측면과 외부 철제 창

에 들어가 있다.

이 서고는 비록 규모도 작고 단순하지만 목포부청 서고와 함께 국내 얼마 안 되는 근대기의 서고 건축으로서 가치가 높다.

4. 목포 구 청년회관

- 소재지: 목포시 남교동 80-1
- 건 립: 1924년

목포 구 청년회관은 ‘목포청년회’ 활동을 위해 건립된 공공건물이다. 목포청년회는 1920년 5월에 목포청년들이 민족운동을 위해 창립한 단체로 주로 강연 및 토론회, 잡지 간행, 교육 등을 하였다. 1927년 신간회 목포지부 창립식이 이곳에서 개최 됐고, 1943년 팔봉 김기진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조선청년』이란 잡지 창간호에 박화성의 ‘헐어진 청년회관’이란 단편소설이 실렸다가 전문 삭제되는 사건도 있었다.

현 건물은 1924년 9월 16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0일에 마쳤는데 당시 신축 공사비는 목포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충당했다. 당시 건물 준공에 대해 신문에서도 기사를 냈다.⁰³⁾ 건물 위치는 유달산 북동쪽 산록의 거의 끝 부분 평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마을이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어떻게 사유화 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한때 화장품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도

03) 『동아일보』 1925. 01. 09. “木浦青年會館竣工 / 昨年 五月頃 木浦青年會 幹部 諸氏の 活動으로 各 人士의 熱烈 同情이 八千餘圓의 基金을 造成하였으므로 昨年九月初에 府內 南嶠洞 中央에 基地를 擇定하고 石材平家 五十七坪의 大建物を 新築중이던 바 지난 十二月三十日에 竣工하였다고(木浦).” 목포문화원, 『목포근현대신문자료집성』, 2000, 293쪽.

한다. 그 후 1954년 8월부터 2010년경까지 임마누엘 예수교에서 인수하여 목포제일교회로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1994년 3월에는 교회 측에서 외부 석조 벽체만 남겨놓고 대수선을 하였는데 당시 내부와 지붕 구조 등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크게 변형시켰다. 이 건물은 목포시에서 인수하여 2011년에 공연 예술 공간인 '남교소극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건물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1층 석조다. 당시 집회 시설로 건립된 건물답게 단변 대 장변의 비가 1:1.76이다. 외벽은 석조였던 관계로 비교적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사용된 석재는 응회암으로 규격은 폭과 높이가 300mm내외이고 길이는 320mm에서 560mm사이로 일정치 않다. 현재 지반에서 벽체 상부까지 정면과 우측면에서는 16단, 좌측과 후면에서는 17단이 보인다. 외부 석재 마감은 거친 흑두기다.

출입구는 정면 중앙과 양 측면에 모두 3개의 아치형 출입구를 두었다. 창호는 단순한 장방형의 수직창으로 정면에 2개, 좌우측에 각각 5개, 후면에 2개를 설치했다. 지붕 구조는 본래 전통 목조 한옥 형식(3량가)이었으나 지금은 철재 트러스로 개수가 됐고 지붕 재료도 기와가 올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강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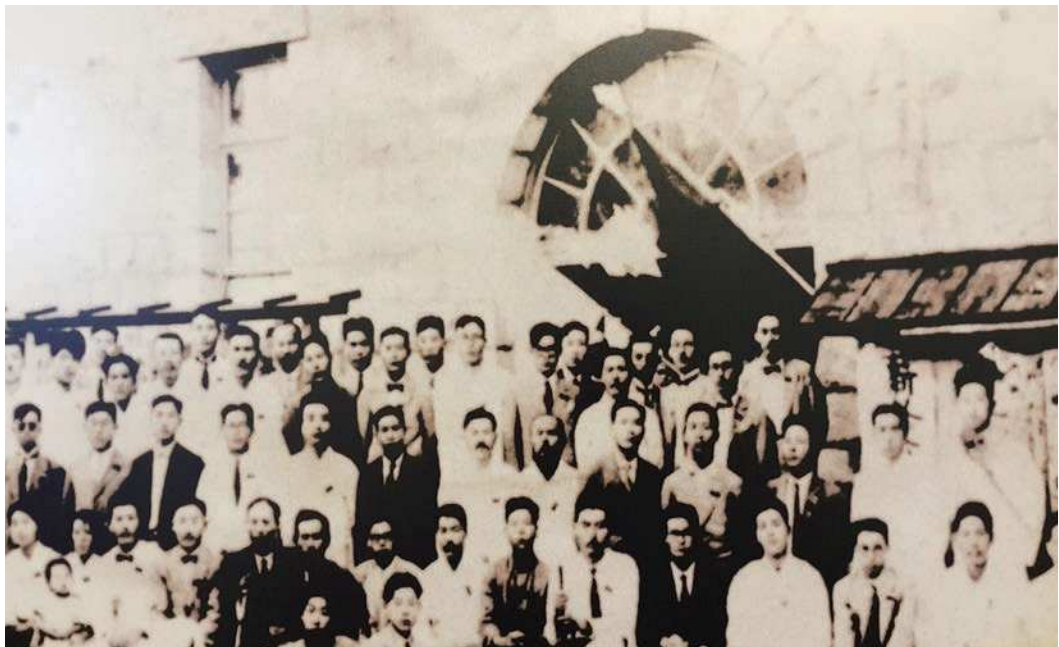


그림 60 1927년 6월28일 청년회관 배경으로 신간회 창립대회 기념 촬영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61



그림 64



그림 62



그림 63



그림 65

그림 61 정면

그림 62 우측면

그림 63 정면 출입구

그림 64 1994년 대수선 시 벽체만 남은 모습

자료: 제일교회.

그림 65 대수선 전 본당 내부

자료: 제일교회.

5. 공생원 윤치호·윤학자 기념관

- 소재지: 목포시 죽교동 473
- 건 립: 일제강점기

목포 공생원은 사회복지 시설이다. 발단은 1928년 ‘거지대장’으로 불렸던 윤치호가 7명의 부모 잃은 아이들과 함께 현재의 유달산 후면 끝자락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공생원의 시작이다. 그는 1938년 봉사정신이 각별했던 일본인 여성 다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 윤학자)⁰⁴⁾와 결혼하여 평생동안 부인과 함께 공생원을 국내 최고의 복지 시설로 키웠다. 해방 이후 1951년에 광주에 식량을 구하러 갔던 윤치호가 행방불명되었으나 윤학자는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공생원을 맡아 원생들을 보살폈다. 그 공로로 1962년 문화훈장을 받고 1965년 제1회 목포 시민상을, 1968년 일본 황실에서 남수포장을 받는 등 민간대사로서 한일가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생원은 한국 사회 복지의 뿌리가 되어 현재까지 4천여 명의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랐다.

본 건물은 공생원 설립 초기에 지어진 건물 중 현재 유일하게 전체가 남아 있는 건물이다. 그간 아동숙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 2012년부터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횡으로 긴 단순한 방형의 단층 석조 단층 건물로 외부 석조 벽체 만큼은 건립 초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사용된 석재는 옹회암으로 규격은 높이 380mm에 길이는 300, 420, 520, 560mm 등으로 다양하다. 처마까지는 모두 11단으로 쌓았고 마감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 있으나 창대와 상인방, 그리고 하부와 상부의 각각 2열은 잔다듬으로 하여 입면에 변화를 주었다. 창은 단순한 방형의 수직 창을 설치했다. 지붕은 우진각 형으로 본래 일식기와가 올려져 있었으나 근래에 그와 유사한 강판으로 교체하였다.

04) 윤학자(1912~1968): 1912년 일본 고치현에서 태어나 7살 때 조선총독부 관리로 근무하던 아버지를 따라 목포에 왔다. 그는 목포고등여학교를 졸업 후 정명여학교 음악 교사로 3년여를 근무하기도 했다. 그 후 스승의 권유로 공생원에 자원 봉사자로 갔다가 평생 공생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됐다. 그의 장례는 목포시민장으로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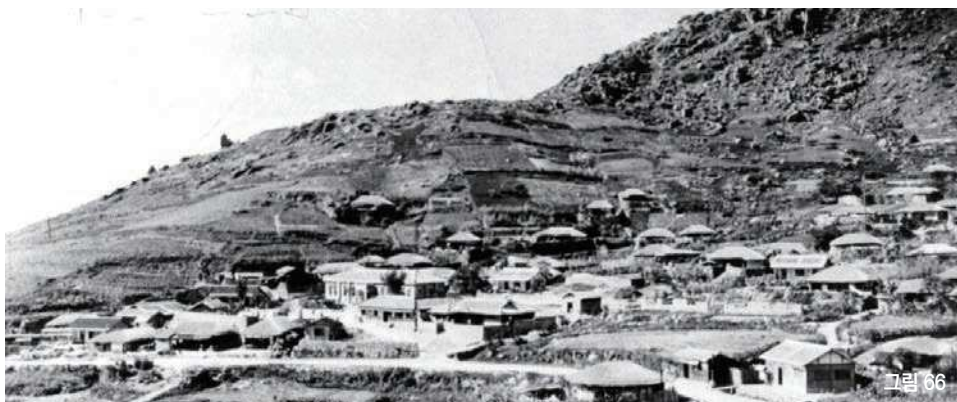


그림 66



그림 67



그림 68

그림 66 공생원 설립 초기 유달산 동쪽 기슭 전경. 좌측 편 중앙 큰 건물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공생원 교회다. 현재의 기념관 건물은 그 후에 지어졌다.

그림 67 일제강점기 말에서 50년대 사이에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생원 전경. 우측 큰 건물이 아동숙사였던 현 기념관 건물이다. 벽체 구조와 창호 위치 등은 현재와 같으나 처마선 부분에서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그림 68 일제강점기 말에서 50년대 사이에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생원 전경. 좌측 우진각 지붕 큰 건물이 교회. 그 우측의 기와집들은 아동숙사다.

자료: 그림 66~68, 공생원.



그림 69



그림 70



그림 71

그림 69 기념관 정면

그림 70 본래의 석조 아치(현관 포치)를 살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현 교회 모습

그림 71 기념관 배면

6. 목포시사

● 소재지: 목포시 죽교동 330-3

● 건립: 1907년

시사(詩社)란 시를 짓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인 단체를 일컫는다. 1920년에 초정 김성규, 무정 정만조 등이 참여하여 ‘유산시사’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고 1933년에 ‘유산정’이라는 건물을 지었다. 1961년 ‘보인시사’라는 또 다른 단체와 통합하여 ‘목포시사’가 되었다.



그림 72 목포시사 전경

목포시사는 전국 각처에서 200여 명이 매년 춘추로 2회 걸쳐 백일장을 개최하여 한시의 명맥을 오늘에까지 전수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사이다. 이곳 시사에는 무정의 문집을 비롯하여 구한말의 전적과 많은 한시 현판 등을 소장하고 있다.

건물은 1933년에 건립된 정면 4칸, 측면 1칸 반으로 단순한 일자형 한옥이다. 내부는 중앙 2칸은 우물마루를 깔 대청이며 그 양 측면은 온돌방으로 꾸몄다. 전퇴에는 모두 마루를 깔았다. 구조는 원형기둥을 세운 민도리집 형식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제4절 학교 건축

조선 시대 지방의 교육기관으로는 공립인 향교와 사립인 서당, 서원 등이 있었다. 이 교육 기관은 19세기 말부터 점차 그 기능이 쇠퇴되고 새로운 근대 학교가 서울, 평양, 인천 등 큰 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근대 학교는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함께 건립된 기독교계의 학교가 처음에는 주류를 이루었고 이어서 관제, 지방 유지가 세운 사학 등이 있다. 1885년에 세운 서울의 배재학당(감리회)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학이며 다음해에는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도 설립됐다.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목포의 근대 학교로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가 있다. 이 두 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목포선교부에 의해 1903년에 설립됐다. 개항 무렵 목포에 정착하기 시작한 선교사들은 선교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교육 사업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남녀를 분리하여 여학생을 위한 정명학교, 남학생을 위해서는 영흥학교를 세웠다. 영흥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양동교회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었고 정명학교도 양동교회와 가까운 곳에 설립했다. 개항 후 얼마 되지 않은, 아직도 어촌의 때를 벗지 않은 시골에 서양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운 것이다. 현재 정명여학교 교정에는 선교사 사택으로 쓰였던 석조 건물 2동과 교사 일부가 남아 있다.

영흥학교는 1903년 9월 9일에 선교사 배유지가 유래춘, 임성옥 성도 등과 함께 ‘영흥서당’ 설립을 계기로 발전을 한 남학교다. 당시 유래춘을 교원으로 하여 한문, 국어, 성경 과목을 가르쳤다. 이 학교는 1980년에 목포시 상동으로 학교 전체가 이주하였다. 교정에 있던 교사는 모두 이주하여 현재는 사진상으로만 옛 교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옛 교정에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림 73 정명여학교 고등과 1회 졸업생 일동(1914년). 중앙이 유애나 교장.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18쪽.



그림 74 일제강점기 영흥학교 교사 전경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411쪽.



그림 75 영흥학교 조례 모습. 1950~1965년 사이 촬영. 좌측 건물
이 교사동. 상단 중앙 건물이 양동교회.
자료: 영흥학교 홈페이지.

한국인과 일본인의 주도로도 학교가 설립됐다. 위치는 각국 주민이 주로 거주했던 북교동과 유달동이다. 한국인 주도로 설립 된 최초의 학교는 목포공립보통학교(현 북교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본래 1897년 개항이 되던 해에 무안읍 무안향교 내에 설립됐던 무안공립학교를 당시 목포의 유지 김봉규의 노력으로 1901년에 목포로 이전한 것이다. 『목포부사』(1930)의 기록에 의하면 1930년 4월 말 당시 학생 수는 1,449명(남 1,071명, 여 387명)이었고 건물은 교사(벽돌조 2층, 단층 목조)와 단층 벽돌조 강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학생 수와 시설 규모로 보아 당시 학교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학교는 해방 이후 북교초등학교로 역사가 이어졌으나 당시에 지어진 건물은 모두 철거되고 없다.

일본인은 개항 직후부터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였는데 당시 영사관이나 거류민들은 학교를 세울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부산, 인천, 경성, 원산 등 기 개항지의 선례에 따라 불교 사원이 거류민 자녀의 교육을 맡았다. 마침 목포에는 1898년 4월에 설립한 자국의 동본원사 목포지원이 있어 초대 주지 서산각유사(西山覺流師) 주도로 1898년 11월에 목포심상고등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1901년 12월까지 동본원사 목포별원에서 관리하였고 그 이후로는 거류민회에서, 다시 1914년 4월부터는 목포부에서 학교를 경영하였다.

학교 설립 초기 42명이었던 학생 수가 일제강점기 중기인 1930년에는 조선인 30명을 포함하여 모두 1261명(남 680, 여 583)으로 학교가 커졌다. 이는 당시 목포공립보통학교와 학생 수는 거의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유달초등학교가 된 이 학교에는 옛 교사는 모두 없어지고 1929년에 건립된 2층 조적조 강당만 남아 있다.

일본인은 공립고등여학교도 1920년 5월 15일에 설립했다. 이 학교는 실과 고등여학교로 출발했으나 1921년 4월에 고등여학교로 승격이 되었다. 위치는 당시 경동 2정목 2번지(현 경동)로 현재 목포여자중학교 자리다. 목포여자중학교는 1946년 9월1일에 공립으로 개교한 학교로 과거 일본인이

세운 학교에서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다.

한편 처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이 정식으로 함께 수업 받는 학교도 1920년 6월 1일에 설립됐다. 설립 목적은 당시 중등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일본이나 경성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함도 있었으나 한편으로 한일 융합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 당시 교명은 목포공립상업학교였고 위치는 대성동 40번지(현 목포여고 자리)였으며 학생 수는 1930년 당시 5학급 228명(한국인 91명, 일본인 137명)이었다. 이 학교는 1939년 7월에 대성동에서 현 용당동 옛 목포상업고등학교로 자리로 옮겼다. 해방 이후 1946년 9월에 목포공립상업중학교, 1953년 4월에 목포상업고등학교로 변경이 된 후 2011년 3월부터는 인문계인 전남제일고등학교로 새로 태어났고, 다시 2014년 목상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해방 후인 1953년과 54년에 근대성이 잘 드러나 있는 두 동의 대형 교사가 각각 건립됐다. 즉 문태고등학교 본관과 목포사범학교 본관이다. 둘 다 석조 건축인 두 건물은 역사와 조형성이 돋보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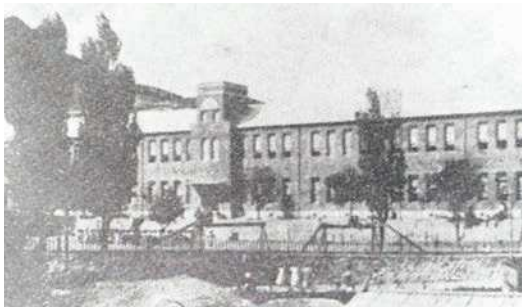


그림 76 구 목포공립보통학교 교사(현 목포북초등학교 자리)
자료: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시의 문화유적』, 1995, 303쪽.



그림 77 구 목포공립상업학교 교사(현 목포여고 자리)
자료: 김정섭, 앞의책(2011), 403쪽.



그림 78 구 목포공립상업학교 교사 정면
자료: 목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303쪽.



그림 79 구 목포공립고등여학교 교사(현 목포여중 자리)
자료: 김정섭, 앞의책(2011), 400쪽.

1.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교사

- 소재지: 목포시 양동 86-1
- 건 립: 1920년대

목포 정명여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목포 선교부에 의해 1903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초대 교장으로는 여선교사인 서여사(Miss F.E.Straeffer)가 취임하였다. 1904년 3월 초대 교장 서여사가 사임한 후 약 2년간 휴교 상태에 있다가 1906년 4월 변여사(Preston)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학교의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본격적인 학교의 발전은 1912년 1월 약 8천 원의 공사비로 석조 2층(현재 없음) 건물을 신축한 이후부터였다. 1912년에 이어 1922년에도 석조 교사 1동이 신축되었고 광복 후인 1961년에 그 옆으로 또 다른 석조 교사 1동이 지어졌다. 이 두 건물은 1966년에 함께 해체되어 현재와 같은 3층 규모의 큰 건물로 다시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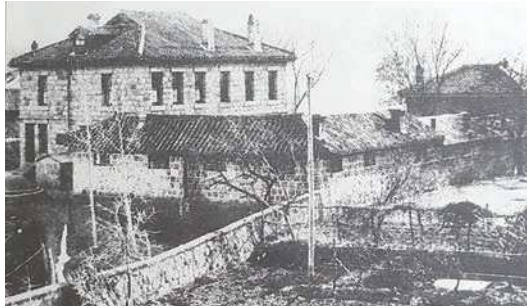


그림 80 정명여학교 초기 학교 전경. 좌측 큰 건물이 1912년에 지은 교사동이고 우측 일부 보이는 건물이 유애나관(교장 사택)이다. 중앙의 단층 기와 지붕 건물은 기숙사다.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4쪽.



그림 81 현 체육관 자리에 있었던 붉은벽돌 2층 구조의 제5대 (1911.3~1919.3)유애나 교장 사택. 2003년에 헐렸다.

자료: 1995년 필자 촬영.



그림 82 1965년까지의 학교 모습. 오른쪽 건물은 이봉환 교장 재임 시(1956.11~1965.2)인 1961년에 지은 교사다. 두 건물은 해체되어 1966년에 아래 모습(현)으로 새로 건축됐다.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4쪽.



그림 83 1966년 새롭게 건축된 교사 전경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4쪽.



그림 84 현 교사 전경

어났다(석재는 옛 건물 것을 그대로 사용). 현재 이 건물 좌측 편으로는 석조 건물과 연결된 철근콘크리트조 출입구와 계단실을 두었다. 건물에 사용된 석재는 방형으로 가공한 응회암이며 쌓기 방식은 선교사 사택과 거의 유사한 바른 층 쌓기로 되어있다.

현 정명여자학교 교정에는 옛 건물로 본 교사 1동과 선교사 사택 2동만 남아 있다.

2.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 소재지: 목포시 유달동 8
- 건 립: 1929년

목포공립심상소학교는 개항 다음해인 1898년에 일본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초등 교육시설이다. 동본원사 목포지원 주도로 설립된 이 학교는 초기에는 사원의 법당 일부를 교사로 사용하였다. 그 후 거류민 자녀 수가 늘어나면서 1899년 현 위치에 약 103㎡ 교사 신축을 시작으로 학교의 규모가 커지게 됐고 현재의 강당은 1929년 건립되었다. 해방 이후 현재 목포 유달초등학교가 된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교사는 모두 훼손되고 본 강당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건물은 장방형 평면의 2층 철근콘크리트다. 1층은 중앙에 복도를 둔 교실로, 2층은 전체가 강당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주출 입구는 장변 쪽 중앙에 있었고 현재도 본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 보통 강당 건축에서 주 출입구를 단변 쪽에 두는 것과 큰 대조가 된다. 2층은 복도 끝에 있는 목조 계단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정면과 좌측면 일부 외부는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1.5m높이 석재로 마감처리 했다. 지붕 구조는 목조 트러스로 되어있고 천장은 격자 줄눈이 있는 판자를 사용했다. 지붕 형태는 우진각

형으로 함석으로 마감했다. 창호는 각층에 쌍으로 긴 수직 창을 설치했는데 특히 2층 상부에는 반원 아치를 두었다. 1층의 경우는 쌍으로 된 수직창 사이의 벽을 없애고 크게 하나의 장방형 창호로 새로 교체한 흔적이 있다.



그림 85



그림 86



그림 87



그림 88



그림 89

그림 85 동본원사 별원 내 일본인 소학교와 생도들(1899년 촬영)
자료: 김정섭, 앞의 책(1991), 155쪽.

그림 86 일제강점기 목포공립심상소학교 전경. 우측 2층 건물이 현존하는 강당이다. 학교 뒤편 유달산 기슭의 좋은 터에 규모가 큰 일본인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87 강당 정·좌측면

그림 88 강당 정·우측면

그림 89 배면

3.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 소재지: 목포시 용당동 183

● 건립연도: 1953년

목포 문태고등학교는 1941년 4월 28일 재단법인 문태학원(5년제 문태중학교)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태고 설립은 1951년 8월 31일이며 본 건물은 머릿돌에 새겨진 연대로 보아 1953년에 완공된 것으로 여겨진다. 설계자는 강봉진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는 당시 문재근 교장과 미 육군 대령이 주도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설계 전체 도면(청사진)이 현재 학교에 보존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국내의 근대건축 중 도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 특히 주목이 된다.

건물 구조는 2층 석조이다, 이 건물은 1998년 화재로 외부 벽체만 남겨두고 내부와 목조지붕틀이 완전 전소되었다. 그 후 2001년 6월에 내부를 크게 개보수를 하여 현재는 사무실과 특수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평면은 후면으로 3개의 돌출부를 둔 E형이다. 정면 중앙부와 양 측면에는 위로 돌출된 삼각형의 박공지붕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대칭성 균형감이 있다. 또한 창과 창 사이에는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수직부를 두어 건물의 수직성이 잘 드러나 있다. 정면부 석재 쌓기 형식은 기단부 격인 4단까지는 큰 흑두기로, 그 위로는 잔다듬 바른 층 쌓기로 되어 있다. 정면 중앙에는 2개의 원주로 받쳐진 출입 포치가 있다.



그림 90



그림 91



그림 92



그림 93

그림 90 건립 초기 본관 전경. 전면에 아직 조경이 안 되어 있다.
자료: 문태고 행정실.

그림 91 화재 후 본관 전경
자료: 문태고 행정실.

그림 92 본관 정면

그림 93 본관 후면

4.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 소재지: 목포시 용해동 산43
- 건립연도: 1950년

목포사범학교는 1947년 4월에 첫 신입생을 모집한 이후 목포교육대학(1964년 3월)을 거쳐 1979년부터 목포대학이 되었다. 초창기 사범학교는 현 목포여중 앞에 있었던 구 조선면화 창고를 개조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였다. 그 후 학교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 지자 현 용해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1950년에 본 건물을 짓게 됐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3단계 증축을 거치면서 길이가 105.6m가 되는 긴 건물이 됐다. 1단계는 중앙 홀을 포함하여 서편으로 1950년 이전 당시 건립됐고 다음 2단계는 1954년에 동편을 대청으로 완공했다. 현재의 모습이 되는 마지막 3단계는 1962년에 역시 동편으로 증축이 됐다. 1단계 석조 공사는 손양동⁰⁵⁾이 하였다. 이 공사는 1949년 봄부터 시작하여 약 1년이 걸렸고 석재는 학교에서 약 3.5km 떨어진 산정동 석산에서 마차를 이용하여 큰 원석을 옮겨와 현장에서 가공하여 축조했다.⁰⁶⁾

건물의 전체 형태는 중앙 부분에 주 출입구를 둔 ‘一’자형 2층 석조건물이다. 평면 및 입면이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 균형감이 있고 아울러 석조건물로서 중후함도 있다. 건물 평면은 정 중앙에 출입 홀이 있고 홀의 끝에 좌·우로 복도를 두고 남쪽으로 교실을 배치하였다. 출입 홀은 전면 벽체로부터 1.7m정도 앞쪽으로 돌출시켜 내부가 비교적 넓고(7×8m) 상부도 2층 부분까지 오픈시켜 개방감이 있도록 하였다. 현관 앞쪽 4.3m 지점에 2개의 원형 기둥을 세우고 지붕 처리를 한 출입 캐노피를 두었다. 출입 홀 좌·우로는 각각 4Bay 구조를 적용하여 1, 2층 모두에 각각 8개의 실(크기 8.7×6.9m)을 두었다.

벽체는 외부를 돌로 쌓았고 2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보를 걸고 콘크리트 슬라브로 처리하였다. 보는 복도와 교실 모두에 현치를 두어 구조적 안전성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보 간격은 약 2.3m로 매우 좁으며 복도 쪽은 중간에 하나씩을 줄여 4.6m간격으로 하였다. 외부 돌 쌓기는 총 22켜로 되어 있는데 수직 줄눈은 일정하지는 않다. 석재는 밝은 회색빛을 띠는 화강암 계열(응회암)이며 석재 표면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 있는데 많이 돌출된 부분은 10cm정도가 된다.

우측(동편)의 증축 부분은 본래 1, 2층이 각각 큰 교실(강당)이었던 것을 1980년경에 현재의 모습

05) 「제1절 목포 근대건축의 성립과 발전」 주1) 참조.

06) 2009년 손양동 고증.

으로 다시 개수한 것이다. 즉 중앙에 폭 1.7m의 중 복도를 두고 1, 2층에 각각 4개씩의 작은 실 (4.0 × 4.2m)을 두었다. 외부는 전면만 본 건물과 같은 석재로 거친 흑두기 마감을 하였고 후면은 4켜까지만 돌로 쌓고 그 상부는 시멘트 몰탈 뽕칠로 처리하였다.

지붕 트러스는 1.7m간격으로 총 57개를 설치했다. 구조는 육송을 사용한 왕대공 트러스 구조이며 가로 평보 길이는 10.9m, 왕대공 높이는 3.07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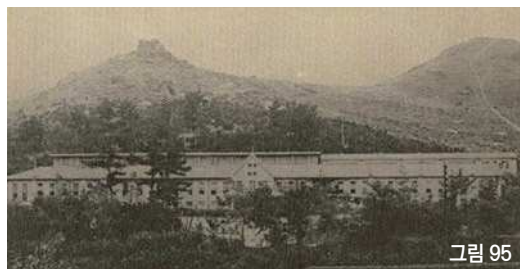


그림 94 1950년 신축 당시 목포 사범학교 본관(서쪽면 1/2만 건축)
자료: 문화재청,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9, 54쪽.

그림 95 동측까지 모두 완성된 목포사범 학교 본관
자료: 문화재청, 앞의 책, 55쪽.

그림 96 본관 정면 전경



그림 97



그림 98



그림 99

그림 97 본관 배면
그림 98 1층 중앙 홀
그림 99 지붕 왕대공 트러스

제5절 종교 건축

목포가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개항 초기부터 목포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우선 선교에 열정을 쏟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식 학교와 병원, 주택 등을 지어 목포 근대건축의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전남 지역에 선교 사업이 시작된것은 1896년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나주를 선교지로 하면서이다. 1897년 이른 봄 벨(한국명: 배유지) 선교사⁰⁷⁾와 해리슨(한국명: 하



그림 100 전도 여행길에 나서는 배유지 선교사(우측)와 하위럼 선교사. 한옥 건물이 눈에 띈다.

자료: 김수진, 『양동제일교회 100년사(1897~1997)』, 양동제일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7, 3쪽.

위럼) 선교사가 나주에 파견되었고 그들은 나주에 머물며 선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강한 보수 고장으로 기독교 문화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다음해 6월에 나주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고 이때 나주 이외의 유리한 선교 지역으로 떠오른 곳이 목포였다.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개항장으로서 장차 발전 가능성이 확실한 곳이었다. 벨 목사 일행은 1898년 8월에 목포에 사택을 마련하고 전라도 선교의 본거지가 되는 목포스테이션(Mokpo Station)을 설치하였다. 그 후 목포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바로 양동교회다.

한편 일본인도 목포에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자국민을 위해 1911년부터 전도를 시작했고 제대로 격식을 갖춘 예배당을 현 대의동 큰길가에 신축했다.

불교는 개항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포교를 했다. 일본 불교는 사회 밀착형으로 서민들 가정에 까지 불교문화가 깊숙이 침투했고 승려들은 결혼도 하고 육식도 하는 등 한국 불교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개항 초기부터 얼마 안 되는 자국민을 위하여 목포에도 불교 사원을 세운 것이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3일자로 사찰령을 발령하여 적극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항하는 한편 종교 차원에서 그들의 문화적 지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목포에 세운 최초 사원은 1898년 4월에 세운 동본원사 목포별원(東本願寺木浦別院)이다. 이어 진언종 지산파 목포교회소(眞言宗智山派木浦敎會所, 1901), 정토사(淨土寺, 1910), 서본원

07) Rev. Eugene bell(1868~1925, 한국명: 배유지(裴裕祉)): 1891년 미국 캔터키 주의 Central대학 졸업, 1894년 캔터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896년 봄 28세의 나이로 서울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왔다. 1898년 목포에 온 그는 의사이며 목사인 오웬 선교사, 부녀자와 어린이의 전도를 주로 맡은 스트래퍼 양 등과 함께 초기 목포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림 101 1935년 한국인 마을 죽동 언덕에 건립됐던 구 죽동교회. 아치 창호가 있는 아담한 단층 석조 건물이었다. 2000년 초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자료: 1995년 필자 촬영.



그림 102 1901년 측후동에 건립된 일본인 사찰 정토종(淨土宗) 정토사(淨土寺). 훼손 시기는 미상. 본당의 건축 양식, 요사채 일체형 등 현존하는 정혜원(구 흥선사)건축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자료: 목포신보사, 『개항 만 35년 기념 목포사진첩』, 1932, 38쪽.

사(西本願寺, 1912), 흥선사(興禪寺, 1918), 약사사(藥師寺, 1927) 등이 연이어 설립됐다. 당시 일본인이 세운 사찰로 현재 건물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찰로는 정광정혜원(구 흥선사)과 약사사 2곳이 있다.

일본보다 조금 늦게 한국인들도 사찰을 건립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유달산 주변에 집중적으로 한국불교사원이 자리했다. 1915년 4월 해남 대흥사 포교소로 시작한 달성사(達成寺), 1928년 10월 장성 백양사 말사로 시작한 보광사(普光寺), 관음사(觀音寺)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세운 사찰은 전통적으로 내려 온 산지형인데 반해 일본인은 접근이 쉬운 도심형 위주로 사찰을 세웠다. 한편 한국인 사찰의 현 전각들은 최근에 중창 형식으로 새롭게 지어진 것이 많아 건축사적 가치는 거의 없다.

1. 양동교회

● 소재지: 목포시 양동 127

● 건립: 1900년

양동교회의 본격적인 선교 역사는 1898년 가을에 현재의 양동 86번지에 포교소 겸 선교사 사택을 건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도 수 20여 명, 수세례자는 7명이었고 초대목사는 배유지 목사였다. 그 후 신도 수가 늘어나 1900년 가을에 46㎡ 규모의 한옥 교회당을 신축했으며 2년 후에도 한차례 증축이 있었다.

양동교회는 1909년에 조선인 최초로 윤식명(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목사가 초빙되어 교회 설립 10여년 만에 조선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되었다. 당시의 신도 수는 약 300명이 되어 새로운 예배당의 신축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 양동교회 건물은 윤식명 목사 부임 이후 교회의 성장기에 새로 신축한 의미 있는 건물이다. 규모는 약 350㎡였고 건립비는 약 1000여 원이 들어갔다. 착공은 1910년이며 준공은 1911년 겨울이다. 건물 좌측면 상부 아치에 ‘대한 융희4(大韓 隆熙四)’라는 음각 글이 있는데 이는 공사 중인 1910년에 해당된다.

양동교회는 구릉지의 비교적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구 선교사 사택 자리도 구릉성 언덕 위에 자리했는데 당시 목포는 구조적으로 평지가 없고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구릉형 산지가 주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곳은 경관이 좋고 당시 목포 중심에서 먼 곳이었기 때문에 땅값도 저렴했다.

교회는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 바로 교회 본당이 있고 좌측으로는 바로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현대식 건물의 교육문화센터가 있다. 본당 건물은 어느 교회처럼 단순한 장방형(20.07m×18.85m) 평면의 모습이다. 내부는 통간으로 넓게 강당형으로 되어 있고 전면부에는 중층을 두었다. 그리고 지형차를 이용하여 전면부에는 작은 지하 예배실도 마련하였다. 한편 1982년에 정면 중앙으로 본 구조에 바로 맞댄 4층 구조의 종탑부를 설치하여 정면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구조는 응회암을 사용한 단층 석조 건물로 외부 마감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있다. 지붕은 본래 목조 트러스를 걸은 팔작지붕이었으나 전면부는 현재 전면 종탑부 증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박공으로 고쳐졌다. 지붕 재료는 건립 당시 함석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지붕의 구조 보강을 위해 전체를 해체하여 기존 트러스 사이에 같은 규격의 트러스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지붕 재료도 강판으로 교체했다. 창호는 수직 창을 사용하였고 창 상·하로는 석조 수평인방을 걸었다. 그리고 건물 양 측면 중앙의 출입구 위로는 석재 아치를 두었다.

본 교회는 아래 옛 사진에서 보듯이 건립 당시 옥외에 별도의 종탑을 세웠다. 초기는 목조 종탑이었고 그 후에 다시 같은 위치에 조적조 종탑을 새로 건립했다. 일제강점기 교회 종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기념비적인 유적이다.



그림 103



그림 104



그림 105



그림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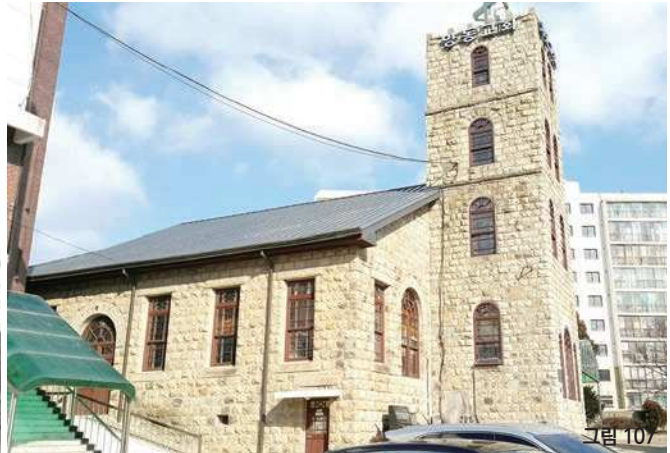


그림 107



그림 108



그림 109

그림 103 초기 한옥교회와 교인 일동

자료: 김수진, 앞의 책, 5쪽.

그림 104 1930년 간행한 『목포부사』에 실린 양동교회 우측면 사진. 현존하는 양동교회 사진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사진으로 여겨진다. 좌측에 목구조의 종탑이 있다.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381쪽.

그림 105 영흥학교 교정에서 바라 본 양동교회 모습(중앙 상단). 팔작지붕, 벽체, 조적조 종탑 등 건물 전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뒤에 보이는 산은 유달산이다(1950~1965년 촬영).

자료: 영흥학교 홈페이지.

그림 106 목구조 종탑 철거 후 새로 세워진 독특한 디자인의 조적조 종탑. 위치는 이전 종탑과 같다. 1980년대 중반에 철거 됐다.

자료: 1983년 여름, 필자 촬영.

그림 107 건물 좌측면과 종탑부

그림 108 건물 우측면

그림 109 건물 좌측면 출입구 아치. 중앙에 태극문양과 함께 대한유희 4년이란 음각의 글이 있다.

2.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60-1
- 건 립: 1933년

북교동 교회의 발단은 1924년 5월 초순 몇몇 사람들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고 그 후 점차 그 수가 늘어나자 남교동 초가집에서 정기 기도회를 갖게 됨으로써 북교동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 다음 해인 1925년에는 서울 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장석초(張錫初) 전도사의 파견을 계기로 비로소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 당시 처음 자리한 곳은 죽동 131번지로 큰 초가를 전세로 얻어 내부를 예배당으로 개조하였다. 당시 이 예배당은 장 전도사의 살림집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1928년에 다시 북교동 191번지로 셋집을 옮기는데 이때부터 북교동 일대가 전도 구역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교동 교회는 1931년 이성봉 목사(1931~1936년 재임)의 부임으로 일대 전환기를 갖게 되었다. 현 북교동 160번지에 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48평 규모의 석조 건물을 1933년에 신축하였다. 그간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는데 본 건물의 신축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정착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현재의 본당 모태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신축 본당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맞배지붕 단층 건물이었다.

그 후 신도 수가 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자 1955년에 본당을 단층에서 2층으로, 전면도 3층으로 증축을 시작하여 그 전과 전혀 다른 성전이 되었다. 당시 공사는 10여 년이 걸린 어려운 공사였다.

증축 공사 이후 30여 년 가까이 사용 했던 성전이 1992년에 화재로 내부가 전소되어 같은 해 바로 우측에 신축 중이었던 선교 센터가 대신 본당이 되었고 본당이었던 현재의 건물은 내부를 수선하여 현재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화재 당시 석조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

건물은 장방형 평면의 2층 석조 건물이다. 전면부에 계단실이 있는 홀이 있고 본당은 2층에 두었다. 계단은 본래 목조였으나 화재 후 콘크리트 구조로 개수가 됐다. 석재는 인근 유달산에서 채석한 응회암이며 크기는 높이 290mm에 길이는 300mm, 420mm 등 방형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했다. 마감은 중간 정도의 흑두기 마감이다. 측면에는 7개의 수직 창을 냈고 창대돌과 인방돌은 잔다듬으로 마감했다. 전면 파사드는 3층으로 상부 양측을 고딕형식으로 중앙부보다 높게 했고 2층 창호는 단순한 방형이나 3층만은 상부에 아치를 두어 입면에 변화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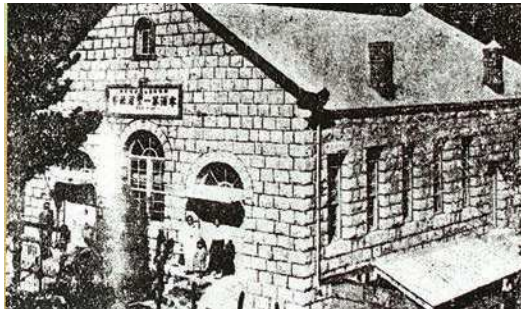


그림 110 1933년 신축된 본당모습
자료: 북교동교회, 『북교동교회 80년사(1924~2004)』, 2004, 12쪽.



그림 111 본당을 배경으로 한 목포지방 제1회 성경학교 기념사진.
이우영목사 재임 시(1939.11.~1943.12.).
자료: 북교동교회, 앞의 책, 119쪽.



그림 112 건물 정면



그림 113 건물 후면과 좌측면

3. 목포 북교동 성당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46
- 건립: 1958년

북교동 성당은 1956년 5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1958년 9월에 완공된 천주교 건물이다. 목포의 산정동, 경동에 이은 3번째로 세워진 성당이다. 경내에는 같은 해에 건립 한 붉은 벽돌집인 사제관(112㎡)과 교실(132㎡)도 있다. 성당 부지는 천재 극작가 김우진(1897~1926)의 생가 터로 이곳은 1903년 무안감리를 지낸 김성규가 기증한 것이다. 김우진은 '사의찬미'로 유명한 한국 최초의 여성 성악가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져 자살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성당은 종으로 긴 단순한 장방형이며 중앙쯤에는 약간 돌출시켜 고해실을 두었다. 구조는 맞배지붕 단층 석조 건물로 벽체는 장방형의 응회암으로 축조되어 있다. 쌓기는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하다. 정면에는 아치 구조로 된 돌출된 방형의 출입 포치를 두었고 그 위로는 성 비오 10세 교황상과 4개의 기둥으로 축조된 종탑이 있다.

측면 창호는 상부에 반원 아치를 둔 수직창이며 유리는 스테인드글라스다.



그림 114 건물 정면



그림 115 건물 좌측면



그림 116 성당 완공 기념 사진
자료: 북교동 성당

4. 목포 경동성당

- 소재지: 목포시 경동 2가 2-1
- 건립: 1954년

경동성당은 광주지목구장 대리였던 헨리 신부가 건축비를 미국에서 모금 운동으로 충당하여 지은 성당이다. 이 성당은 1953년 한국천주교회 최초로 ‘레지오 마리아’⁰⁸⁾가 도입된 성당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동양척식목포지점 후면 쪽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성당 경내에는 현재 본당과 근래에 새로 지은 사무실과 사제관 등이 있다. 성당 공사는 1951년 5월에 대지 약 1,970㎡를 목포시로부터 매입해 1952년 11월에 본당 및 사제관 공사를 시작하였다. 사제관이 1953년 1월에 먼저 준공되었고 본

08) 성모님의 표상을 본받으려는 가톨릭 평신도 단체의 하나. 192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20대의 젊은 여성 15명이 빈민원의 환자 방문 계획을 세우려고 첫 모임을 갖고 시작했다. ‘자비의 모후회’로 불리다가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뜻의 레지오 마리아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은 1954년 7월 7일에 완공되었다. 1966년 3월에는 본당 정면이 지반침하로 균열이 가 조적구조로 전면 보수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석공사는 당시 목포에서 많은 석조 건물을 지은 경험이 있는 손양동이 맡았다.

본당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석조 2층 건물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다. 석재는 바른 층 쌓기로 되어 있고 면은 흑두기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며 석조술이 정교하고 균형감이 있다. 창은 측면 1, 2층에 각각 9개의 수직 창을 설치하였고 창문 위아래로는 잔다듬한 인방을 걸었다.



그림 117 1954년 7월7일 준공 기념사진. 중앙에 큰 아치 구조가 있는 본당 본래의 정면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측에서 3번째 인물이 시공자 손양동이다.

자료: 경동성당.

그림 118 건물 정·좌측면

그림 119 건물 후면과 좌측면

5. 목포기독교회

- 소재지: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50
- 건 립: 1922년

목포기독교회는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인이 자국민을 위해 설립 한 교회다. 이 교회는 1911년 3월에 일본 동경 전도국에서 전도를 시작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12년 8월에 안동에서 온 죽내호야(竹内虎也) 목사가 정식으로 부임하면서 교회가 설립 되었다. 당시 집회는 유정 1번지(현 유동 수산시험장 앞)의 가옥을 임대하여 교회로 사용하였고 그 후 교세가 늘어나자 1914년 7월에 수정 2정목 3번지(현 수강동)로 교회를 이전하였다. 당시 신도 수는 40명이 넘었고 목사는 영산포와 광주에도 출장 전도를 나갔다. 1919년 11월에는 교회가 침체되어 죽내목사가 일본으로 돌아갔고 교회도 문을 닫게 됐다. 그러나 교회 철폐 후에 자체적으로 신도들이 더욱 열심히 집회를 계속하고 신도가 늘어나자 동경 전도국에서는 축자익인(筑紫益人)을 다시 상주 목사로 파견하였다. 목사 부임이후 일요학교 출석자가 50명이 넘는 등 교회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자 1922년 9월에 대화정(현 대의동)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게 됐다. 목포에서 전도를 시작한 후 11년 6개월 만에 주택 교회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예배당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건물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앞 사거리에서 유달산 방향 약 50m 거리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건립 당시는 사진 상에서 보듯이 2층이었으나 현재는 1층만 남아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주로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전면 7.5m 폭의 단순한 장방형이나 정 중앙으로는 마름모형의 1.2m 돌출부를 2층까지 두는 모던한 디자인을 하였다. 입면 등은 간결하고 창문은 장식이 없는 수직 창을 설치했다. 외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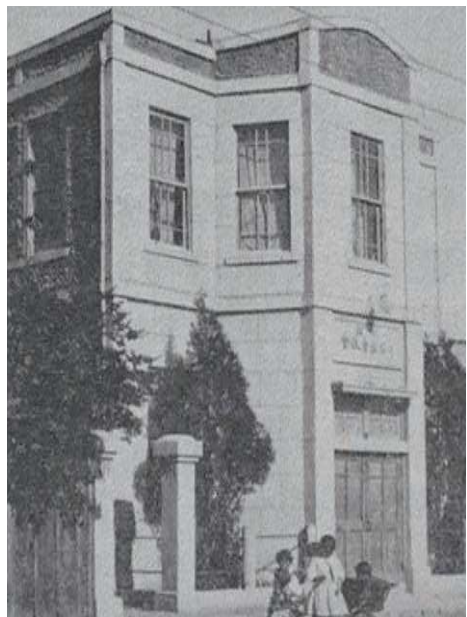


그림 120 현재 1층만 남아있는 건물 정면

그림 121 1920년대 목포기독교회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379쪽.

모래와 시멘트로 현장에서 시공하였는데 마치 석재판을 붙인 것처럼 보인다.

본 건물은 비록 원형을 많이 상실했지만 일본인 유일의 기독교 건축이 현재도 남아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층 중앙에는 한자로 ‘목포기독교교회(木浦基督教會)’란 양각 간판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본래 교회 후면에 일본식 목조 2층의 목사 사택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없다.

6. 달성사

- 소재지: 목포시 죽교동 317
- 건 립: 1915년

달성사(達城寺)는 목포 원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유달산의 동남쪽(죽교동)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이다. 양산 통도사 출신으로 알려진 노대련(盧大蓮) 선사(禪師)에 의해 1915년 4월 8월 해남 대흥사(大興寺)의 포교당으로 창건되었다. 당시 이 사찰은 주변에서도 많은 신도들이 모인 한국인 중심 사찰이었다. 경내 전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석조로 건립된 법당들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 현재와 같은 목조 양식으로 극락보전, 명부전, 삼성각 등을 새롭게 중창하였다. 성보 문화재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반가상 등이 있다.

경내 주 법당인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다포집이다. 극락보전 전면 좌측에 위치한 명부전은 정면 3칸의 맞배집이고 삼성각 역시 정면 3칸의 맞배집이다.



그림 122 달성사 전경



그림 123 국락보전



그림 124 명부전

7.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 소재지: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5(무안동)
- 건립: 1930년대 초

동본원사(東本願寺)는 일본 사찰로 본원은 일본 교토에 있다. 목포에 처음 사원이 세워진 것은 개항 다음해인 1898년 4월이며 당시 사원은 포교소 형식으로 현 대의동 부근의 초라한 목조 가건물이었다. 그 후 신도 수가 늘어나자 1905년 10월 무안통 4정목에 종루까지 갖춘 목조 법당을 신축하였으며 1907년 12월에는 지원이 별원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현재의 석조 법당이 1930년 초에 새로 건립된다. 왜 지은 지 30여 년도 안 돼, 그것도 석조로 새로 지은 지는 알 수 없다. 위치는 1905년에 지은 목조 법당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진다. 목조 사원은 본당과 요사체가 서로 연결된 일체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 목포에 건립된 정토사, 흥선사(현 정광정혜원)등과 같은 유형이다.

본당은 석조 단층 건물로 평면은 종으로 긴 장방형에다 전면 중앙으로 포치식의 돌출된 현관을 두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경사도가 무려 37도로 매우 가파르다. 지붕틀에 사용된 목재는 잣나무, 가문비나무, 육송 등 의외로 국내산을 사용했다. 기와는 모두 일식 기와가 사용되었는데 용마루 좌우측의 14개 조각이 한조가 되어 설치된 장식기와가 매우 돋보인다. 벽체는 모두 정교하게 다듬어진 응회암을 사용하여 구축했고 모서리에도 목구조 같이 원형 기둥을 두고 상부에는 독특한 형상의 주두까지 두었다.

이 건물은 석조 벽체에 일본 목조 불당의 건축의장 요소를 표현한 국내 유일의 사찰 건물로 주목이 간다. 이 건물은 해방 후 정광사의 관리하에 있다가 1957년 7월부터 목포 중앙교회로 50여 년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불자의 공간이 기독교인의 공간으로 대체된 특별한 인연이다. 이 건물은 2007년 등록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현재는 강연, 공연, 전시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25



그림 126



그림 127

그림 125 건물 정면

그림 126 건물 좌측면

그림 127 1905년에 건립 한 목조 법당. 좌측으로 요사채가 연결되어 있다.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365쪽.

8. 정광 정혜원

● 소재지: 목포시 죽동 226-1

● 건립: 1918년

목포 정광정혜원(淨光定慧院)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세운 사찰이다. 2017년 10월 23일자로 등록 문화재 제696호로 지정되었다. 사찰은 1912년 9월 24일에 당시 목포부 대화정 2번지에서 일본 조동종 대본산(曹洞宗 大本山)의 허가로 포교소로 시작하였다. 당시 주임 포교사는 조선 유학생 다라

미도현(多羅尾道賢)이었다. 설립 이후 나날이 신도가 늘어 교당의 확장을 위해 1916년 7월에 향정 4번지로 포교소를 이전하였다. 그 후 1917년 5월에 현 죽동 226번지에 사찰 신축을 시작하여 1918년 3월에 현재의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포교소가 아닌 흥선사(興禪寺)가 되었다. 초대 주지는 그간 포교소를 맡아 왔던 다라미도현(多羅尾道賢)였다.

1924년 7월에 종명에 의하여 초대 주지는 대구로 전임되고 후임 2대 주지로 역시 일본인 좌하현(佐賀縣)출신의 광산각음(光山覺音)이 취임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까지 주지로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한편 그의 손자 광산수도(光山修道)도 현재 일본 의왕사(医王寺) 주지로 재임 중이다.

이 사찰은 광복 후 조계종에서 인수하여 한때 선학원으로 이용했으며, 정광정혜원(淨光定慧院)이란 명칭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고 백양사 방장을 역임한 만암 스님에 의해 붙여진 사명이라고 한다.

법당의 중앙 불단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를 이루고 있다. 2개의 원주 뒷편에 위치한 불단의 좌우에는 작은 불단이 설치되어 독성도와 산신도, 칠성도가 모셔져 있고, 원주의 좌우에는 신중탱과 지장탱이 모셔져 있다. 경내에는 1917년에 조성된 보현보살상과 석탑이 남아 있다.

정광정혜원은 크게 법당과 요사채로 구성되어 있고 두 건물은 횡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예불 공간(법당)과 생활 공간(요사채)이 중앙에 중정을 두고 일체로 되어 있다. 이 중정 앞뒤에 복도가 있어 두 건물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법당, 요사 연결형은 한국 전통 사찰에서는 한곳도 볼 수 없는 일본식 사찰 구성 형식이다. 현재 이러한 구조의 일본식 사찰로는 군산의 동국사(東國寺)가 있다. 이 사찰 역시 조동종 계열의 사찰로 1909년에 정혜원과 같이 포교소로 시작하여 1916년에 정식 사원이 되었다. 건축 양식은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데 정혜원 역시 같은 양식이다.

법당은 종축으로 긴 장방형 평면에 중앙으로 현관 포치를 둔 전형적인 일본 에도 시대 건축양식을 취하고 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7칸이며 여칸 내부에는 불단 쪽으로 내부기둥을 두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기와 면이 포치 위에까지 그대로 내려왔고 물매는 급한 편이다. 앞으로 나온 현관 포치는 전면 기둥 위로만 공포가 있고 법당 외부에는 어떠한 장식적 요소도 없다. 이상과 같은 구조와 포치식 현관 형태는 정혜원 보다 다소 빠른 시기에 정혜원 인근에 건립된 정토사(淨土寺)와 매우 흡사하다. 건물 외벽은 특별한 장식 처리가 없고 뒤편에 일부 목재 비늘판벽으로 마감되어 있다. 처마, 서까래 등에서 일식 목조 주택의 수법이 잘 나타나 있다.

요사채도 전체적인 평면구조나 외형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진입은 우측 전면의 포치식 현관을 통해 드나들게 되어 있다. 현관 앞에는 폭이 좁은 복도가 있는데 이 복도를 통해

우측의 법당과 연결된다. 전체 평면 구성은 우측으로 거실(마루구조)을 두고 전면과 좌측으로 침실과 주방 등을 두었다. 요사채 후면에는 후면 복도에서 연결된 다소 독립적인 아담한 2층 목조(1층: 창고, 2층: 침실)구조이다.



그림 128



그림 129



그림 130



그림 131



그림 132

그림 128 일제강점기 정광정혜원 전경. 단청이 없다.

자료: 일본 예왕사(医王寺).

그림 129 일제강점기 정혜원 불단 모습

자료: 일본 예왕사(医王寺).

그림 130 일제강점기 법당 정면에서 촬영한 사찰 관계자. 중앙이 2대 주지 광산각음(光山覺音).

자료: 일본 예왕사(医王寺).

그림 131 법당 전경

그림 132 요사채 전경

9. 약사사

● 소재지: 목포시 만호동 1-24

● 건 립: 1927년

약사사(藥師寺)는 일제강점기 ‘임제종 동복사파 목포포교소(臨濟宗 東福寺派 木浦布敎所)’로 시작된 일본식 사찰이다. 처음 임시 포교소는 1926년 11월 2일에 남교동 138번지에서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31일에 다시 행정 2정목 3번지(현 행복동)로 이전하였다. 그 후 신도가 늘어나자 1927년 9월에 현 목포진 후면 언덕진 곳에 본 건물을 건립하였다. 당시 건축비는 2,500원으로 교토 동복사의 보조와 신도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사찰 경내에는 현재 대웅전과 칠성각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내가 협소하다. 건립 당시 이곳은 목포진 후면의 경사 지형으로서 경관은 좋으나 평지는 거의 없는 곳이었다.

대웅전은 1927년 건립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면 3칸 규모의 2층 목조집이다.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1층은 좌측으로 일부를 덧달아 낸 곳과 함께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당은 2층에 있다. 법당의 출입은 우측에 경사 지형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구조는 방주를 사용한 홑벽 모임지붕 구조다.

칠성각은 정면 3칸이며, 팔작집으로 합각 면 쪽이 정면으로 되어 있다. 두 건물 모두 2000년 초에 일식 기와에서 검은색 강판으로 교체되었다. 경내에는 1935년에 건립된 불상과 1930년에 건립된 물을 담는 석조가 있다.



그림 133 대웅전 정면, 그림 134 칠성각, 그림 135 대웅전 후면

10.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 소재지: 목포시 노송길 35-0(산정동)
- 건립: 1945년 무렵

이 건물은 1937년 광주지목구가 설립된 후 최초로 광주·전남지역(당시 제주지역 포함) 선교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신축연도는 1945년부터 1956년까지 목포교구청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1945년경으로 여겨진다. 이후 2002년까지 병원 및 간호대학으로 사용한 후 비워 두다가 2012년 등록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2016년에 전면 보수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구청이 입지한 곳은 평지가 아닌 높은 큰 동산이다. 이곳은 목포 개항과 더불어 이 지역에 유입된 천주교 성지로서 성당과 함께 의료 시설인 골롬반병원이 한데 있었던 곳이다.

구교구청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 벽돌 조적식 건물로 전체적으로 횡으로 긴 장방형 건물이다. 정면 중앙에는 돌출된 출입 포치를 두었고 내부는 중앙에 복도를 두고 그 양측에 실들을 꾸몄다. 지하 층 외벽은 석조로, 1~3층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하였다. 구조적으로 조적조 형식인 까닭에 내부의 실 구획을 위한 벽체는 상하층 동일한 위치에 있고 특히 중앙 복도는 지붕의 트러스 밑에까지 이어진 형식이어서 실 내부 구획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사용된 벽돌의 크기는 220×107×57mm이다

창호는 세로로 긴 장방형의 목재 오르내리창호이며 창대석은 벽돌과 석재로 되어있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여 마감하였다. 2층 바닥은 바닥보 위에 바닥 널을 깔아 마감하였으며, 천정은 바닥보 아래로 줄대를 설치하고 석고플라스터를 바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지붕틀은 길이 11.4m의 왕대공 트러스 형식으로 중앙 포스트를 중심으로 좌우에 달대공이 2개씩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후 지붕면마다 환기를 위하여 돌출창이 일정 간격으로 4개씩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왕대공위에 지붕널을 깔고 석면 슬레이트로 마감되어 있다.



그림 136



그림 137



그림 138



그림 139



그림 140

그림 136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전경(우측 건물)

자료: 천주교 광주교구청.

그림 137 중앙 현관 포치에서 기념 촬영(1960년대 촬영)

자료: 천주교 광주교구청.

그림 138 건물 정면

그림 139 우·후측면

그림 140 정면 출입구

제6절 금융·상업 건축

목포가 개항이 되면서 목포의 부두는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되었다. 부두 노동자가 급격히 늘었고 일본인들도 무역 등의 이유로 꽤 많이 목포에 거주하게 되었다. 개항 무렵 몇백 명에 불과 하였던 목포 인구가 1910년에는 무려 10,000여 명이 되었고 이후 계속 도시가 성장하여 1930년대 초에는 인구가 약 50,000명이나 되는 당시로는 큰 항구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무엇보다도 상업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도시에 증가하게 된 것과 관계가 있다.

개항 당시 상업은 조계지의 일본인과 조계지 밖의 조선인 상인에 의해 영위되었다. 일본 상인은 처음에는 행상인이 주었다. 행상인은 주로 옥양목, 석유, 성냥, 명태 등을 팔았고 쌀, 해조류 등을 사들였다. 이어서 상업이 더욱 번성해지자 무역상, 잡화상, 소매상 등으로 다변화 됐다. 무역상은 쌀, 면화, 잡곡, 소가죽, 해초 등을 수출하고 포목, 석유, 성냥 등을 조선인에게 도소매하였다.

조선 상인은 객주가 있었다. 객주는 상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 주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중간 업자다. 객주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개항장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그들은 숙박, 금융, 창고, 운송 등으로도 수익을 올렸다. 당시 목포부에서 70명으로 객주의 수를 제한했으나 그 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목포가 점차 커지면서 근대적인 금융기관도 목포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목포의 최초 금융기관은 개항 1년 후인 1898년 10월 1일에 설립한 일본 제일은행 목포출장소다. 설립 당시는 자체 건물 없이 가옥 일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다 1906년에 단독 은행 건물을 마련했다. 그 후 1909년 10월 한국은행 목포지점이 설립되면서 제일은행 목포출장소는 그쪽으로 위양 됐다. 이어 한일합병 이후 일본이 본격적인 경제 침략을 위한 금융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1911년 2월 조선은행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8월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칭하자 목포지점도 조선은행 목포지점으로 개칭되었다. 아쉽게도 당시의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고 없다. 국내에 현존하는 당시의 제일은행 건물로는 구 인천 일본제일은행 지점(현 인천개항박물관)이 있다.

한국인이 설립한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은 현재 유일하게 목포에 남아 있는 근대 은행 건물로서 지방 근대금융사 및 건축사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은행 이외 금융사로서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도 일제강점기 목포 경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건축적으로도 부산과 대전의 건물보다 구조나 조형성에서 완성도가 높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리에는 상가가 형성된다. 상가는 도시민의 생활상을 가장 기층에서 볼 수 있는 생활 유산으로서 목포의 근대 상가 역시 목포의 근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현대건축 틈 사이에 군데군데 끼어있는 건물(2층의 목조 내지는 벽돌조)도 있으나 줄지어 연립 형

태로 남아 있는 건물도 의외로 많다(일명 갑자옥 거리 등)·내부는 비록 일부가 개조되기도 했으나 외형만큼은 현대 상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벽돌조 구조에 외부를 시멘트와 가는 모래를 현장 배합하여 붙인 독특한 시공법이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근대 상가는 원 도심 재생의 핵심 자원으로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위락 시설인 극장도 목포에 들어섰다. 1926년 11월에 조선인 사업가에 의해 죽동에 목포극장이 세워졌고 다음해에는 무안동 현 오거리 대로변에 평화관이 세워졌다. 두 극장은 모두 목조 2층 구조로 외부는 현대식으로 입면을 다양하게 꾸몄다. 두 건물 모두 1990년대까지 있었으나 그 후에 헐렸다.



그림 141



그림 142



그림 143

그림 141 목포에 처음 건립된 단독 은행 건물. 제일은행 목포출장소를 거쳐 1924년 수강동에 신축 건물을 세울 때까지 조선은행 목포지점으로 사용했다.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3쪽.

그림 142 1924년에 신축한 조선은행 목포지점. 이 건물은 해방 후 한국은행 목포지점으로 사용하다가 1988년 목포역 앞에 현 건물을 신축하면서 철거됐다. 건물은 규모도 크고 장중하며 특히 정면 중앙의 도릭 양식을 취한 4개의 기둥이 매우 인상적이다. 상부 처마 부분의 정교한 수평 장식도 주목이 된다. 이 건물은 서구 고전주의와 르네상스 양식이 혼용된 건물로 당시 목포가 근대도시로 향하는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자료: 필자 촬영.

그림 143 식산은행 건물로 1997년에 헐렸다. 외부를 흰색 타일로 마감한 상당 규모의 세련된 현대풍의 건물이었다. 해철 전까지 제일은행 목포지점으로 사용했다.

자료: 필자 촬영.



그림 144 1917년에 개설된 조선축산은행 목포지점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4쪽.



그림 145 1906년에 개설된 신파은행 목포지점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4쪽.



그림 146 1922년에 설립된 목포무진주식회사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30쪽.



그림 147 목포곡물상조합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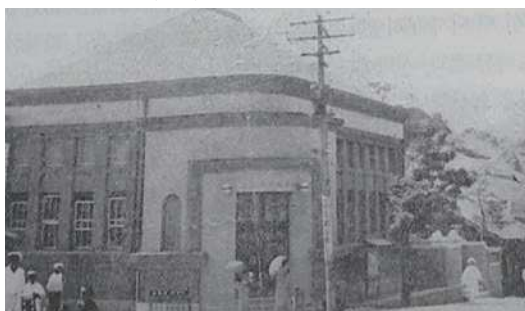


그림 148 목포금융조합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36쪽.



그림 149 무안금융조합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37쪽.



그림 150 목포극장
자료: 목포신보사, 앞의 책, 36쪽.



그림 151 평화극장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800쪽.



그림 152 일본인이 경영한 서양식 카페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804쪽.



그림 153 해안 가 창고 전경
자료: 목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300쪽.



그림 154 일제강점기 거리 모습(현 갑자옥에서 북만동 방향)
자료: 목포군대역사관.



그림 155



그림 156



그림 157

그림 155 일제강점기 거리 모습. 옛 중소기업은행 4거리에서 선창 쪽 방향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156 일제강점기 죽동거리(목포극장 길) 모습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157 일제강점기 거리 모습. 현 갑자옥 4거리에서 선창쪽 방향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1.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 소재지: 목포시 중앙동 2가 6
- 건 립: 1921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이 한국 경제를 독점 착취하기 위해 1908년에 설립한 특수 국책 회사로 전국 주요 도시에 지점을 설립했다. 업무는 주로 토지 매입, 농업, 토지 개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주로 했으며 직접 토지를 매수하고 사들인 토지는 다시 한국인에게 높은 소작료를 받고 임대도 하였다. 호남 지역에는 처음 나주 영산포에 설립(1909년 8월 출장소 개설, 1920년 4월 지점 승격)되었으나 1920년 6월 1일자로 목포로 이전했다.

본 건물의 신축연도는 1921년 11월 7일로 추정된다. 건물은 본동과 단층 부속 건물이 있었으나 부속 건물은 1999년에 철거되고 현재는 본동만 있다. 뒤쪽으로 본동에 연결되었던 1층 부속건물(식당, 화장실, 숙직실 등)도 1999년에 철거됐다가 다시 2006년에 복원됐다. 이 건물은 2006년도에 내·외부를 개보수하였고 현재는 목포근대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내부는 역사관으로 개조하여 원형이 거의 사라졌으나 외부만큼은 건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형식은 뒤쪽의 계단실 부분이 돌출된 장방형 평면의 2층 조적조 건물로써 후기 르네상스 양식을 띄고 있다. 1층 평면은 현재의 시중 은행모습과 같이 영업장과 객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다만 영업장이 객장보다 배 이상 넓었다.⁰⁹⁾ 2층은 주로 사무실이었는데 이곳 역시 역사관으로 바꾸면서 개조가 됐다.

건물 외부 하단에는 거칠게 마감된 4단의 석조 기반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첫 단은 잔다듬마감이고 그 윗단은 거친 다듬이다. 1층과 2층 사이의 외벽에는 방형판 위에 양각(陽刻)의 원형 장식을 창호 사이에 두었다. 이 원형 장식은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 문양이다. 정면과 우측면의 상부 지붕에는 정교한 몰딩이 있는 박공장식을 두었고 상부의 처마선 아래에는 몰딩한 코르니스(cornice)를 두었다. 본 건물의 정중앙에는 석조아치로 출입 현관을 꾸몄는데 그 세부 조각이 매우 정교하고 특히 상단부의 타원형 양각물이 인상적이다. 외벽 마감은 깊은 줄눈이 있는 현장 시공 석판으로 되어 있어 석조 건물 같은 느낌을 준다. 창호는 1~2층 모두 같은 위치에 수직 창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의 수직성이 크게 드러나 있고 창문은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1~2층 내부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천장의 갓 둘레에는 몰딩 한 장식 띠가 여러 겹으로 둘러져 있다.

09) 1995년 필자 조사.



그림 158 건물 정·우측면



그림 159 건물 좌·후면



그림 160 건물 정면 출입구



그림 161 일제강점기 건물 전경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9쪽.

2.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 소재지: 목포시 상락동 1가 10-2
- 건립: 1929년

구 호남은행은 목포지점 건물은 개항 이후 근대기에 건립된 많은 은행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이다. 한편 호남은행은 당시 일본계 은행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인이 자본을 대고 한국인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순수 한국인계 은행이었다는 점은 이 은행의 특징이다. 설립은 1920년 2월 9일이며 설립 주체는 당시 호남의 부호이며 유지인 현준호(玄俊鎬), 김상섭(金商燮), 김병노(金炳魯) 등이었다. 본점은 광주에 두었고 목포지점은 1920년 10월 2일에 당시 무안통 6번지에 설립했으며 현재의 건물은 자리를 옮겨 1929년 11월 현 위치에 건립되었다.

당시 호남은행이 자리한 곳은 상당히 도시 구조가 갖추어진 조계지 지역과 신 개발지라 할 수 있었던 목포역 부근 사이로 은행 입지로는 최고의 자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건물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3면이 도로에 접해 있다.

본관 내부는 그간 여러 차례 개보수 과정에서 변형이 됐으나 외형만큼은 건립 당시의 본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구조는 장변 18.3m, 단변 14.75m(우측 기준)인 장방형 평면의 2층 조적조 건물이다. 1층 내부는 홀 형식으로 넓게 영업장이 들어서 있고 후면 1/3쯤은 좌측부터 계단실, 상담실, 금고 등이 들어서 있다. 상담실과 금고 사이에는 별관과 연결되는 짧은 복도가 나 있다. 2층은 1층 영업장 부분 위로만 드러져 있다.

입면은 크게 기단부, 몸체부, 지붕부로 구성되어 있다. 몸체 정면에는 1, 2층 같은 위치에 수직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벽면에서 안쪽으로 2단 접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벽면이 입체적으로 잘 드러난다. 후면만 제외하고 양 측면도 같은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로써는 상당히 모던한 디자인으로 목포 근대건축의 이슈가 됐을 것이다.

벽돌쌓기는 1, 2층 외벽 모두 1.5B 영식쌓기 구조로 되어있다. 외부 마감타일은 110×60×10mm 규격의 평타일을 주로 사용하였고 기타 60×60×10mm, 그리고 창문 하부에 60×130×10mm도 사용하였다. 타일색은 약간 어두운 붉은색이다.

지붕틀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구조는 육송을 사용한 왕대공 트리스 구조이며 2층 바닥도 목조틀이다. 트리스 가로(평보)길이는 11,130mm이며 왕대공 높이는 3,000mm이다. 트리스는 중앙에 1,650mm 간격으로 5개가 설치되어 있다.

별관은 1982년에 같은 자리에 있던 옛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장변 17.8m, 단변 11m인 장방형 평면의 단층 조적조 건물이다. 외부는 본관과 유사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다.

구 호남은행 건물은 서양 조적조의 건축에 근거한 근대 절충 양식을 취하고 있는 귀중한 목포지역의 근대건축이다. 특히, 아직까지 줄눈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교하게 붙여진 외부 타일과 현대건축에 서도 보기 드문 ‘ㄱ’자형 모서리 타일 사용도 매우 인상적이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조흥은행, 신한은행으로 사용하다가 2009년부터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목포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62 건물 정·좌측면

그림 163 지붕틀 구조

그림 164 건물 정면

그림 165 현 오거리에서 바라본 일제강점기 호남은행 앞 거리. 좌측 큰 건물이 호남은행.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716쪽.

그림 166 일제강점기 건물 전경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5쪽.

3. 구 광생의원

● 소재지: 목포시 남교동 61-1

● 건립: 1936년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거주했던 북교동 근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건립연도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이다. 건립 당시부터 병원 전용 용도로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건물이다. 건물은 전면에서 보면 2층인데 거리에 면한 앞쪽만 2층이고 그 뒷면은 1층이다. 2층 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연결된 후면 1층은 주거용이다.

병원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조적조 구조다. 1층은 거친 흑두기로 마감한 석조이며 2층은 석재 대신 붉은 벽돌을 사용하였다. 2층 전면만은 시멘트 뿔칠로 마감하여 1층 석조와 조화를 꾀했다. 전면에는 수직 창을 설치했는데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계 당시부터 내부 기능에 충실하게 디자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도 오르내림 형식의 목창호 부재가 잘 남아 있다. 이 건물은 외부 재료 선택이나 창호 설계, 포치 설치 등 건립 당시 상당히 모던한 건축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면 출입구 전면에는 폭 2.1m, 깊이 1.6m의 내민 출입 포치를 두어 병원 건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전면 2개의 포치 기둥은 높이가 2.3m인데 단일 석재를 사용했다. 지붕은 우진각지붕에 일식 기와가 얹혀져 있었으나 최근에 유사한 모양의 강판으로 교체하였다.

이 병원은 오래 전부터 진료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도 ‘광생의원’이란 간판이 그대로 걸려있고 가족은 후면의 1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림 167 건물 정면



그림 168 건물 현관 포치

4. 구 목포 화신백화점

- 소재지: 목포시 상락동 1가 11-8
- 건 립: 일제강점기

본 건물은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아래쪽(선창가 방향)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당초 서울 화신백화점 연쇄점으로 건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후 조선운수주식회사 목포지점으로 사용했다. 당시 '마루보시'로 불리었던 이 회사는 주로 쌀과 면화 등 물자운송 및 하역을 취급하였다. 당시 200여 평 규모의 큰 창고가 6~8개가 현 KT사옥 근방에 있었다. 해방 후 관영기업이었던 대한통운이 이 건물을 취득하여 1999년까지 목포지점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개인이 임대해 한때는 화실(김영자 갤러리)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건물은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벽체는 붉은 벽돌로 쌓았다. 사거리 코너 부분을 원형을 처리하였고, 코너 2층 상부에는 반원아치창을 연속으로 3개를 내었다. 특히 코너 부분의 파라페트를 양측면보다 높게 처리하여 정면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현재 건물 외부가 모두 흰색으로 도장되어 있어 적벽돌 건축의 이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사거리 코너의 입지에 맞게 정면을 곡선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포인트로 아치창을 내는 등 당시로는 상당히 세련된 모던건축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69 건물 정면



그림 170 2층 창호

5. 구 화랑여관

● 소재지: 목포시 행복동 1가 4-2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여관 전용으로 지은 숙박용 건물이다. 건물은 1970년대 후반까지 ‘화랑여관’이란 상호로 영업을 했고 그 후로는 현 주인이 매입을 하여 해산물 도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입 후에도 2층만은 한동안 ‘완도여인숙’으로 사용하였다. 건립 연도는 일제강점기 중후반 정도로 추정된다. 현 주인이 매입 당시 50여 년 된 건물로 알려져 있었고 당시 이 지역의 도시 개발 상황 등으로 보아 대략 그쯤 정도로 여겨진다. 현재 건물은 전면 파사드만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고 내부는 상업 용도에 맞게 수리가 되어 있다. 1층은 본래 전면에 점포 하나가 있었고 안쪽은 여관으로 중앙 복도를 사이로 해서 객실이 양쪽에 있었다. 2층도 여관으로 중앙 복도 양측으로 8개 정도의 객실이 있었고 화장실은 1, 2층 모두 우측 끝에 두었다. 후면으로 역시 객실이 있는 3층(31.41㎡)도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되고 없다. 객실은 모두 다다미 구조였다.

구조는 조적조이며 지붕틀은 트러스 형식이나 상당히 변형된 구조다. 빗대공 없이 도리에서 바로 보로 각각 연결되어 있고 보도 단일 부재가 아니고 2개의 부재를 덧댐 형식으로 연결하였다. 보 직경은 150~200mm 정도의 거친 마감 원형이다.

정면 2층 외관은 건립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특히 2층에 설치한 가로 750mm, 높이 170mm 규격의 4개 반원 아치창이 매우 돋보인다. 아치창을 낸 상업용 건물로는 현재 목포에서 이 건물이 유일하다. 외부 마감은 일제강점기 상업용 건물에 널리 사용했던 바른 줄눈 현장시공석판(시멘트)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비록 내부는 변형이 되었으나 근대기 목포의 숙박 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현장이다. 모던한 정면 디자인도 눈에 띈다.



그림 171 건물 정면



그림 172 2층 지붕틀 도리와 지붕널판

6. 구 이리장 여인숙

● 소재지: 목포시 호남동 12-13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일본식 2층 목조 와가로 위치는 목포역 서쪽편(해안가 방향)에 있는 건어물 시장 끝 부분의 삼거리 코너에 자리한다. 건립 당시 이 지역은 현 목포역 부근이 상당히 개발이 되었고 특히 신사와도 가까운 곳이였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았던 곳이다. 건립 당시 는 일본인 상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970년 무렵에 여인숙으로 개조하여 2004년 무렵까지 ‘이리장 여인숙’이란 간판으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목포에서는 여인숙 건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관리인만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2층으로 오르는 목조 계단과 2층의 방 3개가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갖추고 있고, 1층은 안내실이 있는 등 여인숙 용도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수가 되어 있다.

본 건물은 중앙의 일부분만 2층이고 전면 부는 1층이다. 2층은 우진각 지붕이나 1층은 합각 면이 나란히 2개가 보이는 팔작지붕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입면과 지붕 구조가 흥미롭다. 지붕에는 본래 일식 기와가 올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일부가 검은색 강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층 외부는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목재 가로판벽, 오르내림 형식의 목재 창호 등 옛 모습이 잘 남아 있다.

이 건물은 입체감 있는 지붕 형태와 구조 등도 흥미롭고 특히 근현대기 30여 년간 서민들이 즐겨 찾았던 여인숙이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주목이 간다.



그림 173 건물 전경



그림 174 정면 박공 및 2층 정면

7. 중앙동 2가 2층 상가

- 소재지: 목포시 중앙동 2가 8-4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중심거리인 구 일본영사관 앞쪽의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구조는 2층 목조 건물이며 건립 당시 1층은 일본 신발 ‘게다’를 파는 상가였고, 2층은 주거용이었다. 상점 안쪽에서 2층으로 오르는 65cm 폭의 좁은 목조계단이 있고, 2층은 일본식 반침이 있는 방 2개로 꾸며져 있다. 외관은 줄눈을 둔 석분 뿔칠로 마감하였다. 2층 창문은 세로로 길고 좁은 오르내리창이며 아래에는 약간 돌출된 창대를 두었다.



그림 175 상가 전경



그림 176 1995년 무렵 상가 모습(필자 촬영)

8. 구 남양어망 영업소

- 소재지: 목포시 행복동 96
- 건 립: 일제강점기

행복동 사거리 코너에 건립된 상가다. 이 지역은 특히 광복 이후에 크게 변창한 상가 밀집지역이다. 건립은 일제강점기 말경으로 여겨지며 해방 후부터 2006년까지 ‘남양어망’ 사옥으로 쓰고 있다. 2007년에 내부를 개수하여 현재는 건어물 가게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조적조 2층 평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사거리 대지를 감안하여 코너 부분을 사선 처리했고 출입구도 코너에 두었다. 외부 마감은 현장시공석판(시멘트)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창호 등 건립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그림 177 건물 전경



그림 178 2층 창호

9. 창작센터 나무숲

- 소재지: 목포시 행복동 96
- 건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상업 거리로 제일 변화했던 일명 갑자옥 거리 중앙쯤에 위치한다. 건립연도는 구 건축물 대장에 1935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건립된 건물일 수도 있다. 건물 용도는 백화점 성격의 종합 판매점으로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구전에 의하면 '동아부인상회'란 백화점이었다고도 한다. 해방 후 제일 동아부인상회, 냉장고 만드는 회사, 샤론 어린이집(1995년) 등으로 사용하다 2016년부터 목포 예술인들이 모여 전시와 창작의 공간인 '창작센터 나무숲'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지는 종으로 긴 장방형으로 8m 전면 도로에 바로 면해 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ㄴ'자 형 평면의 2층 목조다. 도로에 면한 1, 2층은 약간 가로로 긴 장방형이며, 여기에 후면 좌측으로 길게 역시 1, 2층이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이 당시 살림집이었는데 현재도 복도와 창호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다. 2층 바닥은 목구조로 횡으로 1,505×60mm 목재 3개를 걸고 그 사이에 1,202×30mm 부재를 900mm 간격으로 걸었다.

상가 후면에는 작은 마당도 있다. 기와는 건립 시 올려진 일식 기와 그대로이며 도로면 2층 창호와 마감 등도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건물은 건립 배경과 건축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그림 179 건물 전경



그림 180 2층 복도

10. 구 해태의류

- 소재지: 목포시 복만동 13
- 건 립: 일제강점기

갑자옥 거리 중간쯤에 위치하는 2층 상가로 건립은 일제강점기 중반쯤으로 여겨진다. 최근까지 옷 가게(해태의류)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비어있다. 내부는 개조가 됐으나 구조와 정면 파사드는 건립 초기의 본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평면은 약간 좌측이 사선으로 된 장방형으로 측면부가 길다. 구조는 목구조이나 좌측면만은 1.0B 쌓기 조적조로 되어 있다. 벽돌은 붉은 벽돌이며 조적은 박공 면까지 올라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인근 가로 변 상가 건물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일종의 방화벽이다.

건물 전면 외부는 돌 형상의 시멘트 판으로 되어 있으며 2층 처마 밑으로는 몰딩 장식을 두었다. 2층 바닥틀은 100×270mm, 장선을 900mm 간격으로 걸고 그 위에 판재를 깔았다.



그림 181 건물 정면



그림 182 2층 바닥 틀

11. 남해 선구점

- 소재지: 목포시 영해동 1가 6(해안로 229번길 2-2)
- 건 립: 일제강점기

본 건물이 위치한 영해동 거리는 광복 이후인 1950~1960년대 크게 상권이 형성된 거리이다. 이곳은 ‘영해잔교’라고 부르는 당시 완도, 진도 등에서 오는 배가 닿는 곳과 바로 인접해 있어 상권이 번창했던 곳이다. 본 건물의 건립 시기는 일제강점기 말엽으로 여겨진다.

건물은 2층 조적조 건물로 영해동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외부는 2층 창호까지 건립 당시의 모습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1층 상가는 곡물집, 기름집, 시민약방, 완도선구점 등을 거쳐 1983년 무렵부터 남해선구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의 전면 외관은 시멘트와 가는 모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시공한 일종의 석판마감으로 방형의 줄눈이 들어가 있다. 평면은 방형이나 모서리는 가로 코너에 맞추어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2층 바닥 판은 목재틀로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림 183 2층 창호



그림 184 남해 선구점 전경

12. 대광전자 상가

- 소재지: 목포시 영해동 1가 3-5(해안로 229번길 4)
- 건 립: 일제강점기



그림 185 상가 전경



그림 186 2층 창호

영해동 사거리 코너 남해선구점 바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건물이다. 건립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남해선구점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평면은 코너 입지에 맞게 모서리를 사선으로 처리한 방형이며 구조는 조적조로 되어 있다. 외부 벽체는 일정 간격으로 줄눈을 넣고 시멘트와 가는 모래를 혼합하여 발라 석판을 댄 것처럼 보인다.

창호는 1층은 개조가 됐으나 2층 만큼은 건립 당시의 목재 오르내림 수직창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13. 구 보광동 객주집

- 소재지: 목포시 보광동 1가 4
- 건립: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말경에 건축된 것으로 여겨지는 2층 석조 건물로 당시 ‘객주’집이었다고 한다. 이 상가는 내향 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곳은 섬과의 교류가 크게 늘면서 상업 거리로 크게 번창했던 곳이다.

평면은 측면이 긴 단순한 장방형으로 1층은 상가로, 2층은 본래 침실로 ‘다다미방’이었다. 건축 구조는 조적조로 양 측면은 붉은 벽돌로, 전면은 거친 흑두기가 있는 방형 석재로 되어 있다. 2층 수직창 상하 인방은 잔다듬 마감으로 거친 벽체와 대조가 된다. 2층 바닥은 목재 틀로 건립 당시의 원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다.

현재 1층은 건어물 가게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이제 몇 남지 않은 목포의 근대 석조상가 건물 중 하나이다.



그림 187 전면 전경



그림 188 2층 바닥 구조

14. 구 목포 유곽

- 소재지: 목포시 해안로 105번길 7-1. 11
- 건립: 1910년대

유곽(遊廓)은 개항 후 일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성매매가 공식화되면서 자기들 거류지에 설치한 근대적인 집단 성매매 지역을 말한다. 유곽은 개항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는데 1902년 부산을 시작으로 1903년에 원산, 그리고 목포에는 1905년에 처음 설치됐다. 설립 초기에는 일본 여성만 참여하였으나 점차 한국인 여성도 유곽에 발을 디디게 됐다.

목포 유곽은 처음에는 죽동 흥선사와 통조사 사이의 좁은 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목포역의 개통과 시가지의 확산 등으로 인구가 늘고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유곽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1913년 여름에 현재의 금화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지역은 당시 부의 서쪽 끝 바닷가 부근으로 기존 시가지와 동떨어져 있고 전망도 매우 좋은 곳이었다. 1930년 발행 『목포부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이 경영한 유곽은 일곡루(一谷樓), 주길정(住吉亭), 현해루(玄海樓), 만직지루(萬直誌樓), 삼교루(三橋樓) 등 5곳이 있었고, 한국인 경영의 유곽은 일출정(日出亭), 명월정(明月亭), 영춘정(永春亭) 등 3곳이 있었다.

현재 금화동 유곽 거리에는 2층 유곽 건물이 4채 정도가 있다. 이중 2채는 개보수가 되어 옛 모습을 유추하기가 힘든데 2채는 목구조 처마와 창호, 2층 실내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현재 1층에서만 살림집으로 부분 사용하고 있다.

군산, 부산 등 이미 건물은 커녕 거리조차 모두 사라졌는데, 목포 유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과거 식민지의 기억은 모두를 지워도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목포 유곽도 그중의 하나다.



그림 189 목포 유곽 전경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806쪽.



그림 190 목포유곽 전경(1913년)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228쪽.



그림 191 건물 전경(7-1번)



그림 192 건물 전경(11번)

15. 구 전남정미소

- 소재지: 목포시 대안동 2-1
- 건 립: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목포를 대표하는 한국인 미곡상이었던 김문옥(金文玉)이 운영하던 ‘전남정미소(全南淸米所)’ 건물이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목포항을 중심으로 미곡 상인들의 활동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여러 곳에 정미소가 생겨났다. 그 중 전남정미소는 전남에서 제일 규모가 컸으며 특히 한국인이 운영했던 정미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본 건물에 대한 구 건축물대장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 중반쯤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남쪽으로 큰 마당(현 독천식당 주차장)을 두고 주로 북쪽과 서쪽의 도로변을 따라 ‘ㄷ’자형으로 지어졌다. 또한 이 건물과 이어져 북측과 동측에도 비슷한 규모의 벽돌조 건물이 있는데 당시 규모가 커지면서 증축으로 공장이 넓혀진 것 같다.

정미소는 2층 규모로 높게 쌓은 조적조이며 지붕은 박공 형이다. 벽돌은 붉은 벽돌을 사용했는데 크기는 220×100×60mm와 230×110×60mm의 두 종류가 사용됐다. 2층 바닥 틀은 모두 목구조



그림 193 북동 측 코너 전경



그림 194 남측 전경



그림 195 북동 측 2층 바닥 틀 받침기둥



그림 196 북동 측 2층 바닥 구조

로서 그 구조가 매우 특이하다.

현재 이 건물은 상가 등으로 내부가 개조되어 있으나 외벽만큼은 옛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근대기 정미소 건물로 보존 가치가 있다.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정미소 주인이었던 김문옥의 주택이 있다.

16. 구 보광동 창고

- 소재지: 목포시 보광동 5-4, 5-10(수강로 12번길 23-6)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비교적 원형을 잘 갖추고 있는 붉은 벽돌 부두 창고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하나처럼 보이나 내부는 종으로 벽이 있고 문도 앞쪽에 3개가 있어 별도의 3개 창고가 된다. 입면 구성도 정면 상부에 박공면 3개가 따로 연결되어 있다. 창고 하나의 크기는 가로가 7.4m이고 세로가 15.4m이며 높이는 목조 트러스 하단 부까지 4m이다. 상부 지붕 구조는 왕대공 목조 트러스로 되어 있다. 목포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부두창고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97 창고 전경



그림 198 정면 출입문

17.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 소재지: 목포시 온금동 122-6
- 건립: 1938년

조선내화(주) 목포공장은 주로 제철 공장에서 사용하는 내화(耐火)벽돌을 생산하던 옛 공장이다. 조선내화는 1938년 7월 20일 일본인 사토 등에 의해 설립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가 그 시초이며 해방 후 목포 재벌 손용기 등이 미군정으로부터 불하받아 1947년 5월 15일에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 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공장의 80%가 파괴된 상황에서 이훈동(1917~2010)이 1953년 7월 25일에 이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국내 최고의 내화 제품 생산 회사가 되었다. 이훈동은 1948년에 이 회사의 상무로 경영에 참여한 바 있고, 특히 그는 해방 후 내화벽돌의 주원료인 납석 광산(해남 성산과 완도 노화)을 직접 운영하였다.

1997년에 광양으로 주 공장이 옮겨가면서 목포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구 공장은 부지면적이 약 29,320㎡, 건물 면적은 11,024㎡로 규모가 매우 크다.

공장 건물은 공장 설립 초기에 건립한 목조트러스 건물(각가마용)과 1960년대 초에 지은 철재트러스 건물(터널식 가마용)이 규모도 크고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외 사무동과 공장장 사택도 있다. 굴뚝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3기 중 2기는 콘크리트 원형 구조이며 1기는 역시 원형으로 적벽돌로 축조되어 있다. 특히 적벽돌 굴뚝은 2단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종 설비(각가마 1기, 길이 70m의 터널식 가마 2기, 건조기, 고압프레스 등)도 비교적 사용 당시 원 모습으로 잘 남아 있다.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은 해방 후 목포 경제와 한국 내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근대 산업유산으로 보존가치가 크다. 최근 외국에서는 옛 산업 시설을 전시, 공연, 교육 등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2017년 12월 5일자로 등록문화재 제707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199 일제강점기 조선내화공장 전경
자료: 『조선내화 50년사』, 1997, 화보판.



그림 200 1990년대 조선내화공장 전경
자료: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 자료실.



그림 201 굴뚝 전경



그림 202 각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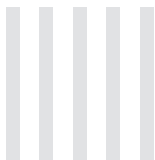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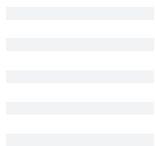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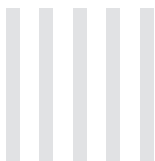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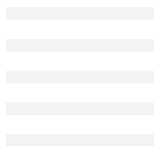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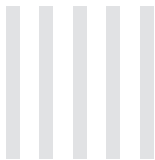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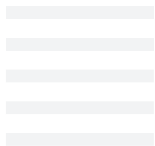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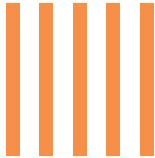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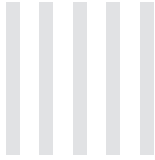


그림 203 터널식 가마(좌우)와 공장 내부 모습



그림 204 고압 프레스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1절 무형문화재 개관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2절 옥장 장주원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3절 조선장 김정후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4절 판소리 「춘향가」 안부덕(애란)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5절 판소리 「수궁가」 박방금(금희)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6절 판소리 「흥보가」 김순자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3장 무형문화재

제1절 무형문화재 개관

이 글과 관련된 전라남도 목포시 무형문화재는 국가 지정의 무형문화재 한 가지, 도지정의 무형문화재 네 가지이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玉匠) 장주원이 있고,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조선장 심정후, 판소리 안부덕(동편제 「적벽가」)·박방금(동편제 「수궁가」)·김순자(동편제 「흥보가」) 등이 있다.⁰¹⁾ 이렇게 판소리 관련 문화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명창이 어려서부터 국악인의 길을 밟은 탓이다. 그리고 목포의 신치선, 안기선, 장월중선(후에 경주로) 명창과 목포를 거쳐 간 성우향, 한농선, 오정숙 명창이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필자가 옥장(장주원), 조선장(심정후), 판소리(안부덕, 박방금, 김순자) 등을 대상으로 인물별 생애(출생과 성장), 해당 분야 입문 과정과 사사 관계, 문화재 지정 사유와 전승 활동, 판소리 기능보유자의 특징 등을 신상(성명, 주소), 가치관(태도, 지식, 기술), 업적과 계획(과거, 현재,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여기에서 주로 인용된 참고 문헌은 전라남도 목포시의 옥장, 판소리와 관련된 자료, 저서, 논문, 비도서 등이다. 특히 자료는 문헌 조사 자료,⁰²⁾ 현지 조사 자료⁰³⁾ 등이고, 비자료는 공연(영상), 음반 등

01) 목포여행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이외에 국악 분야에서 활약한 전라남도 목포시 관련 장월중선, 신치선, 김상용, 안기선, 안향련 등은 「목포시사」 4권의 「주요인물」에서 이윤선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02) 사전, 정부·지자체의 문화재(위원회, 위원 포함), 신문·방송, 잡지 등.

03) 장동기·안부덕(애란)·박방금(금희), 김순자 제보, 「장주원·안부덕·박방금·김순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 홍순일 조사, 심정후 제보, 〈심정후의 생애, 사진〉, 대전→목포(통화), 2018.02.09.

이다. 서술할 때는 우선 옥장, 다음에 조선장, 그 다음 판소리를 서술하되,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제보자를 소개할 때는 성명의 우측에 가능한 한 성별, 나이, 출생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는데, 이때 나이는 채록 당시의 나이로 한다. 그리고 판소리의 경우 필요시 원문에 ‘/’, ‘//’ 표시를 가하여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제2절 옥장 장주원



그림 1 옥장 장주원의 모습(장주원 제공).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장주원이 있다.⁰⁴⁾ 지정종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문화재명은 ‘옥장 장주원’, 소재지는 목포시 대성동, 지정일자는 1996년 2월 1일이다. 현주소는 대성동 74-209번지이다.

장주원(張周元, 남, 1937)⁰⁵⁾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다. 장주원은 20살 때 옥공예를 시작해 현

04)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05) 장동기 제보, 「장주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동안 옥공예 종주국 중국과 중국인들을 놀라게 했다.⁰⁶⁾ 녹옥 매화다기 주전자, 용 봉황껍, 청옥매화관통형 주전자·잔, 청옥입식희전관통매화 주전자⁰⁷⁾ 등이 있다.

옥은 동양 문화권에서 금·은과 함께 쓰여진 대표적인 보석이고, 음양오행의 다섯 가지 덕인 인(仁)·의(義)·지(智)·용(勇)·각(角)을 상징하는 상류층의 장신구로 사용되었다.⁰⁸⁾

“군자의 덕(德)은 옥(玉)에 비할 수 있으니 부드럽고 따사롭고 광채가 나는 것은 인(仁)이요, 짜임새가 고르면서 굳은 것은 지(智)요, 깨끗하면서 깎이지 않음은 의(義)요, 몸에 드리워 떨어질 듯함은 예(禮)요, 두들기면 그 소리가 맑고 은은하게 뻗어 슬쩍 감추는 것은 낙(樂)이다(『예기(禮記)』).”⁰⁹⁾ 성질은 끈기와 온유, 은은함 등을 상징한다.¹⁰⁾

옥장(玉匠)은 옥으로 생활용품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장인이다.¹¹⁾ 옥장은 전통 공예 기술의 장인으로 고가의 원석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며 정교한 조각 기능뿐만 아니라 고도의 예술성이 요구된다.¹²⁾ 국가에서 옥공예를 다루는 공인의 수를 제한하여 그 수가 극히 적었다.¹³⁾

장주원은 공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도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옥이었다. 귀금속을 다루는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소문을 듣고 깨진 옥향로를 수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으나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옥공예에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¹⁴⁾

장주원은 옥에 매료된 이유에 대해 “당시 고리가 부서진 중국산 옥 향로 제품의 수리를 의뢰받았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했다.”며 “그때 옥공예를 해 보겠다고 맘 먹었고 그 후 2주간 접신한 무당처럼 밥도 못 먹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신열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옥공예에 흠뻑 빠져든 것이다.¹⁵⁾

1964년 27세 되던 해에 종로 2가에 있는 보석 전문 공예사인 보공사로 옮겨 옥공예를 주로 다루었으며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65년도에 귀향하여 죽교 2동 19번지에

06)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2016. 12. 20), 「장주원」.

07)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문화유산정보] 문화유산 이야기 -옥장 장주원」(2014. 01. 06.)

08)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 12. 20.) 「옥장」.

09)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문화유산정보] 문화유산 이야기 -옥장 장주원」(2014. 01. 06.)

10) 『한겨레』 2014. 12. 02. 「용의 입안에 구르는 옥구슬…옥공예 종주국 중국도 인정」.

11) 『한겨레』 2014. 12. 02. 「용의 입안에 구르는 옥구슬…옥공예 종주국 중국도 인정」.

12)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 12. 20.) 「옥장」.

13)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 12. 20.) 「옥장」.

14)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문화유산정보] 문화유산 이야기 -옥장 장주원」(2014. 01. 06.)

15) 『서울신문』 2015. 10. 25. 「[명인·명물을 찾아서] 중요무형문화재 100호 옥장 장주원 선생」.

옥공예 공방을 설립하여 행상을 상대로 상업 상품인 옥공예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¹⁶⁾

장주원은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에서 살다가 할아버지 규강(일명 대진, 1884~1970)때에 목포에 정착했다. 아버지 장중현(1915~1970)이 목포에서 금은 세공과 보석 가공을 했으며 그 제자인 정길택을 통해 전수된 기능이 장주원에게 이어진 것이다. 장남인 장장석(1960년생)이 가업을 위해 이를 전수받았다.¹⁷⁾ 현재 차남 장동기(1965년생)와 손자 장우경(1998년생)도 참여 중이다.¹⁸⁾

옥공예의 가공에 있어서도 동공예 제조 기술과는 판이하게 달라 정으로 쪼아 다듬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갈아 만든다.¹⁹⁾ 옥제작 공정은 대략 6단계로 나누어진다. ‘채석→디자인→절단→성형→세부 조각(구멍뚫기·홈파기)→광택’의 과정을 거쳐 옥작품이 완성되는데 각 공정에 따라 절단 공구인 쇠톱, 구멍을 뚫는 활비비, 연마 공구인 갈이틀, 물레 등 여러 공구들이 사용된다.

장주원의 옥공예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이 발휘된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을 만들 때, 용의 입안에 옥구슬이 굴러다닌다. 여의주를 따로 입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옥 하나를 붙임 없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이 ‘환주기법’이다. 쇠사슬 모양의 옥 목걸이 역시 붙임 없이 하나의 옥으로 만들어 냈다. 하나의 원석에서 실을 뽑듯이 둥근 고리를 끊어지는 것이 없이 연결했다. 옥공예가 오랜 전통인 중국에서는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사슬을 만들지만 그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고리 연결 기법’을 이용하면 끊어짐 없이 옥 사슬을 만들 수 있다.

옥을 다루는 장주원의 옥공예 기술은 ‘회전 관통 기법’에서 절정을 이룬다. 물과 술을 담은 주전자를 옥으로 깎아 만드는데, 좁은 구멍을 뚫어 옥의 내부를 파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옥의 내부 곡면을 따라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내시경 없이 수술하는 형국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몸통이로 갈수록 구멍을 넓게 파기도 하고, 주전자 주둥이와 몸체 사이에 차를 거르는 체도 조각했다. 보이지 않는 주전자 속에 촘촘한 망을 만든 것이다.²⁰⁾

장주원은 2015년 “대량 생산되는 중국 옥공예품의 품질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감성을 불어 넣는 수공예로 종주국인 중국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일본의 모리 미술관이나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에서 한국 옥공예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²¹⁾

16)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문화유산정보] 문화유산 이야기 -옥장 장주원」(2014. 01. 06.)

17)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18) 장동기 제보, 「장주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19)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 12. 20) 「옥장」.

20) 『한겨레신문』 2014. 12. 02. 「용의 입안에 구르는 옥구슬...옥공예 종주국 중국도 인정」.

21) 『서울신문』 2015. 10. 25. 「[명인·명물을 찾아서] 중요무형문화재 100호 옥장 장주원 선생」.

제3절 조선장 심정후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 조선장 심정후가 있다.²²⁾ 지정 종별은 무형문화재 제50호, 문화재명은 조선장(造船匠), 소재지는 전남 신안군, 목포시, 완도군, 지정일자는 2013년 8월 5일이다. 목포시 심정후는 신안군 조일옥, 완도군 마광남과 함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인데, 이것은 지방 무형문화재 중에서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조선장’은 ‘신안씻김굿’ 등 5개 종목과 함께 2013년 8월 5일에 무형문화재로 새로 지정되었다.²³⁾ 당시에 새로 지정키로 한 종목은 기능분야의 경우 ‘조선장(造船匠)’, ‘목조각장’, 예능분야의 경우 ‘신안씻김굿’, ‘화순 우봉리 들소리’, ‘영암 갈곡리 들소리’, ‘화순 도장리 발노래’였다.²⁴⁾

심정후의 자택은 전남 목포시 유달로 4 한일포차(서산동 23번지 15통 4반)인데, 벽돌을 만드는 옥금동 어업조합과 신안비치호텔 사이의 중간에 있다. 부인이 가게 한일포차를 운영하고 있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심정후(남, 67세)²⁵⁾는 살기가 어려웠던 1960년대 후반 군 제대 전후에 배 만들기를 시작했다. 16~17살 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조선(造船)을 시작했다. 비 오면 놀고, 배를 짓거나 비를 수리하는 등 일이(수주할 사람이) 없으면 놀게 되어 후회하는 때도 있지만, 무형문화재 50호 조선장으로 지정된 후 배를 건조해서 내릴 때, 선주가 고기 부자가 될 때, 어부가 고기를 자기에게 갖다 줄 때 등에서 보람을 느낀다.

심정후는 목선이 없어진 지금이지만 그동안 자신의 기술을 쓴 경우가 여럿이다. 전통선박, 판옥선, 세곡선(稅穀船), 통신사선 등에서다. 심정후는 30~40억을 투자해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로 조선장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다.

심정후는 1968년부터 고 김성호 씨, 고 주호섭 씨로부터 조선기술을 배웠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다가 혼자 터득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즉 조선소 밑에 있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여럿’이란 합쳐 7~10명이었고,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은 총 20~50명이었다. 심정후는 40대 때 혼자 터득했다.

선주가 배 만들기를 조선장에게 주문한다. 당시에 배를 만드는 설계도가 없었다. 높이, 너비, 깊이,

22)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23) 『전남타임스』2013. 01. 10. 「조선장-신안 씻김굿 등 7종 무형문화재 지정」.

24) 『전남타임스』2013. 01. 10. 「조선장-신안 씻김굿 등 7종 무형문화재 지정」.

25) 홍순일 조사, 심정후 제보, 「심정후의 생애, 사진」, 2018. 02. 09. 조사.



그림 2 거북선 용모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심정후 제공)



그림 3 임진란거북선 진수식 모습(심정후 제공)

길이 등 치수를 확인하고 손수 그렸다. '선도 친다'는 말은 배 도면을 그린다는 뜻이다. 현재 제자가 없다. 목선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장(造船匠)이란 우리나라 전통 배인 한선(韓船)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²⁶⁾ 전남은 서남해 양면이 바다로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하고 어로 기술이 뛰어 났는데, 동력선이 일반화되면서 전통 배만들기 기술이 사라져 가고 있어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하게 된 것이다.²⁷⁾ 특히 지역에 따라 해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 제작 기술이나 용도가 달랐다. 목포시의 심정후(沈正厚, 62세)는 새우잡이를 해온 전통 어선인 멍텅구리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하고, 이외에 신안군의 조일옥(趙日玉, 70세)은 가거도 멸치잡이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완도군의 마광남(馬光男, 71세)은 소형 화물선 전용인 뗏마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자로 인정하기로 하였다.²⁸⁾

근대 한선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강이나 바다에 떠다니던 배를 말하는데, 거룻배, 나룻배, 야거리배, 당두리 등이 있었다. 배를 만들 때는 주로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함께 일하며, 큰 배는 2~3명, 작은 배는 1~2명이 배의 종류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달 걸려 제작한다.²⁹⁾ 현재 만들어지는 배는 주로 화포돛배, 놀이배, 기관선, 메생이(그물배나 낚시배) 등이다.³⁰⁾

조선배의 특징은 물 깊이가 무릎밖에 안되는 강 상류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배 밑바닥이 넓고 평평

26)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조선장(서울 강서구), 제11호 조선장(경남 하남시),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부산 사하구), 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 검색, 문화유산정보, 문화재청.

27) 『전남바른신문』, 2013. 07. 29. 「무형문화재 5종목 새로 지정」.

28) 『전남바른신문』, 2013. 07. 29. 「무형문화재 5종목 새로 지정」.

29) 정진각, 「조선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0)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조선장(서울 강서구), 제11호 조선장(경남 하남시),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부산 사하구), 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 검색, 문화유산정보, 문화재청.

하며 탄력있게 만들어지는 점이다.³¹⁾ 목포시가 지난 4월 28~29일 고하도 및 유달산 노적봉 일원에 서 2017년 처음으로 개최한 ‘목포 이순신 수군 문화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목포시는 문화제를 열고 학술 대회, 수군 행진 등 목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했다. 특히 이충무공이 고하도에서 군량미를 비축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노적쌍기 체험 프로그램, 도(道)지정 무형문화재 조선장의 거북선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판옥선, 안택선 비교 전시도 호응을 얻었다.³²⁾

목포시의 조선장 심정후(2013년 당시 62세)의 특징은 신안군의 조일옥(趙日玉, 2013년 당시 70세)은 가거도 멀치잡이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완도군의 마광남(馬光男, 2013년 당시 71세)은 소형 화물선 전용인 뗏마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새우잡이를 해온 전통어선인 멩텅구리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된³³⁾ 것이 특징이다. 심정후는 지금도 모형선을 만들어서 자신이 조선장임을 보여 주는 일을 계속 한다. 목포시에서 행사를 할 때 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심정후는 황토돛단배, 해태채취선, 똥배(분노배) 등의 제작을 의뢰받은 상태이다. 똥배는 거름을 실어 나르되 작고 소박한 배이다. 2018년인 올해 이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4절 판소리 「춘향가」 안부덕(애란)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 판소리 안부덕(동편제 「춘향가」)이 있다.³⁴⁾ 지정 종별은 무형문화재 제29-2호, 문화재명은 ‘판소리 안부덕(동편제 「춘향가」)’, 소재지는 목포시 석현동, 지정 일자는 2002년 4월 20일이다.

안부덕의 자택은 전남 목포시 석현동이지만, 전수관은 전남 목포시 용해동 안애란 판소리 전수관이다. 본명은 안부덕이고 예명은 안애란이다. 안애란은 22살~24살 때 목포의 남자국극단에서 활동할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이름이다.

안부덕(여, 1943~)³⁵⁾은 1943년 나주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에 목포로 이주하여 목포서부초등학교(구 목포서부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목포에 살면서 신치선, 정응민, 김상용, 성우향 선생에게 판소리를 수련하였다. 1986년부터 6년간 성우향 선생에게 동편제 「춘향가」를 배웠다. 1994년에는 전

31)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조선장(서울 강서구), 제11호 조선장(경남 하남시),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부산 사하구), 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 검색, 문화유산정보, 문화재청.

32) 『무등일보』 2017. 05. 01. 「『목포 이순신 수군 문화제』 성료」.

33) 『전남바른신문』 2013. 07. 29. 「무형문화재 5종목 새로 지정」.

34)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35) 안부덕 제보, 「명창 안부덕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안부덕의 성장, 제작발표회」, 홍순일 조사, 2017. 09. 06.



그림 4 안부덕(애란)과 제자들의 모습(2017년 4월 28일)

국 판소리 명창 경연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안부덕은 후술할 박방금, 김순자와 함께 김세종판 동편제 「춘향가」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상량과 막힘없는 시김새의 구사는 선생의 부단한 노력과 쌓인 공력을 짐작케 하며 기교가 많고 화려한 김세종판 동편제 「춘향가」를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다.³⁶⁾ 특히 안부덕은 각종 대회에서 심사를 맡아 활약하기도 했다.

안부덕은 2015년 11월 28일,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상설공연’에 초대되었다. 이 무대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를 잘 보여주었다.³⁷⁾

이 무대에 선 판소리 명창과 제자들은 섬진강을 기준으로 서편 지역 출신이고 모두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안부덕은 이 무대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2호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 보유자로서, ‘춘향과 몽룡 이별하는 대목’, ‘어사와 월매 상봉하는 대목’을 불렀다.

판소리는 1996년 10월 14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1996년에 동편제 「홍보가」(박정례), 2002년에 동편제 「춘향가」(안부덕)와 고법(추정남)을 보유 종별로 인정하여 보존 전승하면서 관

36) 문화재청(<http://www.cha.go.kr>)의 문화유산정보, 「판소리 「춘향가」 안부덕」.

37)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2015. 11. 28.).

리해 왔다. 그러다가 기존에 지정된 유파는 그대로 일련 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제29-1호 등)하여 부여하고 앞으로 인정되는 유파별로 그 이후 번호를 추가(제29-4호 등)로 부여하기로 했다. 제29-1호 판소리 동편제 「흥보가」(당초 예능보유자 박정례, 순천, 1996년 10월 14일 인정, 2004년 03월 11일 해제[사망]), 제29-2호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예능보유자 안부덕, 목포, 2002년 04월 20일 인정), 그리고 제29-3호 판소리 고법(예능보유자 추정남, 해남, 2002년 04월 20일 인정) 등이다.³⁸⁾ 즉 안부덕의 판소리는 2002년에 동편제 「춘향가」(안부덕)가 제29-2호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예능보유자 안부덕, 목포, 2002년 04월 20일 인정)로 변경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안부덕은 나이를 먹어서 앞으로 몇 년 더 소리를 가르칠지 모르나 몸은 늙었어도 마음이 젊다고 말한다.³⁹⁾ 현재 초등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1:1로 1주일에 두 번 소리 수업을 하고 있다. 소리를 잘 받으면 30~40분 정도, 소리를 못 받으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업 요일은 초등부가 토요일, 일요일, 일반인이 수요일, 목요일이다. 「춘향가」, 「심청가」등이 있지만 주로 「춘향가」를 전수시킨다.

또한 안부덕은 1년에 한 번 전라남도(목포시) 제자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발표회는 2015년 예술회관, 2016~2017년 오거리문화센터 등에서 개최되었다. 배출된 많은 제자들은 현재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제5절 판소리 「수궁가」 박방금(금희)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판소리 박방금(동편제 「수궁가」)이 있다.⁴⁰⁾ 지정 종별은 무형문화재 제29-4호, 문화재명은 '판소리 박방금(동편제 「수궁가」)', 소재지는 목포시 산정동, 지정 일자는 2008년 12월 26일이다.

박방금(여, 1949~)⁴¹⁾은 본명이고, 예명은 박금희이다. 박방금은 목포에서 여러 선생들로부터 판소리 다섯 바탕을 공부했다. 그러다가 1986년, 서울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할 때 박금희라는 예명으로 한동안 불려졌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주로 본명으로, 서울에서는 예명으로 불려졌던 것이다. 박방금의 자택은 전남 목포시 용당동이다. 산정동에서 용당동으로 이사한 것이다. 전수관은 전남 목포시 용해동 284번지 박금희 판소리 전수교육관이다.

38) 전라남도 고시 제2006-175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인정, 해제) 행정예고시」, 2006. 12. 05.

39) 안부덕 제보, 「명창 안부덕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40)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41) 박방금 제보, 「명창 박방금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그림 5 박방금(금희)과 제자들의 모습(2017년 4월 28일)

박방금은 1949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1960년 목포 국악원 김상용 선생 문하에서 「심청가」를 사사하였고, 그 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오정숙 명창으로부터 「홍보가」완판 사사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예능보유자인 성우향 명창에게 「춘향가」완판 사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예능 보유자 정철호 명창에게는 「적벽가」, 「수궁가」, 「심청가」를 완판 사사 받았다. 이후 1988년에 박양덕 명창에게 유성준 바디 「수궁가」 완판을 사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가 되었다.

또한 박방금은 제1회 정읍사 전국명창대회 대명창부 대통령상을 받았고, 국립창극단 단원 활동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으며, 후학들을 양성하면서도 2007년 3월 2일 「수궁가」 완창발표회를 하는 등 전통 국악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²⁾

박방금은 전술한 안부덕과 후술할 김숙자와 함께 2015년 11월 28일,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 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상설공연에 초대되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판소리 동편제 「수궁

42) 문화재청(<http://www.cha.go.kr>)의 문화유산정보, 「판소리 「수궁가」 박방금」.

가」를 무대에서 잘 보여주었다.⁴³⁾

박방금은 이 무대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4호 판소리 동편제 「수궁가」보유자로서, ‘계면 양류~인적 없는 녹수청산’, ‘별주부 토끼 팔란(八亂) 이르는 대목’을 불렀다.

박방금의 판소리 「수궁가」는 병이 든 용왕이 토끼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더러 토끼를 꺾어 용궁으로 데려오게 하나, 토끼는 꺾을 내어 용왕을 속이고 세상으로 살아나간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토끼타령, 별주부타령, 토별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니리〉

여보시오 별주부 하 수궁 흥미가 좀 어떠시오.

하 우리 수궁 흥미 좋지요.

아 우리 수궁 흥미 반겨듣고 가자 허면 마다 할 수 없고,

가기로 허면 내 이 적은 덕으로 한 덩집 할 수도 없으니

애당초 듣지도 마시오.

아따 내가 가자고 허면 시아들놈인게 이리시 한번 들어봅시다.

〈중중모리〉

우리 수궁 별천지라…….⁴⁴⁾

박방금의 판소리 「수궁가」는 박초월 바디로 유성준-박초월-박양덕-박방금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유성준 「수궁가」는 정광수, 임방울, 김연수 등에게 전해져 현재 가장 널리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초월이 유성준에게 「수궁가」를 배운 시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고, 같은 계열의 소리에 비해 박초월의 「수궁가」는 계면조의 애원성이 많이 가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⁵⁾

그런데 박방금은 이러한 박초월 명창의 소리를 따르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동편제는 원래 계면조가 들어 있지 않다. 유성준은 계면조로 소리를 하지 않았으나 박초월은 이쁜 목이어서 계면조로 소리를 했다. 박방금은 박초월의 이쁜 목대로 소리를 내지 못했다. 박방금은 남성적인 음이어서 성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43)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2015. 11. 28.

44)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http://www.sori.jeonbuk.kr/>), 「2005 토요예인전 박방금 명창의 「수궁가」」.

45) 국악정보(<http://arirangs.com>, 2016.12.20.), 「박방금-판소리(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박방금은 어린이, 어른을 대상으로 1:1로 1주일에 두 번 소리 수업을 하고 있다. 박방금은 좋은 판소리꾼이 배출되려면 좋은 배심, 타고난 목소리, 부단한 노력이 조건이라고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1~2년, 장기적으로 10~20년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소리를 배워 대학교 국악과까지 진학해야 한다고 했다. 박금희 판소리 전수교육관에는 전수 조교가 없고 전수생이 있다. 전수 조교의 자격은 이수자, 이수 후 지역에서 5년 거주자인데 아직 이에 해당되는 전수생이 없기 때문이다. 박방금은 1년에 한 번 전라남도(목포시) 제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제6절 판소리 「흥보가」 김순자

전라남도 목포시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의 무형 1가지, 도지정의 무형 4가지이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판소리 본문은 동편제 「춘향가」안부덕, 동편제 「수궁가」박방금에 이어서 김순자 동편제 「흥보가」가 있다.⁴⁶⁾ 김순자의 지정종 별은 무형문화재 제29-5호, 문화재명은 ‘판소리 김순자(동편제 「흥보가」)’, 소재지는 목포시 용당1동, 지정 일자는 2009년 3월 20일이다.

김순자(여, 1945~)⁴⁷⁾의 자택은 전남 목포시 동부로 18번지(구 용당1동 962-68번지)이고, 같은 곳에 있는 전수관은 (사)한국판소리보존회 목포지부 김순자 국악원(구 유달 판소리 교습소)이다.

김순자는 판소리의 고장 진도에서 1945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수학하여 왔으며, 1967년 김홍남 선생에게 흥부가를 사사받아 판소리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전북 중요무형문화재 2호인 최란수 선생에게 「수궁가」, 「흥보가」, 「춘향가」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조상현 선생에게 「심청가」, 「춘향가」를 사사받았다. 또한 제1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차상, 1996년 광주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1994년 서울판소리 유파 발표회, 1998년 판소리 「흥보가」완창, 2005년 서울판소리 유파 발표회 등 수 차례의 판소리 발표회를 해왔다.

김순자의 부모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자식이 판소리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순자는 국악에 일찍 전적으로 뛰어들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늦게 국악에 전념한 편에 속한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 (사)한국판소리보존연구회 목포지부에서 지부장을 역임했고, 2008~2015년에 대회장으로서 제8회 유달전국국악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⁴⁹⁾ 특히 목에 구

46)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47) 김순자 제보, 「명창 김순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48) 국악음반박물관(<http://www.hearkorea.com/>), 「진도 바다같은 김순자 명창, 잘 석힌 흥여 맛나는 「수궁가」」(2010. 11. 10.).

49) 김순자 제보, 「명창 김순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그림 6 김순자와 제자들의 모습(2017년 4월 28일)

수하고 다정한 성음이 들어가 있는 김순자는 목포문화원, 목포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전남도청, 전남예술고, 제주 목관아 등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학 양성, 지역의 전통문화 및 예술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⁵⁰⁾

김순자는 전술한 안부덕, 박방금과 함께 2015년 11월 28일,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상설공연에 초대되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판소리 동편제 「홍보가」를 무대에서 잘 보여주었다.⁵¹⁾ 김순자는 이 무대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5호 판소리 동편제 「홍보가」 보유자로서, ‘홍부 매품 파는 대목’, ‘홍부 형님 덕에 양식 빌러가는 대목’을 불렀다.

김순자는 “무서운 선생 밑에서 사사를 받았고, 스스로 소리를 알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소리의 계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거듭 말한다.⁵²⁾ 소리를 제대로 가르쳐 인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세밀하게 교육해야 한단다. 특히 진도군 조도면 출신의 김순자는 판소리에 굿하는 소

50) 문화재청(<http://www.cha.go.kr>)의 문화유산정보, 「판소리 「홍부가」 김순자」; 국악음반박물관(<http://www.hearkorea.com/>), 「진도 바다같은 김순자 명창, 잘 삭힌 흥어 맛나는 「수궁가」」(2010. 11. 10.).

51)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2015. 11.28.

52) 김순자 제보, 「명창 김순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슬퍼서 안되므로 가려서 가르친다.

김순자는 학생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1:1로 1주일 두 번 소리 수업을 한다. 토요일, 일요일은 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김순자가 소리를 가르치면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일반인은 월요일, 목요일이다.

또한 김순자는 1년에 한 번 전라남도(목포시) 제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2015년 예술회관, 2016~2017년 오거리문화센터 등에서 개최되었다.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다섯 마당 『목포시사』

1권 향도 목포

집필위원 (가나다순)

강 봉 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 석 규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곽 재 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 성 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김 재 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 정 섭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 지 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 계 각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박 성 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박 준 형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양 효 식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오 강 호

전남대학교 강의교수

오 홍 일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 기 훈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이 진 규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장 진 호

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정 철 환

전남대학교 강의교수

최 성 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홍 선 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홍 순 일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다섯 마당 목포시사

1권 향도 목포

발행처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편저	목포시사편찬위원회(고석규 외 19명)
총괄	목포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고석규
기획·편집	고석규, 나선휘, 조미은
교정·교열	나선휘, 조미은
행정지원	임진택, 정혜림
발행일	2017. 12. 31
디자인·편집·인쇄	이문
	(전남 나주시 북망문길 20 / 061-333-991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422 / 062-225-9913

다섯 마당 목포시사 ISBN 979-11-87136-00-2(전5권)

1권 향도 목포 ISBN 979-11-87136-01-9

〈비매품〉

다섯 마당 목포시사 전5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목포시와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木浦市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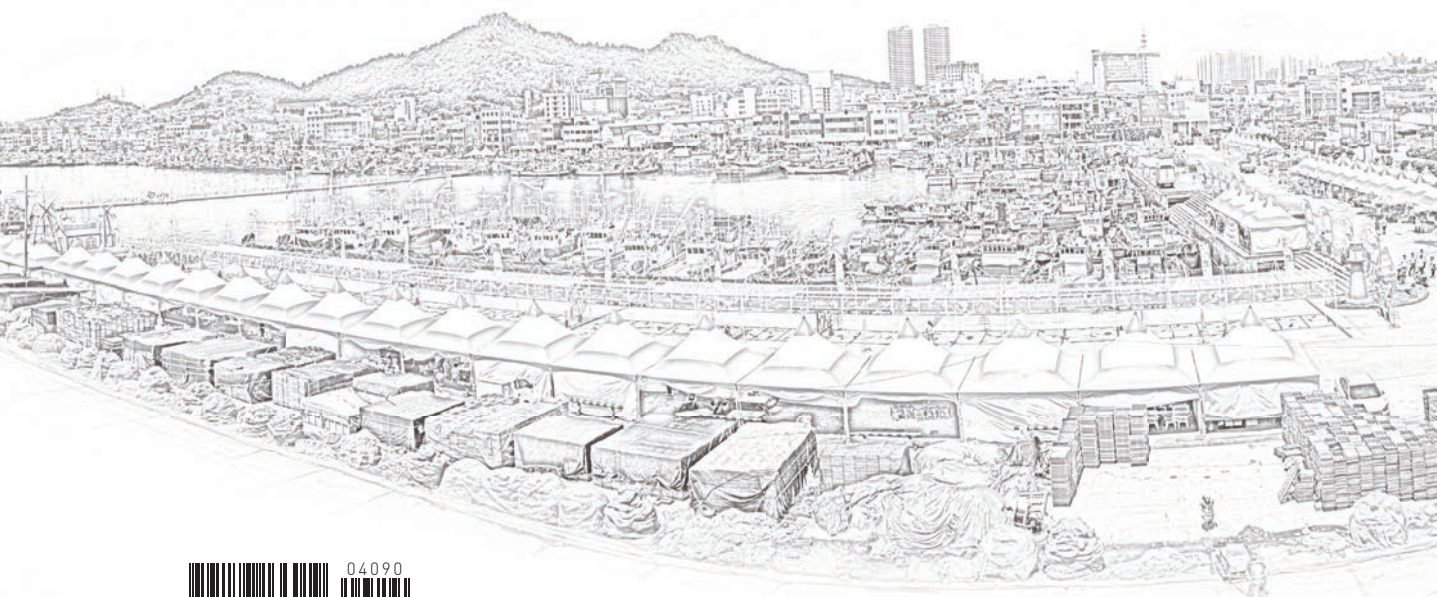
제1권 향도 목포

제2권 예향 목포

제3권 일등 목포

제4권 터전 목포

제5권 기록 목포



9 791187 136019

ISBN 979-11-87136-01-9
ISBN 979-11-87136-00-2 (세트)